

日帝 侵略期의 華城教育

一. 概 観

日本은 1910년 한일합방 이전부터 韓國 식민지화를 위한 侵略政策에 심혈을 다하였으니, 1904년 「第1次 韓日協約」을 강요하여 그 協定에 따라 顧問政治가 시작되어 일제 침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때 정부에는 일본인 參與官이 배치되었으니 학부에 學政參與官으로 「시데하라」(幣原 坦)가 파견되었다.

1905년 소위 「제2차 韓日協約」(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됨에 따라 韓國을 日本의 保護國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教育行政의 主導權은 日人에게 넘어가고, 1906年에는 統監府가 이 땅에 설치됨에 따라 「이또」(伊藤博文)가 初代統監에 赴任하여 1907년 「韓日新協約」으로 차관정치를 實施하여 「다와라」(俵 孫一)가 學部次官이 되면서 韓國人 教育의 실질적인 최고 權力者가 되었다.

이와같이 日本의 韓國統治는 統監政治에서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대체로 日本은 1904년 「第1次 韓日協約」으로부터 1910년의 「韓日合邦」까지는 植民政策의 合理化를 위한 노력으로 韓國을 인식하려 하였으니, 日帝 植民地 教育의 第一期로 準備期라고 할 것이다. 1910년 8월 한민족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한 「韓日合邦」으로 韓國人 教育의 주인이 된 日帝는 直接으로 同化政策에 힘썼다.

朝鮮總督府가 設置되고, 이에 따라 統監府時代의 마지막 統監인 「데우라찌」(시내정의)가 다시 初代總督으로 赴任하여서는 武斷政治를 실시함과 동시에 植民地 教育行政을 시작하였다. 軍人이 아닌 教員까지도 官服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게 함으로써 韓民族의 교육을 威壓하였다.

1911년 8월 23일에 공포된 「朝鮮教育令」과 동년 10월에 發布된 「私立學校規則」에 의해서 集約되는 教育政策은 植民地的 諸要因을 當然한 것으로 諦念하고 수용하는 「植民地的 人間像」을 길러내어, 植民地 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基礎工

事を 銃劍으로 단행하였다. 하면 그들의 統治目的에 맞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教育機關 또는 教育運動을 탄압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일제의 武斷政治는 마침내 전국적인 義兵의 봉기와 抗爭을 招來하였고, 동시에 反日愛國계몽운동이 廣範圍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족의 底力이 결집되어 1919년의 「3.1운동」의 勃發을 가져오게 했다.

이 운동은 日本 자체내의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여론도 일본에 불리하였다 이에 일본은 總督政治에 一代轉換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종래의 武斷政治에서 소위 文化政治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韓日合邦이 된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의 10여년 동안으로 日帝 植民地教育의 제2기로 볼 수 있으니 武斷정치기라고 表現할 수 있겠다.

3.1운동의 餘波로 무력에 의한 強壓만으로 韓國民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한 日帝는 한민족의 억센 抵抗의 銃鋒을 피하기 위해 소위 「文化政治」라는 懷柔策을 쓰게 되었다. 따라서 1919년 8월에 朝鮮總督이 경질되어 「사이또」(齊藤 實)가 부임하였다.

3.1운동 이전의 일제 植民政策이 彈壓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면, 1920년대의政策은 보다 세련되고, 보다 기만성이 높은 高等植民地政策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一視同仁」, 「內鮮一體」, 「內地準據主義」등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동화주의 教育을 더욱 강화해 갔다.

이상의 植民地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教育政策은 1922년 2월 4일에 개정한 「제2차 朝鮮教育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一視同仁」을 내세워 外形上으로는 일본과 동일한 수학연한으로 학제를 개편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學制(韓國에 거주하는 日人을 위한 制度)와 日本語를 常用하지 않는 자를 위한 학제(한국인을 위한 제도)로 區別하였으니, 일인과 한인을 差別하는 교묘한 手段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처음으로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한국인의 격화된 反日感情을 무마하려는 일시적 懷柔策에 불과하였다.

한편 동화교육에 있어서는 普通學校에 日本史와 日本地理 그리고 실업교과 등

을 신설하여 日本文化를 주입하고 저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민지 산업의 수요와 확장에 따른 低級의 產業補助員과 被使用人을 양성하려 했다. 그 뿐 아니라 普通學校 卒業生 지도학교, 일어를 할 줄 아는 低級의 노동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이학교, 短期 職業訓練을 위한 農業補習學校 등을 만들고 농업학교도 증설하였다. 이것은 經濟的으로 收奪政策을 꾀한 일제의 저의라 하겠다.

또한 普通學校의 1면 1교 計劃이 추진됨으로써 初等學校는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중등학교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韓國人에게는 初等교육으로 족하다고 판단, 愚民化政策을 서슴없이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한민족동화수단으로서의 植民地 教育政策에 대한 한국민의 抵抗은 끈질겼다.

연이은 抗日同盟休學(1920-1928) 학생의 민족계몽운동 (1919년 이후), 육·십만세사건의 주도(1926), 항일 광주학생사건(1929), 거족적인 민립대학 건립계획 추진(1920-1925)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이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38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즉 「3.1운동」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日帝가 한반도를 대륙侵攻의 병참기지로 보고 戰時體制를 이 땅에 强要하던 때 까지의 약 20년간으로 日帝植民地 教育의 제3기라 할 수 있는 欺瞞的인 文化政治期인 것이다.

日帝는 1931년 滿洲侵略의 經驗을 살려 1937년에 中日戰爭을 도발하여 중국과의 전면전쟁으로 들어가더니, 1941년에는 太平洋戰爭으로 전쟁을 擴大, 드디어 敗亡는 파시즘적 軍國主義가 澎湃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日帝의 植民政策은 이미 「政策」이란 次元을 넘어선 發惡的인 收奪과, 人的資源으로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韓國人도 日本人과 똑같은 姿勢를 가지라는 皇國臣民化政策을 强行되었다.

日常生活의 日本化, 日本語 常用과 창씨개명까지 자행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말살을 劃策하였다.

1936년 「미나미」(남 차량)란 군부세력이 總督으로 부임하여 東亞日報의 무기 정간에서 비롯하여 反日 민족언론과 民族思想에 대한 一大彈壓을 함으로써 植民

政策이 또 한 번 恐怖政治의 樣相을 띠게 되었다.

1938年 9月, 朝鮮總督府는 「時局對策調查會」라는 것을 열고 「朝鮮統治의 根本은 일시동인의 聖旨에 따라 완전한 皇國신민화를 꾀하고, 內鮮一體를 造成하여 大陸經營의 兵站基地로서의 使命을 다함과 동시에,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을 통해서 이상과 같은 精神을 배양하고 初等學校 및 中等學校의 급속한 普及을 꾀하며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3大 教育方針을 철저히 하여 완전한 皇國臣民의 育成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미나미 總督은 그의 教育方針대로 皇國臣民化를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뜻에서 다시 朝鮮教育令을 개정하여 1938년 3월 3일 칙령 第103號로 公布하였으니 세 칭 「第3次 朝鮮教育令」이다.

1941년 12월 8일 太平洋戰爭이 일어나자 韓國에서의 同化教育을 軍事目的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1942년 5월 신임 총독으로 「고이소」(小磯國昭)가 부임하여서는 皇國臣民化 教育의 군사체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1943년 10월 「第4次 朝鮮教育令」인 「教育에 관한 戰時非常措置令」에 의하여 戰時 教育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의 軍事體制화를 위한 「學徒動員體制整備에 관한 訓令」(1944. 4.), 「學徒動員本部의 設置」(1944. 4)에 이어 1944년 7월 「아베」(阿部信行)가 새 總督으로 赴任하여 「學徒勤勞令」(1944. 10), 「決戰教育措置要綱」(1945. 3)등의 각종 法令을 만들어 교육을 戰爭遂行의 도구로 삼았다.

이와같은 非教育的 상황은 패망직전 1945년 5월에 法律化되어 「戰時教育令」이 公布되고 이에 의하여 學徒隊를 組織하고 드디어 學校教育 機能을 정지시켰다.

이상과 같은 學校教育을 통한 皇國臣民化政策 이외에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皇國臣民化가 推進되었다.

朝鮮聯合青年團, 國民總力運動朝鮮聯盟 등의 結成과 青年訓練所, 時局座談會 등의 開催, 皇國신민의 서사 재창, 신사참배, 궁성요배, 한국인 가정에 神棚設置의 강요 등 軍國主義의 광란은 극에 도달했다. 따라서 1938년 第3次 朝鮮教育令의 改正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의 기간은 일제 植民地教育의 終期라 할 수 있는 韓民族抹殺 教育期라 할 것이다.

二. 日帝 侵略期 華城教育

1.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와 소학교령

本稿에서 말하는 日帝 侵略期란 1904년에 제1차 韓日協約에 의하여 고문정치가 시작된 이후 次官政治를 거쳐, 1910년 韓日合邦으로 朝鮮總督에 의한 식민지 統治時代 36년간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日本에 의하여 强要된 1876년의 「江華島不平等條約」(丙子修好條約) 이후 清日戰爭(1894~1895)과 露日戰爭(1904~1905)의 승리로 日本이 한국에 대하여 對日 예속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帝國主義의 侵略政策을 감행한 시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당시 國內에서는 1894년 甲午更張으로 新學制의 制定과 관학의 성립을 보게 되고, 1895년 (高宗 32년, 乙未) 2月 「教育詔書」를 통하여 오랜 구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中興을 기하고자 근대교육이념이 國家政策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高宗이 내린 「教育立國詔書」는 다음과 같다.

朕惟 祖宗之創業垂統茲歷有五百四年矣 實我 列朝教化德澤浹洽人心 亦由我臣民克殫厥忠愛是以朕嗣無彊大歷服夙夜祇瞿 祖宗之遺訓 是承爾臣民其體朕衷哉惟爾臣民祖先 卽我

祖宗之保育良臣民 爾臣民亦克紹 爾祖先忠愛 卽朕之保育良臣民 朕與爾臣民守祖宗丕基迄 繢億萬年休命嗚呼惟我不教國家鞏固甚難環顧宇內形勢 克富克強 獨立雄視之諸國 皆其人民知識開明 知識開明以教育之善美 則教育實國家保存之根本是以朕在君師位 自擔教育之責 教育又有其道 虛名實用 可先分別讀書習字撥拾古人糟粕 時勢大局者其文章雖凌駕 古今不過一無用書生 今朕示教育綱領 虛名是祛實用是用 曰德養五倫行實 勿紊亂俗綱 扶植風教維持 人世之秩序 增進社會之幸福 曰體養動作有常主以勤勵 勿貪惰逸勿避苦難固爾筋健爾骨享受康壯無病之樂 曰智養格物致知窮理盡性好惡是非長短 不立自他區域 祥究博通 勿營一己之私 跐圖公衆之益 曰此三者 教育之綱紀朕命政府 廣設學校 養成人材 以爾臣民學識為贊成 國家中興之大功爾臣民以忠君愛國之心性養爾德爾體爾智哉 王室安全 在爾臣民之教

育 國家富強在爾臣民之教育 爾臣民未抵善美之境 賢豈曰 賢成朕治政府豈敢曰盡其責爾臣民亦豈敢曰 盡心協力于教育之道 父以是提誘其子兄以是勸勉基弟 朋友以是行輔翼之道 奮發不已國家之敵愾 惟爾臣民國家之禦侮 惟爾臣民修述 國家政治制度 亦惟爾臣民此皆爾臣當然之職分 分以學識之等級 秦其功效之高下 此等事爲上從 有些少缺端爾臣民亦唯曰 爾等教育不明之故 其務上下同心 爾臣民之心亦朕心勵哉 允若茲朕揚 祖宗之德光于 四表 爾臣民亦惟爾祖先之肖¹⁾

〈풀 이〉

내가 생각컨대 祖宗께서 業을 시작하시고 통을 이으신지 이제 504년이 지났다. 실로 우리 列朝의 教化와 德澤이 인심에 젓은 것이오. 우리 臣民이 능히 그 충애를 다한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량없이 큰 이 歷史를 이어나가고자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직 祖宗의 유언을 반들려는 것이니, 그대들 臣民은 나의 마음을 본받을지이어다. 그대들 신민의 祖先은 곧 우리 조종이 보육한 어진 臣民이었고 그대들 臣民은 또한 그대들 조선의 충애를 잘 이었으니 곧 내가 보육하는 어진 신민이다. 나와 그대들 신민의 힘을 같이 하여 조종의 큰 터를 지켜 억만년 평안함을 마저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아! 내가 教育에 힘쓰지 아니하면 나라는 鞏固하기가 심히 어렵도다. 世界의 形勢를 두루 살펴보건데 富強하고 獨立하여 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그 인민의 지식이 開明하였다. 이 지식의 개명은 교육의 善美로 된 것이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내가 君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맡노라. 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제 소용을 먼저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나 습자로 옛 사람의 찌꺼기나 좁고 시세의 대국에 어둔자는 비록 그 문장이 고금을 凌駕할지라도 쓸데없는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교육의 纲領을 보이므로써 헛이름은 물리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여라.

1) 文獻備考 권지 209. 학교고 8. p6.

(첫째는) 德養이니 五倫의 행실을 닦아 俗綱을 문란하게 하지 말고 풍교를 세워 세상의 秩序를 유지하며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지어다. (둘째는) 體養이니 動作을 떳떳이 하여, 부지런히 힘쓰기를 주로 하며 계으름과 평안함을 탐내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며 그대들의 근육을 굳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하여 건장하고 병 없는 낙을 누려 받을지어다.

(셋째는) 智養이니 事物의 이치를 끝가지 추궁함으로써 지를 닦고 타고난 재능껏 窮理하여서 좋고 미운 것과, 옳고 그른 것과, 길고 짧은 데서, 나와 남의 구역을 세우지 말고, 자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하기를 힘쓸지어다. 그리고 한 몸의 私를 피하지 말고 공중의 이익을 도모할지어다. 가로되 이 세가지는 교육의 綱紀이니라. 내 政府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人材를 양성하여 너희들 臣民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大功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너희들 시민은 忠君하고 爲國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덕과 몸과 智를 기를 지어다. 王室의 안전이 臣民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또한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너희들 臣民이 선미한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찌 내가 다스림을 이루었다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있고 또한 너희들 臣民이 어찌 教育의 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다 하리오. 아비는 이것으로써 그 아들을 끌어내고, 형은 이것으로써 아우를 勸勉하며, 벗은 이것으로써 도움의 길을 행하고 분발하여 마지 않을 지어다. 나라의 憤恨을 대적할 사람이 오직 그대들 臣民이요, 국가의 侮辱을 막을 이 오직 그대들 臣民이니 이것이 다 그대들 신민의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學識의 等級으로 그 功效의 고하를 아뢰되 그러한 일로 상을 쫓다가 사소한 欠端이 있더라도 그대들 臣民은 또한 이것이 오직 그대들의 教育이 밝지 못한 탓이라고 말할지어다. 上下는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라 그대들 신민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니 힘쓸지어다. 진실로 이와 같을진대 나는 조종의 덕광을 사방에 날릴 것이요, 그대들 신민 또한 너희들 先祖의 어진 자식과 착한 孫子가 될 것이니 힘쓸지어다.」

이와같이 「教育立國詔書」는 종래 儒學中心의 구교육체제에서 새로운 근대적 교육체제를 세우는 동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教育 없이 國家가 될 수 없고, 고인

의 찌꺼기만 쳓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교육의 실제로 덕양·체양·지양의 教育綱紀를 지적하고 교육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高宗의 教育立國의 정신에 따라 政府는 1895년 4월 16일 먼저 教師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漢城師範學校官制를 公布하고, 이어 동년 7월 19일에는 小學校令 制定 公布하였다.

小學校令

小學校令의 要綱은 다음과 같다.²⁾

(1) 小學校의 目的

小學校는 아동 신체의 發達에 鑑하여 國民學校의 基礎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普通 知識 및 기능을 줄을 本旨로 한다. (제 1 조)

(2) 小學校의 種類

小學校는 官立 公立 私立의 三種으로 하고, 관립은 國庫, 公立은 府 혹은 郡, 私立은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3) 編制와 修業年限

소학교를 나누어 尋常과 高等 두 科로 하고 수업 연한은 심상과 3개년, 고등과 2개년 또는 3개년으로 한다. (제6조와 제7조)

(4) 教科目

심상과의 교과목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述 및 體操로 하되, 時宜에 따라 學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체조를 제하고 韓國地理, 歷史, 圖畫, 外國語一科 혹은 數科를 가할 수 있다.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더 할 수 있다.

고등과의 교과목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韓國地理, 韓國歷史, 外國地理, 理科, 圖畫 및 體操로 하되,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더 할 수 있다. 時宜에 따라 學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外國語 일과를 가하고 外國地理, 外國歷史, 圖畫 중 일과 혹은 數科目을 제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2) 趙成俊, 李朝教育制度의 概觀(教權 1969. 1)pp. 251-2

(5) 教科用圖書

소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學部에서 편집한 것 혹은 학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써야 한다. (제15조)

(6) 學齡 및 就學

만 8세로부터 만 15세까지의 8개년을 學齡으로 하고, 각 府郡은 그 관내의 학령 아동을 就學시킬 公立小學校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와 17조)

(7) 教員의 資格과 任免

小學校 교원은 교원 免許狀을 가져야 한다. 면허장은 檢定에 합격함을 요한다. 관립소학교 교원은 학부대신, 公立學校 교원은 각기 해당 觀察使가 임용하고, 어느 경우나 판임관으로 한다. (제20조~제24조)

(8) 施行 期日

本令은 開國 504년 8월 1일로부터 지방 사정을 감안하여 점차 시행한다.
(附則 27조)

(9) 經 費

官立小學校는 물론 그 경비를 國庫가 지변하나, 公立小學校 경비도 당분간 국고가 지변한다. (附則 28조)

이러한 小學校令에 의하여 개설된 학교는 전래의 교육과는 달리 새 교육법 질서와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니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近代學制 確立과 民主教育 理念을 들 수 있다. 즉 小學校에서 大學校로 향하는 학제의 改編과 연령에 의한 進學의 規制, 신분의 규제를 벗어난 교육의 機會均等과, 小學校 교육의 義務化 등은 새로운 근대적 교육이념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國民教育의 권장과 민족주의 교육의 定立을 들 수 있다. 高宗은 교육조서 등을 통하여 教育의 중요성과 그것이 國家發展에 미치는 필요성과 국민교육의 이념을 강조하였고, 각급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전래교육에는 배제되어 왔었던 國史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愛國과 民族精神을 고무하였다.

다.³⁾

이와같은 1895년 小學校令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10個校와 地方에 50여교로 늘어 났던 것이다.⁴⁾

이 가운데 華城郡에서는 1898년 (光武 2年) 10월 1일에 당시 水原郡 음덕면 남양리에 있던 元 南陽都護府 집사청을 차입하여 「南陽公立小學校」를 開設하였으니 고종의 教育立國詔書 이후 신학제에 의한 본군 교육기관의 효시라 할 것이다. 現 南陽國民學校 前身이다. 教員은 박제현 1인이고, 아동수는 35명이었으며, 教科書는 孝經, 小科, 千字文, 通鑑이었다.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侵略主義는 教育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중흥을 圖謀하려는 교육운동에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한마디로 日本帝國의 침략주의는 韓民族에 대한 愚民化政策으로 그들의 走狗를 삼으려는데 있었으니, 1894년 甲午更張期의 開化思想과 1895년 教育立國詔書의 새 氣運이 채 싹도 트기 전에 日帝侵略의 桀桔下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교육만이 기울어져가는 國權을 回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全國 각처에서 教育運動이 힘차게 일어났다.

敎育機關에서는 私立學校가 중심이 되었고, 團體로는 西北學會, 畿湖學會 등이 組織되어 西北學報, 畿湖學報 등을 發行함으로써 민족의 覺醒과 國權回復을 위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2. 变질되는 학제(통감부의 교육정책)

露日戰爭의 승리로 1905년 11월에 일본은 乙巳條約으로 한국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때부터 教育植民地化作業은 추진되었다. 즉 1906년 2월 1일부터 統監府의 業務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대의 教育政策上의 基本方

3) 李元浩 教育史, 培英社, 1983. p291

4)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京城 : 帝國地方行政學會, 1927. P.106

5) 資料提供 : 南陽國民學校

針은 1906년 공포된 教育令 개정에 잘 나타나고 있으니, 종래의 학제에 대하여
一大修正을 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법령을 制定·公布하였다.

이 가운데 勅令 44호로 1906년 (光武 10년) 8월 27일 公布된 「普通學校令」
에, 의하여 變質된 初等教育의 학제개편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小學校를
普通學校로 改稱하고, 심상·고등의 2과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修業年限
을 종래의 5-6년을 4년으로 단축시켰다.

學年은 3학기로, 1년 修業日數는 20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教科目은 종전
과 비슷하였으나 日本語가 全學年에 걸쳐 每週 6時間 부과되었으니 그 취지를
統監府 學部次官 「다와라」(俵 孫一)는 「日本語는 護身의 利器이며 財產의 安固、
權利의 保全을 기할 수 있는 要具」라고까지 宣言하고 있으나 실은 한국교육을 식
민지 교육으로 再編하기 위한 일제의 시도로서 한국인에 대한 철저한 文盲政策
으로 愚民化시키고, 나아가 同化의 手段으로서의 日本語 教育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華城의 남양공립소학교는 이 「普通學校令」에 의하여 1906년 (光武
10년) 公立南陽普通學校로 改稱되기에 이르렀다.⁶⁾ 中等教育에 있어서도 改正된
學制에 의하면 종래의 中學校가 고등학교로 改名되었다. 이것은 中學校가 中等
education機關으로 高等教育(大學教育)의 전단계임을 뜻함으로 고등학교제는 그 이름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最終學校를 의미한다. 즉 統監府는 대학설치의 필요성을
排除하고 고등학교(사실상 중학교)를 한국인의 最終 education機關으로 하고자 한 것
이었다.⁷⁾

이와같은 일제의 愚民化政策은 3.1운동으로 그들의 植民地 政策을 修正할 때
까지 繼續되었으나, 우리 화성군에는 철저한 文盲政策으로 8.15祖國 光復때까
지 中學校의 開設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納述을 略하기로 한다. 다만 實業
學校令(1909년 4월 27일 勅令 第56號)에 의하여 實業學校의 종류를 農業學校,
商業學校, 工業學校 및 實業補習學校로 나누고,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되 地方
事情에 따라 1개년 이내를 단축시키거나, 2개년 이내의 补習科를 둘 수 있게 되

6) 資料提供 : 南陽國民學校

7) 高橋濱吉, 전계서, p.227

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1909년 7월 9일 實業學校令施行規則이 이 學部令 제1호로 공포되었는데 實業補習學校는 수업년한을 2개년 이내로 하고 地方事情에 따라 수업에 편리한 계절 또는 시간을 이용하여 教育할 수 있도록 하였다.

教科用 圖書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實業學校令에 의하여 設立된 화성군의 烏山公立農業實修學校에 대하여는 뒤의 第2의 5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같이 1905년을 전후하여 1910년에 이르기까지는 日帝의 한국併合準備期였으나, 韓國으로서는 일대 啓蒙期였으며 民族의 覺醒과 國權回復을 위한 교육구국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3. 武斷政治期의 植民地 教育政策

1910년 8월 29일은 27대 519년간의 朝鮮王朝가 韓日合邦으로 日帝에 의해 한민족의 主權이 완전히 박탈 당하고 민족의 굴욕과 고난이 시작된 날이다.

일본은 植民地 統治를 시작한 후 1911년 時勢와 民度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면서 有用한 知識과 온건한 德性을 함양하여 帝國臣民이 될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한다고 하면서 植民地 教育方針과 제도를 규정한 「朝鮮教育令」을 1911년 8월 23일 公布하였다. 全 2章 30條 附則으로 이루어진 이 朝鮮教育令은 日帝 武斷統治 10년간의 植民地 教育의 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에 그 全文을 옮기면

(第一 次) 朝鮮教育令

(1911. 8. 23)

勅令 第 229 號

第一 章 綱 領

第 1 條 朝鮮에서의 朝鮮人의 교육은 본령에 依한다.

第 2 條 教育은 교육에 관한 勅語의 취지에 따라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本義로 한다.

第3條 교육은 時勢와 民度에 적합하게 함을 期해야 한다.

第4條 교육은 이를 大別하여 보통교육·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第5條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주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여, 國語(日語)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6條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第7條 전문교육은 고등한 學術과 技藝를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章 學 校

第8條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留意하고, 國語(日語)를 가르치며 德育을 베풀어 국민될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第9條 보통학교의 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단 地方 情況에 따라 1년을 단축 할 수 있다.

第10條 보통학교에 입학될 수 있는 자는 나이 8세 이상 자로 한다.

第11條 고등보통학교는 男子에게 고등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常識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有用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第12條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第13條 고등보통학교에 入學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한다.

第14條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師範科, 또는 教員速成科를 두어 보통학교의 教員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師範科의 수업연한은 1년, 教員速成科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教員速成科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한다.

- 第 15 條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高等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婦德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陶冶하며, 그 생활에 有用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 第 16 條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年으로 한다.
- 第 17 條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入學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은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第 18 條 여자 고등보통학교에는 技藝科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手藝를 전수케 할 수 있다. 기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 第 19 條 관립 여자 고등보통학교에는 師範科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第 20 條 實業學校는 농업, 상업 공업 등 實業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 第 21 條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 실업학교로 한다.
- 第 22 條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 第 23 條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第 24 條 간이 실업학교의 수업연한 및 入學 資格에 관하여는 前 2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朝鮮總督이 정한다.
- 第 25 條 전문학교는 고등한 學術과 技藝를 教授하는 곳으로 한다.
- 第 26 條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 第 27 條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한다.

第 28 條 公立 또는 私立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設置 또는 廢止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29 條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教科目 및 그 課程, 職員, 教科書, 授業料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第 30 條 本章에 列舉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附　　則

本令施日의 期間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從來의 普通學校, 高等學校 및 高等女學校는 本令에 따라 設置된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 高等普通學校로 看做한다.

從來의 農業學校, 商業學校 및 實業補習學校는 本令에 의하여 設置된 農業學校, 商業學校 및 簡易實業學校로 看做한다.

本令施行時 朝鮮總督은 現在있는 學校에 관해서 本令에 拘碍됨이 없이 必要한 事項을 定하고, 또한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朝鮮教育令施行期日(1911年 10月, 總令 第108號)

朝鮮教育令은 1911年 11月 1일부터 施行한다.

朝鮮教育令中 교육목적과 관련된 부분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⁸⁾

① 「忠良한 國民」이란, 韓國人을 그들의 天皇와 日本帝國에 절대적으로 忠誠하고, 服從하는 양순한 奴隸民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② 「時勢와 民度에 알맞는 교육」이란, 普通教育을 통하여 日本國民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알리는 것과 韓國人の 勞動力を 착취하기 위하여 低級한 實業教育을 장려하여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일 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주겠다는 愚民化教育 · 民族的 差別教育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등한 학문은 주지 않았다.

8) 鄭在哲, 日本帝國主義 侵略期의 教育(韓國教育史 : 教育出版社, 1988) pp. 278

③ 「日本語를 普及하는 교육」이란, 한국의 傳統과 文化 그리고 생활양식을 抹殺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을 우리에 강요함으로써 韓民族을 同化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民族魂을 말살할 制度의 장치를 마련한 日帝는 植民地教育의 하수인 노릇을 할 教師에게 官服을 입히고 칼을 차고 교단에서 한국인 청소년을 위압하면서 가르쳤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排日感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상감시를 게울리 하지 않았다.

前述한 바와같이 統監府時代인 1906년의 「普通學校令」에 의하여 변질된 교과과정을 운영해 오던 公立南陽普通學校는 1908년 (隆熙 2년)에 教員의 官名을 訓導라하고, 2학급을 편성하였으며 初代 校長에 남양군수 김관현이 피명되었다.⁹⁾

그후 1910년 韓日合邦으로 한국 교육의 주인공이 된 朝鮮總督은 더욱 植民地教育政策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화성군의 유일한 初等教育 機關이었던 公立南陽普通學校도 朝鮮教育令의 실시에 따라 1911년에 교명을 다시 南陽公立普通學校로 改稱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教育內容의 특징은 한마디로 韓國人을 育成하는 교육이 아니라日本人化 교육을 통하여 植民地政策遂行을 위한 順從 잘하는 하급직원과 저급노동자를 양성하는 植民地 奴隸教育을 실시하는데 있었다.

즉 교육의 궁극 목적은 한국인을 日本臣民으로 만드는 것이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日語를 普及하여 한국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초등교육과 實業教育에만 힘을 경주하여 근로의 습관을 순치시켰으며 高等한 학문의 教育을 서두르지 않는 漸進主義를 取하였다.

① 韓國語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日本語를 「國語」라 하며 授業時數를 週當 10時間으로 높이고, 韩國語는 「朝鮮語 및 漢文」 科目에 포함시켜 주당 6시간을 수업하면서도 한문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9) 資料提供 : 南陽國民學校

② 普通學校 教育課程에서 韓國歷史와 韩國地理를 除外시켰다. 이는 한국인에게 자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게 함으로써 반일사상이 싹트지 않도록 하여, 日本帝國主義의 忠良한 국민을 育成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리하여 日本侵略主義者들은 1895년 고종의 「教育立國詔書」에 의하여 설립 됐던 한성사범학교도 前述한 1911년 「朝鮮教育令」에 따라 폐교시켰다. 이는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을 일본인으로 대체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또한 전통적인 高等教育機關이었던 成均館도 동년 폐지하고「經學院」만을 존속 시켜 사회교화의 기능만을 담당케 하므로써 韩國人의 思想의 성장과 정신계의 통일을 방해하였고, 각종 外國語學校도 폐지시킴으로써 韩國人의 世界로 향할 수 있는 안목과 진출을 막았다.

이와같이 일제는 植民地教育政策에 맞지 않고, 따르지 않는 教育機關은 총검으로 탄압하므로써 植民地教育體制를 굳혀가려 했다.

이러한 時代의 상황하에 당시 水原郡 성호면 오산리에 소재하였던 「私立新明學校」를 폐쇄하는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군수를 設立者로 제1차 朝鮮教育令(1911년)에 의하여 1913년 4월 1일 생도수 76명으로 개교를 본 것이 「烏山公立普通學校」로서 현 성호국민학교 전신이다.¹⁰⁾

私立新明學校 때의 직원으로는 校長에 이명삼과 教員으로 大月力松, 柳鐸의 2인과 기타 名譽職으로 조직되었다.

生徒數 일정치 않아 많을 때는 6-70명, 작을 때는 30명도 미달되었다.

이때 벌써 日人 교원을 채용치 않을 수 없었던 사립신명학교로서는 力不足이었을 것이다.

大月 교원은 道費補助로 月俸 35円을 支給받았으며, 기타는 기부명목으로 千円余의 利子와 牛市場 收入金으로 충당하였다. 특히 당시는 一郡一校에 한하였으므로 기타의 私立 教育機關은 순회교원에 의하여 지도(監督·團束)을 받았다.

巡迴教員의 담임은 水原公立普通學校(현 신풍국민학교) 訓導인 宮下政興으로

10) 城湖國民學校, 學校沿革史

서 이 사람이 공립보통학교 개설을 역설하였으며, 郡當局도 협력하여 사립신명학교를 公立化하여 일제 植民地教育機關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오산공립보통학교 開校와 동시에 校長 이명삼은 해임되고 대월력송, 柳鐸의 두 교원은 유임되었다. 그리하여 漣川公立普通學校 訓導 兼 校長인 棟形源十郎이 4월 29일 附로 初代校長으로 轉任되었다. 私立新明學校로부터 讓受한 주된 物品은 草家校舍 2동 34평, 부지 5반보, 교탁 3, 흑판 4, 책상 50조, 난로 3, 등사판 1, 괘종시계 1, 의자 5, 사무용상자 등으로써 모두 사립학교시대 도에서 補助받은 것이다.

이리하여 植民地教育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니 開校 직후인 8월 7일부터 11일간을 台村에서, 8월 19일부터 12일간은 동북면에서 國語(日語) 講習會를 열었으며, 9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오산청년 국어야학회를 열어 日本化教育에 힘썼다. 이로써 화성군의 한국인을 위한 學校教育機關은 남양공립보통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개교한 公立學校가 되었다.

한편 日帝의 가증스러운 植民地教育政策은 당시 抗日氣運이 濃厚했던 私立學校를 본격적으로 탄압한 사실이다.

統監府時代인 1908년의 「私立學校令」에 이어 合邦 후 1911년에는 「私立學校規則」을 公布하여 私立學校에 대한 監督과 탄압을 일층 강화하였으니 그 要旨로는 아래와 같다.

- ① 모든 사립학교는 정부의 設置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② 私立學校의 設立者, 교장 등 교원은 당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③ 教科用 圖書는 당국에서 編纂한 것이거나,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④ 教員은 資格證을 가진 者라야 하며, 日語에 能通하여야 한다라고 强行的인 規則條項을 두었다.

1915년 3월에는 다시 「改正 私立學校規則」을 제정하여 모든 私立學校는 政治나 宗教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종교교육 禁止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1918년에는 「書堂規則」을 발포하여 모든 私學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표방한 私學들의 反撥은 대단하여 「개정교육령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개정 私立學校規則은 再改正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하간 私學과 朝鮮總督府 間의 對立·反撃·抵抗은 改正 사립학교규칙을 계기로 그 극에 달하여 그 결과 私學을 중심으로 「3.1운동」을 선도하는 前衛가 되게 하드니, 마침내는 사학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일제의 植民地 教育政策에 제동을 걸게 하였다. 이러한 「3.1운동」으로 朝鮮總督府는 종래의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文化政治」를 표방하게끔 후퇴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어 교육상의諸문제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洪元植 烈士의 3.1 獨立運動

日帝의 무단통치에 抗爭하는 義兵活動과 보조를 맞춰 教員들도 일제의 사학彈壓政策에 굴하지 않고 民族抗爭에 앞장 섰으니 화성군에서는 洪元植烈士를 들 수 있다.¹¹⁾

洪烈士는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출생으로 大韓帝國 軍隊 侍衛 제1연대 제1대대 軍人으로 服務中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여 日兵과 싸우다가, 故鄉인 제암리에 돌아와 無許可 學院을 설립하고 후배들에게 신학문 普及과 반일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암리 기독교 責任者 안종후와 고주리 天道教 責任者 김성렬과 같이 모의하여 救國同志會를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을 눈치챈 일현병이 이들을 체포하려하자 洪烈士 동지일동이 합세하여 日憲兵 2명을 죽이고, 서울로 피신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제암리에 다시 돌아와 獨立運動을 동지들과 모의하고 서울에서 가지고 온 獨立宣言文과 檄文 등을 天道教·基督教信者와 愛國 청년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3월 25, 26, 27일 3일간 계속하여 山上에서 봉화를 올리고, 示威運動을 전개하여 獨立萬歲를 불렀다. 4월 5일에는 발안장날을 이용

11) 대한민국 독립운동연구소,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 pp.1046-48을 인용한 「경기교육사」(1883~1959), pp.266-7

하여 군중을 指揮하여 示威를 하는 한편 발안주재소(지서)를 습격하여 일경과 싸우다가 洪烈士外 5명이 逮捕되어 水原警察署로 연행된 다음 갖은 악형과 고문을 당한 끝에 사경에 이르자 가족들에 引繼되어 돌아왔다.

同年 4월 15일 오후 2시경 日軍 중위가 인솔하는 1개 소대 병력 30명에 의하여 天人共怒할 제암리교회 대학살사건이 일어나 洪烈士 등 많은 애국청년이 殉國하였다. 그후 1945년 祖國이 光復되자 제암리 路邊과 옛 교실 자리에 각각 29위의 3.1운동 殉國記念碑를 세웠다.

5. 欺瞞的 文化主義의 植民地 教育期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日皇은 소위 詔書라는 것을 통해 韓民族을 懷柔하는 「一視同仁」이란 아이디어를 내세워 한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待遇를 해 줄듯이 속이는 한편, 영국식 植民主義의 模型을 따라서 한국에서도 인도나 아일랜드형의 自治를 실시할 것 같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진 자치주의자들을 점차로 親日派로 만들어 갔다. 그 결과 民族獨立運動은 비타협과 타협의 양파로 分裂되고 타협파인 自治主義者들은 日帝 植民政策에 말려들어 1920년대 말에 이르러 民族勢力의 분열이 조장되었다.

또한 관공립보통학교 교원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던 종래의 복제를 없애고, 도평의회를 만드는 등 懷柔策을 썼다.

이와같이 欺瞞性이 풍부한 高等植民地政策은 教育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교육 제도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즉 1911년 朝鮮教育令에 의하여 「時勢와 民度에 알맞는 教育」을 한다는 구실 아래 愚民化教育을 하던 종래의 저급한 學校體系를 일본과 비슷한 제도로 개정하고, 1920년 3월에는 私立學校 規則을 개정하여 교과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教員資格도 緩和하였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私立學校에 대한 종래의 탄압도 다소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의 격화된 反日感情을 무마하려는데 불과하고 그 기저에 깔린 植民地 教育政策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1922년 朝鮮總督 「사이또」(齊藤 實)는 “내선공통의 정신에 따라 동

일한 제도하에 시설의 완비를 기한다”는 名目으로 朝鮮教育令을 改正하였다.

전문 26조, 附則으로 된 「제2차 朝鮮教育令」은 다음과 같다.

(第二次) 朝鮮教育令

(1922. 2. 4)

勅令 第 19 號

제 1 조 朝鮮에서의 교육은 本令에 의한다.

제 2 조 國語(日本語)를 常用하는 者의 보통교육은 小學校令 · 中學校令 · 高等學校令에 의한다. 但, 이들 諸令中 文部大臣은 職務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前項의 경우 朝鮮特殊의 사정에 따라 特例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국어(日語)를 常用하지 않는 者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普通學校 ·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 高等普通學校로 한다.

제 4 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身體發達에 유의하여 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知識 기능을 교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涵養시키며, 국어(日語)를 習得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狀況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者는 연령 6年 이상인 者로 한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는 수업연한 2年의 高等科를 둘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보통학교에 補修科를 둘 수 있다.

補修科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 고등보통학교는 男學生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며 그들에게 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有用한 보통의 지식 · 기능을 교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며 국어(日語)를 熟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고등보통학교의 修業年限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補修科를 들 수 있다.

補修科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女生徒의 신체의 발달 및 婦德의 함양에 유의하여 그들에게 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맞는 有用한 보통의 知識·技能을 교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며 국어(日語)를 熟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地域의 狀況에 따라 3년으로 할 수도 있다.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者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수업연한 3년의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 高等科를 졸업한 者 또는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補修科를 들 수 있다. 補修科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尋常小學校 졸업자, 普通學校 高等科의 제 1학년 수료자 및 졸업자는 各高等小學校 제 1학년 수료자 및 수업연한 2년의 高等小學校의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中學校 졸업자, 여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相當 修業年限의 고등여학교의 졸업자로 看做한다.

제 11 조 실업교육은 實業學校令에 의한다. 단, 同令中 文部大臣의 職務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실업학교의 設立 및 教科書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전문교육은 專門學校令에, 大學教育 및 그豫備教育은 大學令에 의한다. 단, 이에 관한 文部大臣의 職務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 및 大學豫科의 교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사범교육을 하는 학교는 師範學校라 칭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德性의 함양에 힘써 小學校 教員이 될 者 및 普通學校 教員이 될 者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사범학교에 第 1 部와 第 2 部를 설치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第 1 部 또는 第 2 部만을 설치할 수 있다. 第 1 部에서는 小學校 教員이 될 者를, 第 2 部에서는 普通學校 教員이 될 者를 교육한다.

제 15 조 사범학교의 修業年限은 6년으로 하고 普通科 5년, 演習科 1년으로 한다. 단, 女子의 경우는 修業年限을 5년으로 하고 普通科에서는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6 조 사범학교 普通科에 입학할 수 있는 者는 尋常小學校를 졸업한 者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하고, 演習科에 입학할 수 있는 者는 普通科를 수료한 자, 中學校 또는 修業年限 4년의 高等女子學校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제 17 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特科를 설치하고, 또한 特科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特科의 경우 이를準用한다.

제 18 조 特科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特科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의 高等小學校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제 19 조 사범학교에 研究科 또는 講習科를 둘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

말하였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편지 두통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여러 도적이 三寶(佛·法·僧)를 파괴하니 이에 일이 멸망하게 되리라」라는 말이 씌여 있었다. 그러나 승상(丞相 : 여기서는 千熙)이 海外에서 왔으니 죽인다 한들 무슨 有益함이 있으리요. 내 우리의 법을 삼가할 뿐이라 하고는 蒙山의 의발과 물건을 거두어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恭愍王 15년(1366) 봄에 聖安寺에서 萬峰께 참배하고 3일을 문밖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峰이 이르기를 ‘고려 노화상(千熙)이 어찌하여 문밖을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대사(천희)는 ‘들어간 때가 없거니 어찌 나옴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峰이 또 이르기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누가 좋은 눈이 있어서 내 병을 보아주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대사가 주먹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니 이 날밤 삼경에 萬峰이 가사와 禪棒을 그에게 주었다.

鳴江에 도착하여 스님이 머물러 계실 것을 간청하였으나 대사는 굳이 사양하였다. 이때 만봉당의 문인들이 그 스승의 옷과 禪棒를 뺏으려고 이날 밤 鳴江까지 추적하여 왔으나 僧房에 미치지 못하고 돌아가니. 승려의 성은 馬씨였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대사가 鳴江을 건너 간 것이 분명하다.

아! 돌아가신 蒙山이 앞서 꿈에 나타나시고, 萬峰이후에 戒를 주시니 미래에 그에게 미묘한 법을 유촉(죽은 뒤의 일을 生時에 부탁함)하실 것은 분명한 일이다. 스승과 제자간에 전하는 도는 예나 지금이나, 멀고 가까움에 관계가 없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恭愍王이 대사의 노고를 위로하시니 국내 사람들이 다투어 그에게 예를 올리려 하였다. 대사는 雉嶽山에 은거하며, 동해를 유람하다가 洛山에 이르러 관음보살의 서광을 내도록 하였다.

제 29 조 本令施行時에 조선에 現在하는 小學校 · 中學校 · 高等女子學校 · 普通學校 · 高等普通學校 · 女子高等普通學校 · 實業專修學校 · 簡易實業專修學校 · 實業學校 · 官立專門學校 및 師範學校는 각각 本令에 따라 설립된 小學校 · 中學校 · 高等女學校 · 普通學校 · 高等普通學校 · 女子高等普通學校 · 實業學校 · 專門學校 및 師範學校로 看做한다. 前項의 高等普通學校 · 女子高等普通學校로 看做한다. 前項의 高等普通學校 · 女子高等普通學校 · 實業學校 및 專門學校에 在學하는 자에 대해서는 在學중 舊令의 적용을 받는다.

제 30 조 本令施行時에 朝鮮에 現存하는 高等普通學校는 本令施行後 2년에 한하여 舊令에 따라 補修科를 存置시킬 수 있다.

제 31 조 本令施行時에 朝鮮에 現存하는 官立의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는 本令施行後, 고등보통학교에서는 4년, 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3년에 한하여 舊令에 의한 師範科를 存置시킬 수 있다.

제 32 조 本令施行時에 朝鮮에 現存하는 私立의 專門學校는 당분간 舊令에 의해서 存續할 수 있다.

朝鮮教育令施行期日 (1922年 2月 總令 第 5 號)

위에서 본 「第 2 次 朝鮮教育令」의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면,

① 學校의 종류와 수업연한을 일본과 동일하게 한 것처럼 되어 있다. 普通學校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延長한 것 등이다.

그러나 韓國內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教育과 韓國人の 教育制度를 따로 마련하여 사실상 差別教育을 실시하면서도 前者를 國語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고, 후자를 國語를 常用하지 않는 자를 위한 制度라고 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을 差別하지 않는 「一視同仁」의 높은 理念의 發露라고 하는 高等術策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② 教育課程 시간배당은 1차 조선교육령 당시에 비하여 한국어의 시간을 줄이고 日語의 시간을 대폭 늘렸다.

특히 보통학교에 國史와 地理科目을 新設하여 日本歷史와 日本地理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職業教科를 신설하여, 低級한 實業教育을 실시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전통과 민족사상을 말살하여, 總督統治에 잘 순종하는 植民地 奴隸育成을 위한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③ 한국사와 한국지리에 대한 수업은 종전과 같이 금지하면서도, 새로 大學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학생도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1920년 이후 「朝鮮民立大學」의 設立운동이 舉族的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자, 일제는 온갖 妨害工作으로 이를 저지하려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안되자, 立民大學에 代替할 수 있는 植民地大學을 설립함으로써 抗日的인 教育運動을 무마하려는 일제의 기만적인 高等植民地政策인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중 특기할 것은 보통학교의 擴張과 職業教育의 強化 등이다.

1) 普通學校의 擴張

「사이또」(齊藤) 總督 (1919년 8월부임)은 일본화 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은 初等教育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통학교의 3면 1교 設置計劃과 官立 高等普通學校는 1도 1교의 정책을 편으며, 「야마나시」(山梨半造)總督 (1927년 12월 부임)은 普通學校 1면 1교 설치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대폭적인 보통학교 증설을 보았다. 이러한 보통학교 增設計劃은 그 후에 「우가끼」(宇垣一成) 總督 (1931년 6월 부임)때에 와서도 계승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量的으로 급속한 初等學校의 張창을 가져왔으니 화성군에서 이 시기에 설립된 普通學校를 보면 다음과 같은 15개교에 이르고 있다. (화성군 보통학교 일람표 참조)

日帝는 普通學校의 增設을 文化政治의 實現이라고 하지만, 실은 학교를 통하여 일본어를 보급시켜 일본인화 즉 同化教育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1차 世界大戰 이후 植民地產業의 需要와 확장에 따라 직업에 대한 관념을 깊게 하여 저급노동자와 일어를 아는 피사용인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手段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華城郡 普通學校 一覽表¹²⁾

1935. 5. 31 現在

학교명	소재지	창립		수업		직원			아동			경비			학교장명
		년월일	년한	학급	일인	한인	계	남	녀	계	경상비	임시비	계		
송산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송산면 사장리	1920년 11월 16일	4	4	1	4	5	216	59	275	5,690	3,305	8,995	미도무평	
팔탄공립보통학교	수원군 팔탄면 구장리	1922년 4월 4일	6	6	2	5	7	366	44	410	8,377	166	8,543	부분이지길	
태장공립보통학교	수원군 태장면 장리	1922년 4월 28일	4	4	-	4	4	197	49	246	5,201	-	5,201	박성근	
반월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반월면 전건리	1923년 5월 30일	4	4	1	3	4	218	48	266	4,575	30	4,605	석분사삼	
삼괴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장안면 어은리	1923년 6월 1일	4	4	1	3	4	228	39	267	4,674	-	4,674	대암근촌덕	
동탄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동탄면 오산리	1923년 10월 5일	4	4	1	3	4	211	50	261	4,910	40	4,950	서가창준	
향남공립보통학교	수원군 향남면 백사리	1926년 8월 23일	4	4	1	3	4	253	47	300	5,037	340	5,377	이등시삼랑	
정남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정남면 발산리	1930년 1월 21일	4	2	1	1	2	122	24	146	3,207	25	3,232	강전우길	
비봉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비봉면 삼화리	1931년 4월 1일	4	2	1	1	2	126	19	145	3,333	160	3,493	유동일성	
양감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양감면 신왕리	1931년 11월 25일	4	2	1	1	2	128	27	155	3,082	80	3,162	무정남	
서신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서신면 매화리	1932년 12월 1일	4	2	1	1	2	128	28	156	3,063	32	3,095	백생뢰일	
봉담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봉담면 상리	1933년 5월 15일	4	2	1	1	2	133	24	157	3,064	30	3,094	와전정	
매송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매송면 원평리	1933년 11월 1일	4	2	1	1	2	114	28	142	3,042	37	3,079	천촌계치	
마도공립보통학교	수원군 마도면 석교리	1935년 4월 1일	4	2	1	1	2	74	14	88	2,955	-	2,955	횡침천향	
우정공립보통학교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1936년 11월 1일	4	3	1	2	3	181	68	249	3,865	-	3,865	삼천이팔	

12) 京畿道, 京畿道 도세개요 : 1936, pp. 237-8

2) 職業教育의 強化

世界的 經濟恐慌(1929-1932)의 여파로 政治 · 經濟的으로 궁지에 몰린 일
제는 그 타개책으로 大陸侵略을 피하여, 急速한 군수산업의 擴張은 자연히 農業
공황을 초래하여 따라서 韓國農村經濟도 피폐하여 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日本植民主義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그 經濟力を 증강시
키고 일본의 식량 보급지가 되게 할 필요로 교육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教育 즉 生活', '生活 즉 勤勞'라는 勤勞主義 教育方針과 아울러 農
村振興運動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교육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 職業科 교육이 強化되고, 적은
財政的 負擔으로 初等教育를 실시할 수 있는 간이학교와 實業補習學校 제도가
설치되었으며, 둘째 農村振興運動을 위한 社會教育으로 보통학교 卒業生 指導,
青少年訓練所, 農村青年團의 창설을 들 수 있다.

ㄱ. 簡易學校와 實業補習學校

1934년 1월 12일 學秘 제2호로 「簡易初等 教育機關 설치에 관한 件」이 政
務總監 通牒으로 시달되어 同年 4월 1일 農村 簡易學校 制度가 實施되었다.

이에 의하면 簡易學校는 書堂을 吸收 · 改善하여 普通學校의 補助機關으로서
벽촌까지 日本語를 보급시켜 일본정신을 고취하는 동시에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깊게 하는데 있었다.

簡易學校의 公式 명칭은 ○○공립보통학교 부설○○간이학교라 하였다.

「우자끼」總督에 의하여 추진된 簡易學校는 2년제의 단기학교로써 1교 1인
교원으로 學校 소재지에 거주하여 職業教育에 주력함을 強調함과 동시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일본화 교육의促進을 圖謀하였던 기관이 있다.

즉 字坦 총독의 農 · 山 · 漁村의 振興運動은 조선이라는 고기를 살찌게 해서
더 실속있게 착취하기 위한 術策이었으니, 이런 점에서 그는 農村振興運動이란
美名下에 植民地 同化教育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한 인물이었다.

이리하여 당시 현 화성군 관내에 개설되었던 簡易學校는 5개교에 이르렀으

니 아래와 같다.

華城郡簡易學校一覽表¹³⁾

1941. 5. 31 現在

학 교 명	소재지	창립 년 월	현교명	교 원		아동			경비 (円)
				조선인	계	남	녀	계	
삼괴공립보통학교 부설하수간이학교	수원군우정면 화수리	1934년 4월 20일	화수국교	1	1	59	29	88	989
향남공립보통학교 부설 발안간이학교	수원군향남면 발안리	1935년 5월 1일	발안국교	1	1	54	26	80	1,004
매송공립보통학교 부설 송라간이학교	수원군매송면 송라리	1936년 4월 1일	송라국교	1	1	51	29	80	1,064
삼괴공립보통학교 부설장안간이학교	수원군장안면 장안리	1936년 4월 1일	장명국교	1	1	39	36	75	1,074
남양공립보통학교 부설수화간이학교	수원군음덕면 수화리	1938년 6월 7일	창문국교	1	1	48	32	80	914

前述(제2의 2)한 바와같이 統監府時代인 1909년 공포된 實業學校令에 의하여 창설된 實業補習學校는 府·郡學校費로써 경영되었으며, 공립보통학교 또는 公立小學校에 부설되고 職員 紿與는 도에서 補助하였다.

1922년 제2차 朝鮮教育令의 공포와 함께 入學資格을 일정하게 하고 수업년한을 2개년으로 하여 實業教育의 보급과 철저를 圖謀하여 웠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주의에 입각한 農村振興策으로 농업보습학교의 증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1935년 2월 19일 부령 제12호로 새로이 實業補習學校 规定이 공포되어 기설 농잠실수학교의 조직 개선을 단행하여 교명을 농업실수학교로 고치고 입학자격은 체력이 충실히 자에 한하며, 종래 2년이던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학중 전교생을 寄宿舍에 收容하여 자작자급의 방침아래 營農法을 체험시켜 職

13) 京畿道, 教育と宗教要覽 : 1941, pp. 38-39

業의 訓練과 일본인화 교육의 도장이 되게 교육내용을 강화하였다.

화성군에서는 1915년 8월 1일 성호면 오산리에 수업년한 2년의 「烏山公立農業實修學校」가 오산공립보통학교에 附設되어¹⁴⁾ 오산공립보통학교장이 겸임하였으나, 1928년 實業補習學校 規定이 개정되어 校名을 「烏山公立農蠶實修學校」로 改稱하였다. 그후 수업년한이 1년으로 短縮되면서 수원군 태장면 병점리로 校舍를 옮겨 「水原公立農業實修學校」라 改稱¹⁵⁾ 하게 되었다.

ㄴ. 普通學校卒業生指導, 青年訓練所, 農村青年團

實務教育을 강화하기 위하여 社會教育의 一環으로 실시한 普通學校에서의 卒業生指導는 일종의 계속학교 성격을 띠었으니 同化教育을 위한 진로지도·추수지도라 할 것이다.

보통학교 卒業生에 대하여 적절한 指導를 하기 위하여 1927년에 시작된 이 제도를 農村更生運動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제는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나아갔다. 즉 일정한 學校를 특별히 지정하여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혹은 도비로써 지도에 요하는 經費의 補助를 하여 銳意 이의 조성에 노력하여 「근로애호·농업치산」이라는 農道의 精神을 전작시켜 植民地政策을 심화하여 나아갔다. 그리하여 每年 지정학교를 증가하여 확충·보급에 주력하였으니 당시 화성군의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道指定指導學校¹⁶⁾

1927년 指定, 松山公立普通學校, 華城郡松山面, 修業年限 4年

1930년 指定, 八灘公立普通學校, 華城郡八灘面, 修業年限 6年

1932년 指定, 南陽公立普通學校, 華城郡南陽面, 修業年限 6年

1935년 指定, 鄉南公立普通學校, 華城郡鄉南面, 修業年限 4年

그 후 城湖(오산공립보통학교개칭) 國民學校와 半月國民學校가 追加로 指定

14) 京畿道, 京畿道道勢概要 : 1936, pp. 279 (그러나 성호국민학교, 학교연혁사에는 교명이 「오산공립간이농업학교」로 되어 있음)

15) 京畿道, 教育と宗教要覽 : 1941, p50.

16) 京畿道, 京畿道道勢概要, 1936, pp. 299-302

되어 1941년 5월 31일 현재 指導學校數는 6개교로 늘어났다.

그리고 1929년 10월 總督府令 제89호로 青年訓練所規程이 公布되어 청년의 심신을 鍛鍊하고 건전한 國民, 선량한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美名下에 철두철미한 日本人化 교육을 위하여 設立되었으니, 그 훈련과목은 수신공민과, 教鍊, 普通學科(國語, 數學, 地理, 歷史, 理科) 및 직업과로서 각과목 일년을 통하여 200시간 이상으로하고,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훈련하였다.

學科는 初等學校 교원이 지도하고 教鍊은 재향군인중에서 이를 위촉하였다.

1941년 4월 30일 현재 華城郡의 각 청년훈련소 개황은 다음과 같다¹⁷⁾

烏山公立青年訓練所, 城湖面所在, 1940, 7 創立, 指導員 5, 生徒 32

南陽公立青年訓練所, 南陽面所在, 1940, 7 創立, 指導員 4, 生徒 25

八灘公立青年訓練所, 八灘面所在, 1940, 7 創立, 指導員 2, 生徒 39

또한 農村振興會의 발전과 農家更生計劃의 급속한 확충운동의 실시에 따라 1935년 8월 각 郡守에 통침하여 종래 실시하여 온 普通學校卒業生指導시설의全面的擴充을 꾀하게 하여, 여기에 일반청년도 동참시키기 위하여 公立普通學校를 중심으로 農村青年團을 조직하고 해당지역 소재 공립보통학교장이 青年團長을 兼任하였다.

• 華城郡 農村青年團 一覽表¹⁸⁾

城湖面青年團, 1935. 11. 12 創立, 分團數 8, 團員數 85.

團長 烏山公立普通學校長 江藤良人

八灘面青年團, 1935. 11. 6 創立, 分團數 4, 團員數 80.

團長 八灘公立普通學校長 宮本伊之吉

松山面青年團, 1935. 11. 7 創立, 分團數 10, 團員數 1400.

團長 松山公立普通學校長 尾崎茂平

이와같이 日帝는 社會教育의 領域에 이르기까지 日本人化 · 同化教育에 광분하였다.

17) 京畿道, 教育と宗教要覽, 1941, p. 69

18) 京畿道, 京畿道 도세개요, 1936 p. 311

6. 抗日私設 學術講習會와 書堂에 대한 彈壓

1) 私設 學術講習會

教育의 필요성, 중요성은 增大되어 교육의 수요는 늘었으나 이미 설립된 학교만으로는 일반 대중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지의 經濟的 사정 또한 다르므로 私設講習會 및 書堂教育이 대중교육에 기여한 바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私設 學術講習會는 대부분 初等程度의 학과를 장기로 강습함으로써 未就學 兒童의 구제를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初等教育의 補助機關으로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강사의 학력, 사상 경향 등을 이유로 사설 학술강습소에 관한 總督府令에 의하여 단속하고 취체하였다.

이리하여 1927년부터 군수로 하여금 직접 감독 단속하게 하되 警察署長과 협조하여 강사의 人物, 開設의 動機, 강습의 實際 등에 대하여 엄중한 단속을 하게 하였으며, 교수방법의 지도 등 그 내용개선에 관하여는 인접한 公立普通學校長이 그 지도를 맡게 하였다.

그 결과 私設 學術講習會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것은 점차 사립학교로 승격시키거나 간이학교로의 개편을 권장하였으며, 불건전한 것은 정리하는 등 指導·監督에 철저를 기하였다.

1934년에 이르러 普通學校, 簡易學校 등 初等教育機關의 增設에 따라 이의 지도와 아울러 사설 學術講習會, 書堂 등 補助機關에 의한 교육의 개선, 지도라는 미명하에 府, 郡에 道 視學이 배치된 후에는 더욱 강력한 통제와 단속으로 私設講習會까지도 침략자의 日本人化教育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初等教育에 속하지 않는 각종 學藝, 技術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講習會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일제는 더욱 신경을 써 監督에 만전을 기하며 설립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講習會의 설치는 初等普通教育에 속하는 것은 군수에 위임하고, 기타는 道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私設講習會의 설립을 사전에 봉쇄키로 하였다.

1934년 중 종료한 講習會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군 명	강습회수	강 사 수	수강자수	계
수원군 (수원시, 화성군)	13	37	남 998 여 372	1,370

그러면 현재 華城郡內에 당시 개설되었던 사설학술강습회의 상황도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① 楊甘普信講習所²⁰⁾

양감면에 1923년 4월 1일 김용묵이 학동 45명으로 개설함.

② 三美義熟 : ²¹⁾

오산읍 외삼미리에 1923년 4월 4일 윤학영 학동 85명으로 創立하였으며 현 三美國民學校의 전신이다.

③ 光明義熟 : ²²⁾

장안면 사곡리에 있었으며 삼과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한 1923년 당시 이미 존재한 학당으로 후에 일어도 교습하였다고 함.

④ 養明義熟 : ²³⁾

장안면 사랑리에 있었으며 光明義熟과 함께 1923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學堂이라고 함.

⑤ 大成講習所 : ²⁴⁾

正南面 1925년 3월 29일 창설되었으며 보통학교 정도의 교육을 하였다.

⑥ 長安講習所 : ²⁵⁾

장안면 장안리에 소재하였으며 1927년 4월 1일 設立되었다. 그러나 日帝는 私設學術講習所에 관한 總督府令에 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農村簡易

19) 京畿道, 京畿道 道勢概要, 1936. p. 319

20), 21) 동아일보, 1939. 1. 1

22), 23) 資料提供, 장안국민학교

24) 이승언, 현대자료일지, 수원문화 제4호 p. 41

25) 資料提供 : 장명국민학교

學校로 講習所를 흡수·개편하여 日帝植民地 教育機關으로 정비하여 갔다. 이리하여 1936년 4월 1일 三槐公立普通學校附設長安簡易學校로 허울 좋은 승격을 하였으니 오늘날 장명국민학교의 전신이다.

(7) 私立 養明學院 : ²⁶⁾

세계적인 經濟恐慌과 일제의 大陸侵攻을 위한 군수산업의 확대는 자연히 한국농촌을 지리멸렬케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오직 教育만이 구국의 捷徑이라고 생각한 여산 송씨 문중에서는 1931년 3월 1일 우정면 화수리에 20평의 학사를 마련하여 養明學院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일제 침략자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온갖 彈壓과 甘言利說로 학원을 정비하여 1934년 4월 1일 마침내 삼괴공립보통학교부설 화수간이학교로 개편하여 식민지 교육을 촉진하였다. 오늘날 화수국민학교의 전신이다.

(8) 正信學術講習所 : ²⁷⁾

새싹들의 각성으로 교육구국의 염원을 달성하고자 정남면의 유지 우호일, 배국진 제씨의 노력으로 초가 10간의 교사를 망월리에 마련하여 그 중 2간은 事務室로 사용하고 우원영씨를 所長으로 추대하였다.

이리하여 1933년 4월 1일 학생수 1학년 20명, 2학년 3명으로 4년제의 正信學術講習所를 設立 개교하였으니, 教員은 우은정, 이주상 두 사람이었다.

1936년 3월 24일에 제1회 졸업생 3명을 배출하고, 해방 직전인 1945년 3월에 제10회 卒業狀 授與式이 있었다. 그후 1946년 12월 11일 正南國民學校 망월분교장이 되었고, 1948년 2월 2일 정림분교장으로 교명을 改稱하였다. 오늘날의 정림국민학교로는 1950년 6월 1일 昇格·獨立되었다. 다음은 망국의 서러움을 달래며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각지의 夜學會狀況은 다음 표와 같다.²⁸⁾

26) 資料提供 : 花樹國民學校

27) 資料提供 : 正林國民學校

28) 東亞日報 : 1939. 1. 1

夜學會狀況

1929. 1. 1. 現在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	설립자	설립초학생수	현재학생수 교원수
마도야학회	마도면	1924. 4.	장현경	22	28/1
정문야학회	정남면계향리	1927. 9. 15	조인행	118	148/8
오산부인야학회	성호면오산리	1928. 6. 28	오산공립보통학교 부설	48	31/3
영통야학회	태장면영통리	1928. 7. 1	한운택	78	68/3
안녕리야학회	안용면안녕리	1928. 10. 1	백홍기	38	25/2
발안야학회	향남면불안리	1928. 11. 14			

2) 書堂

書堂은 한국교육사에서 천년역사를 가진 생명이 긴 사학교육기관으로, 高麗 때부터 發達하여 朝鮮時代에 극히 성하였으며, 四學이나 향교에서 입학하는 準備教育場所도 되고, 나아가 서민들 자체에 教育의 機會를 부여하여 文字普及에 큰 공헌을 하였다.

書堂의 設置·運營은 사설로 자율적이며, 기본자산이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누구나 書堂을 경영할 수가 있었다.

- 運營形態는 ① 訓長 자신이 生計의 수단으로 經營하는 訓長直營書堂
- ② 부유층의 個人書堂
- ③ 親族中心의 書堂
- ④ 部落共同 書堂이 있다.

組織은 訓長, 접장, 생도로 이루어지며 訓長이 보수는 봄·가을에 곡물로 급여하여 사례하였다.

교육내용은 경서의 읽기(講讀), 글짓기(製述), 쓰기(習字)의 세 學科를 교수하였으며, 講讀은 대개 千字文, 동몽선습,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등이었다.

특히 韓民族은 日人的 식민통치, 일본인화교육에 거부적이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인은 자녀를 日人이 監督하는 公立學校에 취학시키기를 꺼려했다. 그러므로 書堂은 韓民族을 위한 교육의 源泉으로 서당과 학동의 수는 增加되어 갔다.

이와 같은 書堂은 근대적 학제가 시행된 후에도 普通教育의 補助機關으로 계속 維持發展되었다. 문제는 각 동리마다 서당이 있었으리라 믿어지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음이 아쉽다.

참고로 韓日合邦 직후인 1911년부터 1918년 까지의 전국의 서당수, 훈장수, 학동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년 도	서 당 수	훈 장 수	학 동 수
1911	16,540	16,771	141,604
1913	20,468	20,807	195,689
1915	23,441	23,674	229,550
1918	24,294	24,520	264,835

이상과 같이 학동수는 8년간에 약 배나 增加하였고, 書堂數는 7,754개가 증가했다. 그때까지 公立學校規則의 적용을 받지 않은 書堂이 韩民族 教育의 場으로 등장되면서 증가되어간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이같은 추세를 日帝侵略者가 방관할 리가 없었다.

1908년의 학부 훈령 제3호로 공포된 「書堂管理에 관한 訓令」을 시발로 私立學校의 基本精神에 준거하여 감독하며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① 書堂 所在地에 普通學校가 있으면 생도를 우선 보통학교에 입학시키되,妨害할 수 없다. 단, 普通學校가 없거나 수용능력이 부족할 때는 書堂에 입학함도 무방하다.
- ② 書堂의 교과는 한문 위주이나, 처세상 國語(日本語)의 교수를 권장할 것.
- ③ 漢文教育은 음讀에만 그치지 말고 그 의의를 해득시킬 것.
- ④ 체육과 健康教育에 유념할 것.

29) 高橋濱吉, 전계서, p.458을 引用한 「京畿道史」第 1卷 pp.837-838

⑤ 학동의 規律 및 風儀를 중시할 것.

⑥ 書堂의 채광, 환기, 위생시설, 청결, 정돈에 유의할 것.

이와같은 訓令은 韓國 固有의 역사적 민족의식과 관습이 깃든 書堂教育을 없앰으로써 民族魂을 말살하려는 저의에서 나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1911년 10월 私立學校規則 제17조에서는 '書堂은 본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동년 11월 1일 「朝鮮教育令 施行에 관한 訓令」에서 「書堂教育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조치를 피하라」고 하여 韓日合邦 직후의 정세를 감안 급작스런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적절한 시기를 보기로 하였다.

그 후 제2대 「하세가와」(長谷川好道) 總督때부터는 서서히 書堂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1918년 2월 21일 부령 제18호로 「書堂規則」을 공포하여 '漢文외에 國語(日語), 算術을 교수할 것', '書堂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府尹, 郡守, 島司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나 불온한 자는 書堂의 교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고 規定함으로써 書堂을 단속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朝鮮總督은 다시 1929년 6월 15일 부령 제55호로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書堂 개설을 도지사의 인가제로 격상시켜 監督을 強化하고, 總督府 編纂의 日語와 算術敎科書의 사용을 강요하는 등 書堂의 통제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다.

1932년에는 상세한 監督 및 團束方法을 정하고 군수로 하여금 직접 監督시킴과 동시에 부근의 公立 普通學校長으로 하여금 서당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특히 1934년 군에 道視學 배치 후에는 더욱 짙은 지도·감독·단속을 가하여 자연히 書堂은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추세를 京畿道의 통계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³⁰⁾

년 도	서 당 수	훈련 수	학 동 수
1912	1,813	1,853	14,738
↑1921	2,511	2,563	27,782
↓1926	1,570	1,652	18,286
1930	1,113	1,137	12,483

30) 京畿道, 教育と宗教要覽, 1941, pp. 63

1935	459	492	7,192
1937	338	363	6,804
1939	310	326	6,321
1940	254	270	6,398
1941	219	234	5,503

위 統計에서 보는 바와같이 1921년까지는 서당이 增加하는 경향이었으나, 私學과 함께 書堂이 일제의 彈壓을 받던 1926년 이후는 급격히 減少함을 알 수 있다.

烏山의 書堂에 대한 烏山公立普通學校長의 指導 監督상황을 보면,³¹⁾

• 開校하던 1913년 9월 28일부터 年末까지 書堂生徒 日曜國語(日語)講習會 열다. 생도수 47명

• 1914년 9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日曜書堂生徒 國語講習會를 매 日曜日에 14일간 실시했다.

이상과 같이 오산공립보통학교장은 연례적인 학사행정으로 매년 계속하여 서당의 학동을 일요일에 소집하여 국어(일본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화성군내 서당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북양리 書堂³²⁾

韓日合邦을 전후하여 당시 수원군 읍덕면 북양리 272번지에 백남운이 서당을 설치하고 훈장 1인을 招聘하여 자손과 동리 아동을 교육하였다.

학동수는 처음에는 10여명 정도였으나 차차 인근 부락에서, 멀리는 서신면에 이르기까지 수학하러 오는 아동들이 운집하여 30여명에 이르렀다.

훈장은 애국하는 길을 강조하며 열심히 배우라고 訓育하였다.

그러나 南陽公立普通學校長과 주재소(지서)의 간섭과 탄압이 심해지자 부득이 1920년대에는 日本語와 算術도 교수하게 되었다.

31) 城湖國民學校, 學校沿革史

32) 資料提供 : 白永宰 前 南陽中學校長

그후 서당 개설이 도지사의 인가제로 개정되자 1930년대 초에 자동 폐쇄되었다.

◆ 수화리 書堂³³⁾

옛 음덕면 수화리의 유일한 서당이었다. 文化的 流入이 적은 산간 마을이었으나 이웃 신외리의 某 토호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망국의 한을 풀고자 수화리에 書堂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 篤柱(독주울)洞 서당

양감면 신왕리 233번지 독주울에 1918년경 이 지방 有志이며 곧은 性品의 民族主義者인 李康璉씨(당시 33세)가 개설하였다.

朝鮮王朝의 終末을告한 1910년 일제는 철저한 愚民化, 文盲政策으로 이곳은 학교는 물론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암흑의 땅이었다. 이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教育임을 깨닫고, 멀리 한양의 成均館에서 訓長을 모셔와 自家에 입주시키고, 행랑과 사랑에 글방을 설치하여 자제와 친척을 비롯 동리 아동에게 한학과 대한역사를 教習시켰다. 바로 이 해는 일제가 「書堂規則」을 공포하여 漢學 외에 日語의 교육을 강요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민족의 정기를 학동들에게 심어 주는데 설립자나 훈장은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를 안 日警의 가혹한 彈壓으로 訓長도 여러차례 교체되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 강제로 閉鎖 당하였다. 그후 要視察人이 된 이씨는 1941년경 국가총동원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로 수원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 居芝洞 書堂³⁴⁾

송산면 지화리 거지동에, 이고장 선비 정재옥은 자택에 글방을 열고 10여명의 학동에 경서의 講讀과 習字를 교육하였다. 약 10여년 계속하다가 1936년 경 學校教育機關의 擴張으로 자동 閉鎖하였다.

33) 資料提供 : 昌文國民學校

34) 資料提供 : 松山中學校長

7. 韓民族 抹殺 教育期

(戰時體制下의 植民地 教育政策)

이 時期는 1938년 제3차 朝鮮教育令의 개정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 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한국을 兵站基地로 大陸侵略을 꿈꾸던 일제는,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에서의 費세를 挽回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광기어린 파시즘적 초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잔인무도하고 비인간적 民族抹殺의 교육을 감행하였다.

教育은 철저한 戰時體制化에 있었으니, 모든 교육은 일본의 戰爭完遂를 위한 手段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36년 부임한 「미나미」(南次郎) 總督은 새로이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이라는 3대 교육정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 정책은 初等教育에서 大學教育에 이르기까지의 教育目標였으니 그 내용을 當時 總督府 학무국 학무과장 「야기」(八木信雄)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國體明徵이란 萬世一系의 皇統을 이은 천황은 國家 創造諸神의 神裔로서 「아라히도가미」(現人神 : 살아있는 신)이며 신성불가침의 통치권을 총揽하고, 臣民의 종가의 가장으로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한다. 황실이 빛나는 곳에 국운의 융성이 있고, 國民의 행복이 있으므로 군신일체, 충효일체의 國體야 말로 만고무비의 대이상이니, 이를 더욱 明徵하고 공고히 하는 일이야말로 皇國臣民教育의 根本目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繁榮에 奉事하고, 나를 죽여 忠을 다하며, 멸사봉공의 정신을 기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教育이란 그 목적도 내용도 방법도 國體精神의 체득이라는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內鮮一體란 이해에 의하여 맺어진 단합이 아니라 깊이 역사에 뿌리를 박은 참된 일체다. 즉 內鮮은 먼 옛날부터 역사 공동체로서 양자분리되어

35) 정재철, 전계서 pp. 337-339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응화하여 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内鮮人은 다 같이 皇國臣民으로서 國體의 참 뜻을 알고, 국민생활의 본질을 이해하여,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살고, 内鮮人이 다같이 個人的 이익을 희생하여서라도 國家發展을 위하여 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순국정신의 함양이야말로 皇國臣民教育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셋째, 인고단련이란 난행과 고행을 쌓아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실천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재래의 教育이 강한 實踐力を 기르는데 소홀히 하여 성격이 확고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양성하였다. 앞으로의 교육은 인고단련에 의하여 의지력과 지구력을 튼튼하게 연성하여, 선량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의정신에 철저한 日本人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의 教育政策도 一大轉換期를 맞이한 동시에 한국인에게 보다 강력한 皇國臣民化 教育을 강요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도 새로이 수정하게 되었다.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제3차 朝鮮教育令이 개정 공포되고, 이어 동년 3월 15일 소학교 규정도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第 三 次) 朝鮮教育令

(1938. 3. 3)

勅令 第 103 號

제 1 조 조선에 있어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 조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단, 이의 칙령 중 문부 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행한다.

제 3 조 실업 교육은 실업 교육령에 의한다. 단, 실업 보습 교육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4 조 전문 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 교육 및 그 예비 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단, 이의 칙령 중 문부 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 제 5 조 사범 교육을 베푸는 학교를 사범 학교라 한다. 사범 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 소학교 교원된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6 조 사범 학교의 수업 연한은 7년으로 하되 보통과 5년, 연습과 2년으로 한다. 단 여자에 있어서는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여 보통과에 있어서 1년을 단축한다.
- 제 7 조 사범 학교 보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고,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 이상의 고등 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 8 조 사범 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심상과를 두고 또는 심상과만을 둘 수 있다.
- 제 9 조 심상과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또 여자에 있어서는 이를 4년으로 한다.
심상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 10 조 생 략
- 제 11 조 사범 학교에 연구과 또는 강습과를 둘 수 있다. 연구과와 강습과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따로 이를 정한다.
- 제 12 조 사범 학교에 부소 소학교를 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립 소학교로서 부속 소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 제 13 조 사범 학교는 관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사범학교는 관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사범학교는 道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
- 제 14 조 사범 학교의 교과, 편제설비, 수업료 등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 15 조 공립 사범 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본령에 규정한 것을 제한 외의 사립 학교, 특수한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 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의 정한 바에 의한다.

附 則

본령은 昭和 13년(1938) 十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례의 보통 학교, 고등 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 학교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
한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 여학교라 한다.

尋常 소학교의 수업 연한은 당분간 실정에 따라 4년으로 존속시킨다. 조선어는
正課로부터 隨意科로 한다. (사실은 자진 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第 3 次 朝鮮教育令에 따라 改定된 小學校規定의 要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학교 규정〉

제 1 조 소학교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기능을 갖게
함으로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 2 조 소학교는 寻常小學校와 高等小學校로 나눈다.

제 12 조 심상소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당분간은 4년으로 존속
시킨다. 고등소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산술, 국사, 지리, 잇
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이다. 여아를 위하여 가사 및 재봉
을 가할 수 있다.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한다.

제 14 조 고등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잇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이다. 여아를 위하여 가사와 재봉을 가할 수
있다.

제 16 조 體操의 본의를 明徵하여 아동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환기한
다.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內鮮一體의 미풍을 가르친다. 그
리고 국어(일본어) 교육을 철저케 함으로서 황국 신민으로서의 성격
을 함양한다.

제 18 조 국어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굳게 하여 지덕을 재반하는 것으로

요지를 삼는다.

제 20 조 국사는 肇國의 유래와 국운전진의 대요를 가르친다. 국체의 존엄을 알게 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 26 조 창가의 가사는 황국신민의 정조를 함양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한다.

제 64-69 조 교과서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한다.

이로써 보면 제3차 조선교육령은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그 이름을 바꾼 동시에 교육이 강조해야 할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皇國臣民化」를 더욱徹底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제 개정된 제3차 朝鮮教育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國語(日本語), 수신, 일본사 등의 教科를 강화하여 천황제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韓民族을 말살하고 韓國의 青少年을 皇國臣民化시킴이 그 底意였다. 따라서, 制度上으로 '동등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실은 皇國臣民化 教育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偽裝政策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을 하여, 教育目的을 「…국민도덕을 涵養함으로써 忠良有爲의 皇國臣民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皇國의 道에 基礎하여 國體觀念의 함양 및 인격도야에 유의함으로써 충량유위의 皇國臣民을 鍊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바꾸었다.

둘째, 韓國語 사용을 금하였다. 각급 학교의 朝鮮語 教科目을 정과로부터 隨意科目으로 格下시켰으며, 될 수 있는 대로 教育課程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특히私立學校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과하지 않도록 壓力を 가하였다. 이것은 결국 疾止나 다름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學校에서는 물론이오, 가정에서도 韓國語를 쓰지 말고 「國語常用」(日本語의 常用)하라는 데까지 강제로 이끌어 갔다. 만일 학교나 교외에서 한국어를 쓰는 것이 발견되면 벌을 주거나 조행(품행) 점수를 깎았다.

그리하여 일제는 韓國人이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는 권리마저 박탈하려 했던

것이다.

그후 1941년 3월 「國民學校令」에 따라 종래의 小學校를 國民學校라 개칭하는 동시에, 國民學校의 교과과정에서 朝鮮語(韓國語)를 삭제함으로써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朝鮮語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셋째, 일제는 私學을 극도로 탄압하였으니 특히 그 당시 적국인 美國 宣敎系私立學校에 대하여 더욱 혹심하게 彈壓하였다. 그리하여 基督敎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폐지시켰다. 그 대신 修身 과목에 神道 사상을 強化하여 神社參拜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神社參拜는 基督敎 교리에 어긋나는 愚像崇拜라 하여 不應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례이니 참배하여야 한다고 強壓하였다..

마침내 선교본부는 더 이상 기독교 학교를 존속시킬 의의를 잃게 되매 教育引退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장로교 계통 학교는 자진하여 廢校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화성군에서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小學校 규정에 따라 종래의 공립보통학교인 남양, 오산, 송산, 팔탄, 태장, 반월, 삼괴, 동탄, 향남, 정남, 비봉, 양감, 서신, 봉담, 매송, 마도, 양정의 17개 普通學校가 1938년 4월 1일을 기하여 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동시에 더욱 철저한 皇國臣民化 教育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삼괴공립보통학교는 장안공립심상소학교로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존 일인학교와의 교명 混沌을 피하기 위하여 오산공립보통학교는 동년 4월 2일 성호공립심상소학교로 校名을 개칭하게 되었다.³⁶⁾

이어 戰時體制下 일본군벌은 발악적인 최후의 방편으로 國民學校令의 公布를 계기로 初等學校마저 戰爭遂行의 도구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전기 17개 공립심상소학교도 1941년 4월 1일 일제히 교명을 公立國民學校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國民學校令 공포후 일제가 폐망한 1945년 사이에 화성군에 新設된 國民學校는 5개교이나 기설 간이학교를 승격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다.

36) 資料提供 : 城湖國民學校

학교명	소재지	개교년월일	전신교명	간이학교
창문국민학교	남영면수화리	1944. 4. 1	남양공립보통학교부설 수화간이학교	1938. 6. 7
장명국민학교	장안면장안리	1944. 4. 1	삼괴공립보통학교부설 장안간이학교 장안공립심상소학교부설 장안간이학교	1936. 4. 1 1940. 6. 1
발안국민학교	향남면발안리	1944. 4. 1	향남공립보통학교부설 발안간이학교(구문천리) 향남공립심상소학교부설 발안간이학교(발안리)	1935. 5. 1 1940. 5. 1
송라국민학교	매송면송라리	1944. 4. 1	매송공립보통학교부설 송라간이학교	1936. 4. 1
화수국민학교	우정면화수리	1945. 4. 1	삼괴공립보통학교부설 화수간이학교 우정공립보통학교부설 화수간이학교	1934. 4. 1 1936. 11. 1

일제의 皇國臣民化教育은 學校教育은 물론 社會教育을 통해서도 철저히 실천되었다.

1939년 8월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結成하여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고 그 말단에 애국반을 두었다. 이 聯盟의 纲領은 「皇國精神의 顯揚」,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쇄신」, 「전시경제정책의 협력」, 「근로보국」, 「총후의 후원」 「반공방첩」 등 이었다.

1940년 2월에는 內鮮一體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성명을 日本式으로 創氏케 하였고, 동년 10월 「國民總力聯盟」을 조직하여, 모든 行政機構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學生自治會를 해산하고, 「國民總力聯盟○○학교분회」로 편입시켰다. 동시에 皇國臣民化運動을 강제로 시행함으로써 中學校 이상에 日本軍 배속장교를 배치하여 軍事訓練을 강행하였다.

이와같이 일제는 한국의 社會와 生活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여 그 광기를 다시 한번 들어 냈다. 1941년 12월 8일 太平洋戰爭이 발발하자 모든 교육을 戰時

體制化하여 소모되는 兵力を 보충하고, 전략물자를 증산·보급하는 總力戰의 一環으로, 1942년 10월에는 「朝鮮青年 特別연성회령」을 공포하며 總督府 학무국에 연성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을 후방 전투요원으로서 또는 근로보충병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각급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43년 4월 1일에는 '皇國의 道에 따른 국민연성'이라는 목적으로 조선교육령(제4차)을 改正·施行하였다. 따라서 ① 國民學校 教育은 일본 본토에 준하여 忠良有爲의 國民鍊成을 목적으로 하였고 ② 中等學校 教育은 皇國의 道에 따라 國民의 鍊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동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 학생국은 「교육에 관한 戰時非常措置令」을 공포하였다. 그 要旨를 보면

① 國民學校를 大陸侵略에 이용할 수 있는 병사의 準備機關으로 보고 의무교육제의 準備를 서두를 것.

② 中等學校는 日本에 준해서 조치할 것.

③ 이공계 전문학교는 학생정원을 늘리고, 문과계, 사립 전문학교는 이과계로 바꾸고, 잔여의 문과계 전문학교는 통합할 것. 문과계, 여자전문학교는 여자보도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킬 것 등이었다.

1945년 3월 18일 日本 閣議의 결정으로 「決戰교육조치요강」을 발표하여 國民學校 초등과를 제외한 學校의 수업을 1년간 정지시키는 措置를 취하였으며, 모든 學徒를 식량증산·군수품생산·방공방위 등 결전에 진요한 업무에 총동원하였다. 드디어 敗戰의 기미가 짙은 1945년 5월 21일 학도의 결전태세確立을 위하여 「戰時教育令」을 公布하여 한국학생을 전쟁터의 제물로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그 제3조에 '학교는 교직원 및 학도로서 학도대를 조직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學校教育機能은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최후 발악 80여일만인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日帝는 세계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자 植民地教育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결 론

치욕적 망국의 韓日合邦은 역사의 필연이었는가? 하지만 지금 이것을 논하자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教訓을 우리 교육사에서 얻었고, 이 문화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전하고 싶을 뿐이다. 朝鮮時代 말기 우리에도 개화의 물결이 밀려 왔을 때 고종의 「教育立國詔書」를 재조명하여 보았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韓民族의 꿈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한 발 앞서 서구문명을 받아 들인 이웃 나라 日本을 살지게 한 재물이 되고 말았다.

清日·露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의 內政을 干涉하더니, 마침내 통감정 치를 거쳐 總督政治로 이어지는 過程으로 우리 教育은 滿身瘡痍가 되었다.

總督時代만도 4차에 걸친 教育令의 改正이 있었으니 그 底意는 무엇이었던가 살펴 보았다.

百姓은 길을 잃은 채 徘徊하고, 指導者는 日帝의 가혹한 탄압과 교활한 회유로 離間되었으니, 실로 암흑의 땅에서 亡國의 恨을 풀 길 없이 奴隸生活로 이어 갔다.

마치 오늘(4월 30일)이 越南 敗亡 13주년으로 敗亡의 教訓을 말하지만, 우리 民族은 일찍이 이 경험을 하였다. 참으로 所重한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자손에게 바르게 傳해야겠다. 다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華城郡은 畿甸地方에 위치하면서도 철저한 愚民化·同化政策으로 公立普通學校 教育만 실시하였으며, 民族性 짙은 모든 私學教育機關은 彈壓, 廢校, 設立不許로 일관하였다. 다만 初級中學 과정인 簡易農業學校(農業實修學校)를 1개소 烏山公立普通學校에 附設하여 日帝 착취기관의 하수인을 양성하였을 뿐이다. 새삼 국력의 위대함을 느껴 본다.

지난날 日帝의 教育侵略을 받지 않고 教育立國의 정신으로 교육력 향상에 힘 썼더라면 세계속의 한국의 위치를 더욱 부상시켰을 것이다.

日帝 侵略期의 教育史를 교훈 삼아,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座標를 정립하여야 되겠다. 끝. (畿甸文化 4집 1988. pp.103~138)

水原教育의 발자취

I. 黎明期의 水原教育

아득한 옛날 수원지방¹⁾은 車水國, 爰襄國, 桑外國으로 불리우던 부족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문자도 없었고 따라서 형식적 교육도 없었으나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교육을 비롯하여, 종교 의식(원시종교 이지만)을 위한 교육이 있었을 것이며, 맹수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교육 등의 비형식적인 교육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국시대에 들어와 문자가 들어오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비형식적 교육으로 높은 종교·철학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교를 통해 학교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형식교육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²⁾

1) 佛教의 傳播와 非形式的 教育

수원지방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문헌상의 기록이 없으므로, 현존하는 고찰의 연혁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고장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남·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서해를 통하여 중국 대륙과 직접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삼국간에 치열한 쟁패장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백제는 온조왕 11년(BC 8)7월에 이곳에 禿山城을 설치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한편 침류왕 원년(384) 불교가 공인됨에 군사들의 정신전력을 높이고 부처님의 힘으로 외침을 물리치려는 의도에서 독산성안에 寶積寺(오산시 지곡동, 현재의 세마사)를 세웠으니 지금의 군법당과 같은 진중속의 호국사찰이다.³⁾

그러나 고구려의 南下政策으로 장수왕 63년(475)에 이곳이 함락되드니 마침

1) 지금의 水原, 烏山, 華城의 전역과 平澤, 儀旺, 安山의一部가 包含됨.

2) 孫仁銖, 「三國時代의 教育」, 한국교육사, 1988, 교육출판사, p12.

3) 淩橋, 禿山城考 1987, 화성문화 제3호 p60.

내 신라 진홍왕 14년(553)에는 신라의 영유하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신라 진덕여왕(647~653)은 고구려와 백제의 잦은 침략을 佛力으로 막아 보려는 願力으로 서해를 바라보는 남양에 鳳林寺를 창건하게 되었다.⁴⁾ 그리고 문성왕 16년(854)에 水原城안에 세운 葛陽寺도 진중속의 호국사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⁵⁾

이와 같이 삼국의 불교사상이 꾸준하게 수원지방에 포교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을 전담할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였어도 이고장 지방민에게 비형식적 교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사실이다.

첫째, 불교는 건전한 국민정신과 호국사상을 심어 주었다.

불교에는 이상적 국가와 국왕에 관하여 설한 경전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金剛明鏡, 仁王經, 藥師經 같은 것은 호국경전이라 할 수 있다.⁶⁾ 여기에는 불법이 성하면 諸佛의 護衛에 의하여 국가가 번영하고, 국가가 성하면 불법도 성한다고 가르키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호국신앙이 되어 삼국 사람들에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공공적 협동정신을 길러 주었다.

둘째, 불교는 국민도덕의 근본을 밝혀 주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라는 불교의 오계가 덕목화되어 국민도덕의 근본이 되었다.

특히 圓光法사(?~630)는 불교 오계를 가지고 세속오계를 설하여 신라인의 교훈과 지도를 담당하였으며 또한 화랑도의 근본 이념이 되었다.

셋째, 불교는 민족문화의 선각자로서 대중교화의 길을 열어 주었다.

삼국시대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층은 귀족이지 평민은 아니었다. 이에 원효스님(617~686)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민중의 불교를 주창하여 「나

4) 李正無, 龍珠寺本末寺誌, 1984 진영출판사, p44.

5) 振稿, 水原城에 對한 小考, 기천문화 제7집, 1990, p.76
京畿道誌, 下卷 1957, p892.

6) 李弘植, 國史大事典, 知文閣, 1972, p800.

무아비타불」을 외우는 염불만으로 중생들을 교화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신라인의 거의 전부가 불교를 믿게 되었으니, 지금의 시민대학 강좌와 같이 민족문화의 창달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넷째, 불교의 사원은 儒家의 독서인이나 화랑들에게는 수양의 장소로, 불교도들에게는 靜坐를 통한 內省에서 자기 본질을 찾는 교육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다섯째, 불교는 국문학사상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고대문학의 대다수가 불교적인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여 전하여지는 신라 가요의 대부분이 불교중심의 작품임을 볼 때, 고대에 있어 승려나 불교도의 문학적 활동이 컸음을 알 수가 있다.⁷⁾

2) 儒教의 傳播와 形式的 教育

형식적 교육이란 학교교육과 같이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말한다.

(1) 고구려의 학교교육

한국교육사에서 학교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二年夏六月 … 立太學教育子弟”⁸⁾라고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관학의 설립을 소수림왕 2년(372)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太學의 이념과 학제,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太學이 관학인데 비하여, 사학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경당이 있어, 훗날 書堂의 기원이 되었으나 이에 관하여도 舊唐書와 新唐書를 통하여 그 편린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즉 구당서 東夷傳 고려조에 의하여 경당의 교육내용을 보면, “자제가 혼인전에 주야로 여기서 독서하고 습사(활쏘기)하였으며, 교과서로는 五經, 史記, 漢書·范曄의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진) 춘추·옥편·자동·자림, 이 밖에 문선이 있었다.”고 하였다.

7) 손인수, 앞의 책 pp. 16~20

8)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소수림왕 二年

이와같이 고구려의 경당에 습사가 과해졌음은 신라의,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이 문무일치의 교육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고구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⁹⁾

이때에 수원지방은 삼국간 쟁패의 와중에서 70여년간을 고구려가 통치하며, 買忽郡이라 하였으나, 유교가 전파된 기록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보아 아직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으므로 태학은 물론 경당도 없었다고 보여진다.

(2) 백제의 학교교육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여, 독특한 백제문화를 이루며 발달하였다고 보여지나 학교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근초고왕 30년(375)에 박사 高興이 처음으로 서기(百濟書記)를 만들었다.¹⁰⁾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측 사료인 고지기(古事記)와 니혼쇼기(日本書記)에서는 이 보다 먼저 백제인 왕인¹¹⁾이 일본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한 해가 오오진(應神) 천황 16년(285)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박사 고홍보다 앞서기 90년 전의 일이다.¹²⁾

이 후에도 백제는 五經博士 段楊爾를 일본의 게이다이(繼體) 천왕 7년(513)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박사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백제에도 고구려에 비할만한 교육기관이 있었음은 분명 하나 그 기록이 없다.

수원지방은 백제의 온조왕(BC 18~AD 28)부터 개로왕(455~475)때까지 약 5백년을 그 치하에 있었으나, 변방에 위치하여 삼국간의 치열한 쟁패장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한 결과로 정착된 교육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신라의 학교교육

신라는 삼국중 대륙 문화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문화의 수입도 그

9) 孫仁銖, 앞의 책, p30.

10)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근초고왕三十年

11) 古事記에는 와니끼시(和邇吉師)라 하였고, 日本書紀에는 와니(王仁)로 나와 있다.

12) 日本書紀 卷第十 應神天皇 十六年

13) 위의 책 卷第十七 繼體天皇 七年

만큼 늦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선덕여왕 9년(640)에 비로서 당나라에 자제를 파견하여, 그 곳의 國學에 입학시켰다는 기록밖에 그 이전은 학교교육에 관한 기록이 없다.¹⁴⁾ 그것은 신라가 화랑도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형식적 학교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와 문화교류가 활발하여지자 신문왕 2년(682)에 비로소 國學(국립대학)을 세워 禮部에 속하게 함으로써 형식적 학교교육을 하게 되었다.¹⁵⁾

국학은 경덕왕 6년(747)에 太學監이라 개칭하였으나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국학으로 환원시켰다.

수원지방은 진홍왕 14년(553)이래 신라의 영토가 되어 대륙과 통하는 문호가 되자 문물교환이 활발해짐으로써 정치적·문화적·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때 買忽이라 하던 지명을 경덕왕 16년(757)에 수성군으로 고치는 일대개혁이 있었다.¹⁶⁾

따라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된 경덕왕 이후에는 국학의 영향으로 지방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II. 高麗時代의 水原教育

1) 고려의 교육제도

고려의 교육제도는 成宗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것으로, 그 이전은 신라의 제도가 이어진 것이었다.

목적은 국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全人教育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¹⁷⁾

14)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第五, 善德王 九年

15) 위의 책 卷第八, 新羅本紀第八, 神文王 二年

16) 위의 책 卷第三十五, 雜志第四, 地理二,

高麗史 五十六, 志卷第十, 地理一

17) 閔丙河 韓國史大系(高麗)4, 1983, 삼진사, p37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初부터 교육기관의 정비에 힘써 태조 13년(930) 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창건하고 … 또 별도로 학원을 창립하여 醫卜二業을 두었다.”¹⁸⁾고 하였으며 태조는 그들의 학업을 장려하였다. 물론 개경에도 국초부터 중앙교육기관이 있었으나 이것이 면목을 일신한 것은 성종 11년(992)에 唐制를 참작하여 國子監을 설치함으로부터이다.¹⁹⁾

국자감은 일종의 국립종합대학으로 단과대학격인 國子學·太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의 6학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국자학·태학·사문학의 삼학은 모두 經學을 전공하고, 아울러 산술과 시무책을 익혔으나 그 구분은 학생의 신분에 따랐다.

국자학은 문무관 3품이상의 자손이 입학하였고, 태학은 5품이상, 사문학은 7품이상의 자손이 입학하였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仁宗 때의 學式에는 각 學에 3백명으로 되어 있다.

율학·서학·산학의 삼학은 직업과 기술교육을 하였으며 이에는 신분의 구별 없이 8품이상의 자제와 서민이 입학하여 잡학을 배웠다.²⁰⁾

成宗 때에는 중앙교육뿐 아니라 지방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지방의 자제를 선발하여 개경에 와서 학업을 닦도록 하였다.²¹⁾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방 12牧에 경학 및 의학박사를 보내 지방교육에도 힘을 썼다. 그런데 지방학교는 차츰 文廟의 제도를 갖추어 국자감을 축소한 鄉學(鄉校)으로 발전하여 仁宗 때에는 일종의 교육법인 學式이 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의 부흥과 보급에 힘을 쓰게 되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鄉校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忠烈王(1274~1308) 때부터로 당시 江陵按廉史이던 金承印이 花浮山 砥滴巖 밑에 文廟를 세운

18) 增補文獻備考, 卷第二百二, 學校考一

19) 高麗史, 七十四, 志卷第二十八 選舉二, 學校

20) 高麗史 七十四, 志卷第二十八, 選舉二, 學校

21) 高麗史節要 卷之二, 成宗文懿大王 六年

것이 효시가 되어 열읍에 문묘를 겸한 향교가 계속하여 일어났다.²²⁾고 하였으나 「고려사절요」에는 仁宗 5년(1127) 3월 惟新之教 15조를 반포하고, 그중에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확충할 것”²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향교의 설립연대를 고려사의 여러 기록으로 보아 成宗조(981~997)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仁宗조에 이르러 각 고을에 설립을 권장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²⁴⁾ 그후 고려가 원나라에 부속한 元宗 2년(1261) 3월에 “東西學堂을 두고 각각 별감을 보내서 教學 敎導하였다.”²⁵⁾는 詔書를 내린 것으로 보아 지방의 향교와 동격인 교육기관으로 개경에 동서학당의 설립을 보게 되었으나, 공양왕 때에는 5部學堂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다. 이상은 모두 국립의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이었으나 사립의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것은 文宗(1046~1083) 때에 崔沖이 九齋學堂을 세우고 교육에 힘씀으로서 私學이 크게 발전한 것이다. 이에 다른 유학자들도 구재학당을 본떠 사학을 세우니 개경에만 유명한 것이 12개가 있어 이를 12徒라 하였다. 12徒의 교육수준은 국자감은 유학의 교육내용과 같았다. 따라서 지금의 사립대학과 같은 성격이라 하겠다.²⁶⁾

그러나 사학이 떨쳐 관학이 부진하므로 예종 14년(1119) 국자감에 七齋와 養賢庫를 두고, 인종때는 京師六學과 지방 鄉學을 세워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지방 서민의 교육기관으로는 書堂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에 관한 기록이 우리나라 史料에는 없고, 인종 2년(1124) 宋나라 사신의 수행원으로 왔던 徐兢이 그의 여행기인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高麗의 學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을과 거리에는 經館과 書社가 두 개, 세 개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자제가 무리를 모아 선생에게 經書를 배우며, 성장하게 되면 類대로 벗을 택하여 寺(불교)나 觀(도교)에 가서 강습하고, 아래로 병졸이나 어

22) 增補文獻備考, 卷第209, 학교고 八, 향교

23) 高麗史節要 卷之九, 仁宗 恭孝大王 5년

24) 鄭在哲, 「韓國教育史」, 韓國文化史新論, 中央大學校, 1981, p691.

25) 高麗史 七十四, 志卷二十八 選舉二 學校

26) 李學澈, 「高麗時代의 教育」, 韓國教育史 1988 教育出版社 p74.

린 아이도 역시 향선생에게 배우니 참으로 홀륭하도다.”²⁷⁾라고 하였으니 당시 서당이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경당이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에 이어진 민간 사학기관이었다고 본다.

이와같은 서당은 지방민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자치적으로 설치한 학교로서 국민교육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장려 육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문헌상의 기록이 없어 그 교육상황을 알 길이 없다.

2) 수원지방의 교육

(1) 형식적 교육

수원지방의 학교로서 향교가 언제 창설이 되었는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건국초부터 태조는 서경(평양)에 학교를 창건하였으며, 경주에도 國學을 존속시켜 지방자체의 교육에 힘썼다. 성종도 지방교육에 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 비록 향교라는 이름의 학교가 각 지방에 설치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식의 교육기관이 창설되어 향교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본다.

향교는 孔子를 제사하는 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明倫堂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사는 助教라고 하였다.

고려 중기의 학자 李穀(1298~1351)은 “우리나라 鄉校의 制는 廟學과 同宮이다.”고 한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향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⁸⁾ 이때에 수원지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관학 교육기관을 水原鄉校로써, 충렬왕 11년(1285)에 봉담면 와우리에 초창되어²⁹⁾ 문무관 8품이상의 자제와 서민들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교육 내용은 주로 유학으로 그 정도는 국자감의 국학에는 미치지 못하고, 유교 정신을 지방민과 학생들에게 보급시키는데 알맞았다. 성적이 우수한 자는 선발

27) 高麗圖經 卷四十 同文

28) 李學澈, 앞의 책 p71.

29) 水原향교지(1991, p20)에 의하면 “正祖 13年(1789) 舊邑에서 504年만에 수원으로 옮겼다”로 되어 있다.

되어 중앙의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도 있었으며, 교육기관인 동시에 유교의 사당으로 지방민의 교화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향교로 연계되는 초등 정도의 사학인 서당으로 經館이나 書社가 지방민의 자치적인 운영으로 여러 곳에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史料가 없어 당시의 교육상황을 상세히 알 수가 없다.

(2) 비형식적 교육

고려시대의 교육을 고찰함에 있어서 학교 교육제도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비형식적인 교육으로서 佛教寺院에 의한 교육이 고려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특히 수원의 광교산은 일찌기 고려시대에 玄悟國師(宗璘 : 1126~1178)가 鐘樓峰동쪽에 瑞峰寺를 이룩하여 國王께 講學하였으며, 서쪽의 彰聖寺³⁰⁾에서는 眞覺國師(千熙 : 1307~1382)가 주석하면서 89암자를 세워 佛教를 빛냈으므로 光敎라 이름지었다 한다.³¹⁾ 또한 熙宗 4년(1208)에는 圓覺國師가 광교산 줄기를 따라 내려온 현재의 우만동에 봉령사(당시 이름은 성창사)를 창건하였으며³²⁾, 충선왕 4년(1312)에는 混其대선사가 현 화성군 동탄면에 萬儀寺³³⁾를 중건하는 등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고장이다.

더욱 고려시대의 寺院은 불교도나 寺下村의 교육기관이었을 뿐 아니라, 유교도에게도 개방된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다. 불교는 신라때부터 國敎的 위치에 있었으나, 고려 태조는 더욱 신봉하여 국교로 삼고 국민정신의 창달과 호국사상의 구현을 불교에 의하여 이루려 하였다.

따라서 高僧은 王師 · 國師로 추대되었으며 사찰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30) 寶物 第14號 彰聖寺 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가 上光敎洞의 光敎山 중턱에 있었으나, 1965년 梅香洞으로 移置됨

31) 京畿道誌 下卷, 1957 p891.

32) 李正無, 앞의 책 p64.

33) 李正無, 앞의 책 p31.

불교는 본래 無神教로 인간본위의 종교로서, 그 수도 목적은 上求菩提 下化衆生하여 오염된 국토를 佛國土로 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교육목적은 첫째, 지식획득을 목적하기 보다는 인생의 현실에 입각하여 보다 더 훌륭한 정신적 자유나 종교심을 계발시키는데 두었다. 이러한 정신계발은 수도를 통하여 자기 마음의 본체를 찾아냄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얻는 내면적인 인간완성에 두고 있었다. (上求菩提)

둘째, 수도의 결과 인간완성이 되었으면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중생을 회생과 봉사로 제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下化衆生)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교교육의 내용은

첫째, 바라문의 교리중 불교에서 답습한 五明 즉 문자·문법·문학(聲明), 논리학(固明), 종교·철학(內明), 의학·약학(醫方明), 공업·기술(工巧明)을 비롯하여 60여종의 경전과 29종의 무술을 학습하였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과학·기술교육과 무술을 경시한 것에 비하면 문무를 겸한 진보적인 교육내용이라 하겠다.

둘째, 戒·定·慧의 三學과 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의 六波羅密을 들 수 있다.

교육 방법은 철저한 自律學習이다. 스승은 있으나 깨닫는 것은 自力으로 해야 한다는 自力信仰으로, 논리보다 直觀을 강조하고 있다.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³⁴⁾

이와같이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왕조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도덕과 철학사상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국민교육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학교교육 외에 비형식적인 교육면에서 큰 意義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34) 孫仁鉢, 「韓國人과 教育思想」 교단통권 32, 1969, pp 141~142.

III. 朝鮮時代의 水原教育

1) 조선왕조의 교육제도

고려의 교육제도를 계승하여 그 체제와 이념과 방법을 발전시켰을 뿐이며, 일정한 계단식의 계통적 교육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公費에 의한 초등교육 기관은 없었으며, 다만 초등정도의 사설교육시설로서 서원과 서당이 있었으며,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서울에 四學과 지방에 鄉校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成均館이 서울에 있었다. 이러한 각급 교육기관은 중국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새 교육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내려왔다.

성균관과 四學은 예조에서 관장하였고, 향교는 지방의 부·목·군·현의 예방에서 관장하였으며, 잡학은 각 소관관서에서 관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규제하기 위한 學敎이나 公敎育에 대한 각종 규범과 규정은 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있다. 교육은 유교적인 양반 관료체제하에서 주로 양반자제를 대상으로³⁵⁾ 관료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음으로 학교는 과거시험의 준비기관이나 다름이 없었다.

과거시험이 經書의 암송·이해와 詩文 등의 창작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유학과 한문학이 주가 되었다. 즉 양반의 자제들이 7~8세에 서당에 들어가 한문의 초보와 습자를 배우고, 15~6세 이전에 서당의 과정을 마치면 서울에서는 四學으로 지방에서는 鄉校로 진학하였다.

四學에는 서울의 양반 자제를 수용하되 정원은 각 백명이었다.

향교는 태조가 각 지방의 향교의 흥폐를 수령들의 치적의 평가 척도로 삼는 적극적인 정책을 편으로써 향교 보급에 힘을 썼다. 그리하여 지방행정 구역에 따라 1교씩 설치케 하여, 지방 양반과 향리의 자제를 수용케 했다.

학생정원은 설치된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다르니 府와 大都護府 그리고 牧에는

35) 교육이 서민의 자제에게 문호가 폐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막혀 있었다.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에 50명, 縣에 30명으로 제한하였다.³⁶⁾

향교의 경영은 왕이 하사한 學田,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한 금품, 유림들이 부담한 의연금 등으로 매수한 田畠, 渡津, 어장, 산림 등의 수입에서 보충하였다. 四學과 鄉校에서 수학한 자는 小科에 응시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하고, 다시 大科를 거쳐 고위관리로 나가는 것이 정규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生員·進士가 반드시 四學·鄉校를 거친자가 아니듯이 成均館에는 생원·진사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功臣·勳臣의 자제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나, 현직 하급관리 중의 지망자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학생 정원은 처음에는 2백명이었으나 뒤에는 126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이들 유생에게는 大科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관리 등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많은 특권을 주었다. 성균관의 유생은 齋에 기숙함이 원칙이며, 출석부인 到記에 圓點을 쳐서 3백일 이상이 되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교육의 주류는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계통의 교육이었으며 武科나 雜科教育(직업·기술교육)은 매우 경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의 교육제도는 오직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며 여성을 위한 학교 교육기관이 없었음으로 이들의 사회적 진출은 생각도 못하였으며 가정교육으로 부터을 쌓았을 뿐이었다.

2) 수원지방의 교육

(1) 官學

① 水原鄉校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원향교는 충렬왕 11년(1285) 봉담면 와우리에 초창됨으로써 수원지방 학교의 시초가 되었다. 이와같이 처음에는 府 西쪽 3里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종 2년(1661)에 府 南쪽 2里의 禿城山(오산시 지곶

36)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儀章

동)으로 옮겨 세웠다.³⁷⁾

그후 정조 13년(1789) 부왕의 능침을 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邑治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던 같은 해 9월 향교도 현 위치인 수원시 교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일이 급하여 재목은 옛 殿廡 것을 많이 썼다. 그러나 뜰이 매우 좁고 습기 도 제거해야 했으므로 1795년 옛 건물은 모두 헐고 그 자리에 터를 넓게 닦아 높직이 2층으로 月臺를 쌓고 모두 새 재목으로 중건하였으니 북쪽에서 남향으로 자리하였다.³⁸⁾

향교 설립의 목적은 중국의 5聖 2賢과 우리나라 18賢을 배향하고, 춘추로 제 향을 올리며 성현의 威德을 기리며, 아울러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함으로써 지방 문화의 향상과 土風振作 등 사회교육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즉 鄉飲禮, 鄉射禮, 養老禮 등의 행사를 가짐으로서 지방의 풍속을 순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삼 강행실록을 가르치는 계몽활동도 하였다.

유생의 정원은 70명이며 향교의 감독책임은 감사에게 있었고 직원으로는 교수 (종 6품) · 훈도(종 9품) 각 1인과 教隸가 속하고 있었다.

교육목적은 관리양성에 두고 과거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서로는 小學, 四書, 五經, 近思錄 · 諸史, 三綱行實 등이 사용되었고 간혹 농업에 관한 서적도 사용되었다.

장학방법은 유생의 교과서와 독서한 日課를 매월 한번 수령이 감사에게 알리면, 감사는 순시때 이를 講받아 학령에 의해 勸懲을 밝히고 日講 · 月講에 우등한 자는 戶役을 감하였다. 또한 해마다 6월에 都會所를 설치하고 文官 3명이 講論 혹은 製述로 시험하여 3명씩의 우등생을 뽑아 生進 覆試에 응할 자격을 주었다.

향교는 입구에 下馬碑와 紅箭門이 있으며 소슬三門으로 된 外三門(일명 : 外神門)을 들어서면 八作지붕의 明倫堂(강당)이다. 명륜당 뒤 동편에 있던 작은 연못은 西齋 남쪽으로 옮겨지고³⁹⁾, 명륜당 좌우에 동 · 서 兩齋가 있으나 東齋

37) 輿地圖書, 수원부읍지, 1760, 文廟

38) 華城城役儀軌 附編 1 壇廟, 文宣王廟

39) 華城城役儀軌에 의하면 當初 이 연못은 동재 남쪽에 있었다.

가 1990년 12월 13일 복원되어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동재의 동쪽에는 典祀廳이 있었다. 다시 돌계단을 올라 内三門(일명 : 內神門)을 들어서면 중앙에 맞배지붕으로 된 大成殿에는 공자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 동서에는 儒賢의 위패를 모신 東西 兩廡가 있다.

그러나 왕조 중엽부터 일기 시작한 書院에 그 기능과 역할을 빼앗기고 쇠퇴하면서 고종 31년(1894)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학교로서의 기능을 잃고, 오직 문묘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변하였다.

② 南陽鄉校⁴⁰⁾

조선왕조 태조 6년(1397)에 南陽府 陰德面 驛谷(역골)에 초창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지금의 남양중·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다. 그후 고종 10년(1873)에 현재의 위치인 남영면 남양6리로 校宮(향교)을 이전하였다.⁴¹⁾

남양향교는 경사지에 자리하여 前學后廟의 배치 수법을 따르고 있음은 수원향교의 경우와 같다.

1933년과 1976년 그리고 1980년과 1985년에 보수하며 단청도 새로하였다.

향교 입구에 下馬碑와 紅箭門이 있으며 소슬三門 형태의 外三門을 들어서면 정면의 강당인 明倫堂은 없어지고 초석만 남아 있다.

명륜당 좌우에 東·西齋가 있으니 〈日新齋〉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東齋는 양반의 자제가 머물던 곳이오, 西齋는 서민의 자제가 머무는 곳으로 兩齋는 크기나 구조가 비슷하다. 다시 좌측으로 계단을 올라가 소슬三門으로 된 内三門에 들어서면 정면에 大成殿은 있으나 左右에 있었던 東·西廡는 폐허가 되어 복원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1949년 전국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대성전에 중국의 5聖 2賢과 동·서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18賢位를 함께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春秋釋奠大祭를 폐지하고, 공자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석전을

40)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34호

41) 남양면사무소 소장 구한말사료 “남양향교”

봉행하기로 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음력 8월 첫 丁日⁴²⁾에만 시제를 드리고 있다.⁴³⁾

남양향교의 설립 목적, 유생의 정원, 교육 목적, 교과 내용, 장학 방법 등은 수원 향교의 경우와 같다. 이리하여 남양향교는 먼저 세원진 수원향교와 더불어 조선 시대 수원교육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2) 私學

① 安谷書院⁴⁴⁾

연산군 이후 계속되는 사화로 사류들의 사기는 떨어져 정계를 등지고 학문을 위한 학문에만 열중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선비들은 낙향하여 은거하며 각기 문호를 열고 講學에 힘쓰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先儒의 연고지에 書院을 사설하고 先賢에 대한 추모와 아울러 유생의 강학과 덕행을 연마하는 풍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교가 관학인 동시에 城市에 위치하여 文廟配享을 본뜬 것이라면, 서원은 한 사람의 明儒를 제향하는 사학기관으로 그 위치가 풍광이 명미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수양과 사색하기에 적당할 뿐 아니라, 學則이나 官令의 구속이 없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물에 번잡한 접촉이 적어 心志에 동요가 적은 곳이었다.

따라서 서원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대단하며 이를 권장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토지에는 조세를 과하지 않는 특권적인 것이 되어 양민이 院奴가 되어 軍役을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현종 7년(1666) 남양현감 閔耆重이 己卯明賢인 道源齋 朴世棟의 유풍을 경모하여, 다음 해 현 위치인 서신면 상안리에 安谷書院을

42) 丁酉, 丁未, 丁申 등과 같이 日辰의 天干이 丁으로 된 날.

43) 남양면사무소 소장 구한말사료 “남양향교”

44)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

창건하여 그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한 것이 그 유래이다.

그 뒤 현종 9년에는 도원재의 사부이며 伯兄인 松村 朴世勳 역시 기묘명현임으로 병형키로 하였고, 숙종 23년(1697)에는 忍齋 洪暹을 追享하게 되었다.⁴⁵⁾

경종 1년(1721) 安谷書院으로 賦額되었으며, 영조 5년(1729) 曠設書院 철폐시 撤額되었으나, 영조 16년 남양유생들의 상소로 復額되었다. 그러나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또다시 毀撤된 것을 1976년 유림들에 의하여 사우를 중건하고, 세분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입구의 홍살문을 지나면 팔작지붕의 강당에 이르며 내부에는 「安谷書院重建記」, 「安谷書院重建上樑文」을 비롯한 몇 개의 현판들이 걸려 있다. 강당 위의 내삼문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맞배지붕에 防風板이 부착된 사당이 있다.

한편 서원 뒷산에는 박세희의 무덤과 왼쪽에는 박세훈의 무덤이 있다.

② 明臯書院

명고서원은 부의 서쪽 20리 松洞面에 있다. 浦渚 趙翼(1579~1655)이 主享이며, 浦渚의 아들 松谷 復陽(1609~1671)과 松谷의 아들 旼齋 持謙(1639~1685)을 배향한 곳으로, 현종 1년(1660)에 세우고 영조 5년(1729)에 사액되었으나 고종 8년(1871)에 毀撤되었다.⁴⁶⁾

지금의 매송면 원리인 서원 자리는 폐허가 되어 농경지로 변했으나 밭 사이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을 통하여 서원터를 짐작케 하고 있다.

조익은 조선 선조·효종시의 학자이며 相臣으로, 李彥迪 李滉의 문묘종사를 상소하다가 좌천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다시 이조좌랑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으나 李珥 成渾의 문묘종사를 상소하다가 안받아들여지자 관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조복양은 김상현의 문인으로 이조참의, 대사헌, 대제학을 지냈다.

조지겸은 같은 서인인 송시열과 논쟁을 벌여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조

45) 水原郡邑誌 1899, 사원

46) 水原郡邑誌, 1899, 사원

그러나 坊里條에는 '西距三十里'로 되어 있다.

지겸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불당되었다. 그후 부제학,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소론의 거두가 되었다.

③ 梅谷書院

매곡서원은 부의 서쪽 20리 매곡면에 있었으며 노론의 거두 우암 송시열을 흔로 제향하고 있다. 숙종 21년(1695)에 세우고 사액하였으며, 고종 8년(1871)에 폐철되었다.⁴⁷⁾ 그러나 大同地志와 新增文獻備考에는 “숙종 20년(1694)에 건립되고, 다음 해에 사액되었다.”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매송면 천천리 서원터는 폐허가 되어 옛 모습을 찾을 길 없고, 주변에 흩어진 네모진 주춧돌과 기타 석재의 배열로 보아 옛 건물의 자취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매송면은 노론의 거두를 제향한 서원과 소론과 거두를 배향한 서원이 함께 있으므로써 유학의 진흥을 가져오고 많은 선비를 배출하게 되었다.

④ 關里祠

전에는 광덕면에 있던 공자의 영정을 정조 17년(1793)에 특명하여 남쪽 40리 되는 초평면으로 옮겨 세웠다. 어필로 된 현판을 걸었다. 고종 8년(1871)에 폐철되어 영정은 향교 대성전에 봉안하였다.⁴⁸⁾

그러나 「화성궐리지」에는 “정조 16년(1792)에 특명으로 공자의 64세손 문현 공 서린의 遺址인 화성부(고수원부 정조개명화성) 남쪽 40리 문공산 구정촌에 궐리사를 창건하고 廣德舊廟에 있던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 정조 창건 이후 79년되는 고종 8년(1871)에 사원 중설처로 잘못 인정되어 폐철령이 내려 폐철되었다. …”

고종 37년(1900) 7월에 중건하였다. 문현공이 구정촌에 서재를 세우고 제자들을 모아 교수할 때 앞뜰 은행나무에 북을 걸고 문하 제자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47) 水原郡邑誌, 1899, 사원

48) 김정호, 대동여지, 1864, 사원
水原郡邑誌, 1899, 사원

않도록 깨우치며 가르쳤는데 공이 죽자 또한 은행나무도 죽었다. …”⁴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오산시 궐동으로 하마비가 있는 입구에서 언덕에 오르면 유서깊은 은행나무가 과객을 반겼다.

성묘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소슬삼문 좌우에 명륜당 터가 남아있고 서쪽에 강당이 있다.

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맞배지붕의 祠堂이 있다. 사당 안 우측에는 고종 41년(1904)에 도약장 조병식외 7인이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聖蹟圖⁵⁰⁾가 보존되어 있다.

공서린은(1483~1541) 중종 때의 명신으로 기묘사화시 조광조 등과 같이 투옥되었으며, 경기감사, 대사헌, 황해감사를 지냈다. 그후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내려와 후학을 양성하였다.

오산의 궐리사는 노성(충남 논산군 노성면)의 궐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2대 궐리사이다.

⑤ 書堂

서당은 한국교육사에서 천년 역사를 가진 생명이 긴 비형적 사학교육기관으로, 고려때부터 발달하여 한 때 극히 성행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점차 그 내용이나 질이 저하됨에 따라 궁유·한사의 결식처로 변하여 자연히 쇠퇴하게 되었다.

서당은 사학과 향교에서의 입학을 위한 준비 및 널리 서민들 자체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문자 보급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예양적 학풍을 이루고 국민도의를 순화하는데 끼친 영향은 매우 커다.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우며 기본자산이나 인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서당을 경영할 수 있었다.

49) 華城關里誌 1947 重刊

50) 지방유형문화재 제62호

서당의 설립유형은 대략 다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훈장 자신이 생계의 수단으로 경영하는 훈장직영서당 둘째, 부유층이 자신의 자질을 교육하면서 친지나 마을아이들을 무료로 수강(동량공부)케 하는 유지독영서당 셋째, 유지 몇 사람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조합원의 자질을 교육하는 유지조합서당 넷째,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당을 경영하던 동리공동서당이 있었다.

수원지방에는 일찍부터 수원과 남양에 향교가 있었고, 덕망 높은 선비들이 후학을 양성하던 서원이 여러 곳에 있었음을 볼 때, 큰 동리에는 여러 형태의 서당 중 하나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기록이 없을 뿐이다.

조직은 훈장(책임교사), 접장(보조교사), 생도로 이루어지며, 훈장의 사회적 지위는 별로 높지 않은 자가 대부분이며, 보수는 봄·가을에 곡물로 사례함이 보통이었다.

생도의 연령은 7~8세로 부터 15~6세에 이르는 층이 가장 많았다.

교육내용은 경서의 읽기(講讀), 글짓기(제술), 쓰기(습자)의 세가지이었다. 강독은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 통감, 소학, 대학, 논어로 올라감이 보통이었다. 제술로는 일반적으로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작문 등을 가르쳤다. 습자로는 해서를 많이 연습시켜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행서, 초서를 익히게 하였다. 그러나 훈장의 능력과 품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교육방법은 같은 글방에 교육정도가 각기 다른 생도들을 수용하여 대체로 주입식과 암기 위주의 개별지도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생도들은 자기능력에 따라 학습의 진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훈장의 전인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계절에 알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더울 때에는 흥취가 있는 시나 율시를 읽고, 짓게 하였으며 겨울에는 강독을 주로 하며 밤글(야독)을 장려하였다.

이와같이 서당은 비록 사설이었으나 지방문화의 창달은 물론 정치·사상 등 국민교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왕조의 명에 의하여 송준길(1606~1672)은 다음과 같은 학규를 지었다. 훈장은 각 고을에 고르게 두되 대학장의의 예에 의할 것이며, 수령은 때때로 친히 이들을 돌보고 학도들을 시험해

보며 감사, 도사, 교양관도 또한 수시로 강을 받고 제술을 시켜 볼 것과 만일 실적을 올린 자가 있을 때는 대전에 의하여 사장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생도에게는 상을 주며 그중 가장 뛰어난 자는 啓聞하여 사장에게는 동몽교관이나 다른 관직을 주어 권장할 것 등이다.

IV. 近代學校의 成立과 水原

새로운 서양문물의 전래는 지금까지 중국 중심의 동양이 그 전부로 알던 좁은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유학체제의 조선왕조 교육에 반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서정개혁이 단행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과거제의 폐지, 신학제의 제정과 관학의 성립 등 교육제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학정을 관장하던 예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학무아문에서 맡았으며, 과거제의 폐지로 관리등용법을 제정하는 등 새교육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같은 해에 학무아문은 고시를 내려 교육이 없이는 나라의 유신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이로써 오랜 구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사조를 인식하기에 이르러 근대화를 촉진시킬 계기가 되었다.

물론 갑오경장에 앞서서 동문관, 육영공원 등의 설치로 근대적 교육의 도입과 실천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갑오경장에 의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한 교육개편 작업이 정부 의지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1895년 1월 7일 한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흥법 14조를 공포하면서, 그 11조에 “나라의 뛰어난 자제를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전습시킨다.”는 조항이 있음을 보아 서구 문화의 수입이 절실히 나타내었다.

이어서 같은 해 2월에는 새로운 국가로의 중흥을 이루하고자 근대교육이념을

51) 趙成俊, 李朝教育制度의 概觀, 教權 25號, 1969, P.248.

국가정책으로 반영한 「교육입국조서」를 온 국민에게 내리었다.⁵²⁾

조서에 의하면 교육없이 국가가 될 수 없고, 고인의 찌꺼기만 쫓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교육의 실제는 덕양·체양·지양에 있다하여 새교육의 3대 강기를 지적하고 교육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고종의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 16일 칙령 제79호로 먼저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학교법규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19일에는 칙령 제145호로 「소학교령」이 제정 공포되었다.⁵³⁾

이 소학교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불과 10년 만에 서울에 10개교와 지방에 50여교로 늘어났다. 이때 수원에 세워진 학교를 그 설립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立學校

(1) 京畿觀察府立小學校

경기도 관찰부에서 「소학교령」에 의거 1896년 2월 10에 공립소학교를 개교하였으니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이후 신학제에 의한 이 고장 교육기관의 효시이다.

그러나 일제의 총검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통감정치가 시작되자 교육을 쇄신하고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미명으로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4호로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일본인에 의한 변질된 학제가 시행되었다.⁵⁴⁾

이에 따라 1906년 9월 교명이 공립수원보통학교⁵⁵⁾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의 수원신풍국민학교의 전신이다.

(2) 南陽公立小學校

52) 拙稿, 「일제침략기의 華城教育」, 畿甸文化 第4輯 1988, p104.

53) 李悌宰, 앞의 글, pp109-111

54) 李悌宰, 앞의 글, p112

55) 보통학교令 施行規則 第1條 「名稱」

남양군에서는 음덕면 남양리에 있던 원남양도호부 집사청을 차입하여 1898년 10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한 남양공립소학교를 개교하였다. 교원은 박제현 1인이고 아동수는 35명이었으며 교과서는 천자문, 통감, 소학, 효경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한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1906년 공립 남양보통학교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1908년에 교원의 관명을 훈도라 하고, 2학급을 편성하였으며 교장에 남양군수 김관현이 폐명되었다.⁵⁶⁾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국교육의 주인공이 된 조선총독은 식민지교육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11년 8월 23일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11년 11월 4일 교명을 다시 남양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게 되었다. 현재의 남양국민학교 전신이다.

(3) 水原農林學校

1899년 6월 24일 칙령 제28호로 「상공학교 관제」가 공포되어 상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다시 1904년 6월 8일에는 칙령 제16호로 「농상공학교 관제」가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1일 대한제국 학부는 한성부 수진동(지금 수성동)에 관립 농상공학교를 세우면서 일대 도약기를 맞게 되었다.

상공학교는 4년제로서 상업과의 공업과를 설치하고 교장 1명, 교관 10명, 서기 2명을 두는 외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 농상공학교 관제는 앞의 상공학교 관제에 농업과를 설치하고 직원으로 서기 1명을 추가하였다. 여기의 농업과가 훗날 수원농림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으로 근대학교가 설치되어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한민족의 정부에 의한 신교육이 실천되었으나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의 새 기운이 채 싹도 트기 전에 일제침략의 질곡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1906년 일제에 의하여 「농림학교 관제」가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10일 농상공학교의 농과생 25명과 사립 한성학당의 농업속성과생 8명을 합하여 수업 년한 2년의 농림학교 본과 1학년에 편입하고 구 농상공학교의 교사에서 수업을

56) 李悌宰, 앞의 글, pp111~114

시작하였다.

1907년 1월 8일 수원 서둔동에 있는 勸業模範場(지금의 농촌진흥청) 이웃에 자리를 잡으면서, 수원농립학교로 부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일제의 학제개혁은 실업학교나 특별교육기관은 각기 해당부로 하여 금 관리케 하는것이 옳다고 하여, 유일한 실업교육기관이며 학부 소관이던 것을 농상공부의 소관으로 바꾸었다.

1910년 마침내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농립학교」로 개칭하고 권업 모범장에 부치하여 농립학교에 필수적인 지식·기능을 습득시키되 교수상 실습에 치중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농업개발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⁷⁾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과 농업을 부흥시킨다는 미명하에 1906년 4월에 권업모범장을 세우고 같은 해 9월에 농립학교를 세운 일제는 그 해 10월에는 「토지가옥 증명규칙」을 공포하여 우리나라의 농토를 공식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토지 수탈에 박차를 가하더니, 1910년 한국을 강점하자 그 해 10월 「임시토지조사국」을 설립하여 총·검의 위협으로 농토 수탈이 강행되었다.⁵⁸⁾ 이에 맞춰 교육정책은 식민지적 여러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체념하고 수용하는 「식민지적 인간상」을 길러냄으로써 식민지 질서를 유지하여 일제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양순한 하수인으로서 사역함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함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2) 私立學校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을 맞이하고 새로운 개화시대로 접어들자 우리나라를 찾아온 미국의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를 통한 정신적 계몽은 물론 앞선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여 그들의 근대화를 이땅에 심으려 하였다.

57) 京畿道, 경기도지, 중권, 1956, pp98-106

58) 拙稿, 「水原地方의 青少年運動」, 全國鄉土文化(鄉土史)研究發表會 資料集, 1990, pp59~60

그러던 중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사학설립이 곧 교육구국 운동임을 깨닫고 사립학교 설립이 촉진되었다. 민족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도 직접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학회와 같은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더욱 교육열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학회의 부속기관으로 사립학교를 세우는 한편 “국가의 존망은 교육에 좌우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자극되어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특히 왕실에서도 여성 교육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08년 칙령 제62호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반일기운이 팽배했던 사립학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그 당시 사학들의 반발은 대단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하자 사학은 저항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어, 민족 투쟁사와 함께 민족이 겪은 시련의 극복에 핵심이 되었다.

(1) 水原私立三一女學校

앞서 말한바와 같이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여선교사인 스크랜튼 (Mrs. Scranton)여사는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워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녀는 1899년에 주한 미 감리교회의 초대 회장이 되고, 이듬해에는 수원에 미국 북감리파 교회를 보시동(지금의 북수동)에 세웠다.

이어서 당시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는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인 1902년 6월 3일에 삼일여학당을 같은 교회안에서 3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여, 다음 해 4월에 초대 교장 이하영이 취임하였다.

그후 1908년 공포된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폐교의 위기를 맞았으나 수원의 유지인 이하영, 하유순, 나중석 등과 협력하여 1909년 4월 28일 학부로부터 사립 삼일여학교로 인가를 얻게 되었다.

또다시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다음 해에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를 만들어 일제의 식민통치를 어렵게 하는 사학을 폐교시키려고 온갖 탄압을 가하게 되어 사학의 수난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되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결집시켜 주는 결과가 되어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매향여자중·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2) 水原私立三一學校

1903년 5월 어느날 보시동 북감리교회에 모인 수원의 유지 이하영, 임면수, 나종석, 차유순 등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하루바삐 사립학교를 개교하고자 하였으나 校舍가 문제였다. 이때 선교부는 유지들의 청을 받아 들여 교회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11명의 학생으로 삼일학당의 문을 연 것이 같은 해 5월 7일이었다.⁵⁹⁾

개교 당시의 교육목표는 우리나라를 좀먹어 들어오는 일본 세력의 야망을 분쇄하려고 학생들에게 兵士와 같은 기개와 자주독립사상을 불어넣는데 주력하여 “어서 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도 모른다. 어서 배워서 알아야 한다. 국가 독립을 위한 일군이 되어야 한다.”는 데 두었다.⁶⁰⁾

그러나 3년간은 학년·반도 없이 한문 서당식으로 교육을 해오다가 1906년 나종석, 강석호가 학교 유지비로 8만량과 토지 9백평을 기증함으로써 근대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삼일학당은 뜻있는 교인들의 애국심에 의해 경영되어 왔으나 1908년 「私立學校令」의 공포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학교의 유지 문제에 부딪쳐 같은 해 9월 1일 경영권을 북감리교회 선교부로 이양하게 되었다.⁶¹⁾

그리하여 1909년 4월 23일 學部로부터 水原私立三一學校로 인가를 얻었으나 다음해 일제의 합방이란 감정으로 사학의 수난시대를 맞게 된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지금의 삼일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3) 水原商業講習所

일제의 야만적이 식민통치는 경제적으로 그들의 상품시장으로서 또한 그들 자신의 투자시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 나갔다. 그리하여 통감부시대부터 수원에

59) 三一學園, 삼일학원팔십년사, 양정사, 1983, p70

60) op.cit p88

61) op.cit p106

자본의 투자시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 나갔다. 그리하여 통감부시대부터 수원에 이민 온 일본인들의 경제적 침략이 본격화되자 수원의 토착 지주들은 단합하여 문안과 남문 밖에 시장을 개설하여 일인에 대항하는 한편 오랜 토착지주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상업을 진흥시켜 일인에 의해 잠식되어가는 이 고장을 살리고자 1908년 4월 15일 홍진섭, 홍민섭, 김홍선, 양성관, 신준희, 박재윤 등이 중심이 되어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에서 수원상업회의소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 6월 상업회의소에서 상업에 관한 지식, 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水原商業講習所를 부설하기에 이르렀다.⁶²⁾

이와같이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토착세력이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협동 단결하기에 이르러 그 여파는 모든 서민층에 파급되어 일인상품의 불매운동까지 전개되었다.

비록 야학이었으나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경영하던 민족교육기관으로 정치적으로 일제에 강점 당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살아 남기 위한 투쟁은 이 고장 선각자들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사학기관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1911년 「私立學校規則」에 이어 1915년 「改正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여 식민통치를 어렵게 하는 사학을 도태시키려고 악랄한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그뿐아니라 같은 해 7월 15일 「朝鮮商業會議所令」이 공포되면서 이 법령에 의한 새로운 상업회의소의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가 폐쇄되고, 이에 따라 상업강습소도 경영난으로 폐교의 비운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몇 사람인 유지의 열성으로 1916년 4월 27일 華城學校園이라 개칭하고 주학으로 보통과, 중등과, 고등과를 두고, 야학에는 초등과, 전수과를 두게 되었다. 이규재, 최상훈, 정준화, 윤용희 등이 교편을 잡았다.

1926년 2월 20일 홍사훈이 인수하여 같은 해 5월에 화성학원이란 교명으로 당국의 인가를 얻었으나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⁶³⁾ 현재의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62) 拙稿「水原地方의 青少年運動」,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자료집,
1990, pp59~60

이상으로 수원지방에 성립된 근대학교의 발자취를 개관하여 보았다.

그리고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일제하의 교육」은 본 畿専門化 제4집에 실린 필자의 글 「日帝侵略期의 華城教育」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글에 쪽수가 뒤바뀌고 脱字·誤字가 너무 심하여 읽기 힘드므로 편의상 正誤表를 불 였다. 끝. (畿甸文化 9집, 1992)

63) op.cit pp68~69

華城郡의 儒教

I. 儒教의 傳來와 發展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며 國子學을 세운 것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唐의 학교제도를 모방하여 〈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고, 백제는 고이왕 52년(285)에 王仁이 벌써 일본에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전하였으며, 신라는 비교적 늦은 신문왕 2년(682)에 〈國學〉을 세운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유교의 도입을 짐작케 한다.

당시 유학의 목표는 첫째로, 경전과 史記에 통달하여 정치나 법률 제도를 잘 알며 또 그것을 운용할만한 관리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詞賦와 문장을 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때의 유교는 內求的이 아니고 外求의이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단을 위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가로 신라의 설총·최치원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에 와서는 태조의 崇佛政策으로 유교는 발달하지 못하다가 성종 11년(992)에 國子監을 세우고 경학박사를 두어 유학을 장려하였으며, 문종 때 최충이 9齋를 두어 제생을 교육하여 유풍이 일어났으나 무인들의 집권과 전란으로 쇠퇴하였다. 그후 충열왕 때에 안향이 연경에 들어가 「朱子全書」를 입수하고 돌아와서 國學을 세우고 문묘를 중수하여 程朱學(성리학)을 수입하여, 백이정, 우도, 정몽주, 정도전 등의 유학자가 배출되었다.

조선시대는 崇儒政策이 국시로 정해짐에 따라 유학은 치국의 원리가 되었으며 중앙에 성균관과 사학을 두고, 지방에 향교를 건립하게 되니 유학이 융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선조 때에 우리나라 유학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니 이황과 이이가 가장 뛰어나 우리나라 유학사상 대표적인 유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점차로 순수한 학문보다도 학파를 형성하여 마침내 동인과

서인의 봉당으로 대립하여 당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 사상상 차지한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후 유형원에 의하여 이용후생의 도를 강구하여 경국제민의 술에 힘쓰자는 실학파가 출범하여 이익, 안정복,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홍대용, 정약용 등 의 학풍이 풍미했으나 모두 정계에 실권이 없으므로 그들의 사상은 활용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등에 가치있는 연구와 저술만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서세동점이 날로 심해지자 조정에서 양이배척의 쇄국정책을 썼으나, 문호개방의 기미가 보이자 전국의 유학자들은 斥邪衛正의 운동을 일으켜 외세를 배척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구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개화혁신의 공적보다는 도리어 장애물의 존재가 되었었다.

그 원인은 한말의 유교가 유신정신을 망각한 채 보수와 완고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조선시대는 정치가 곧 유교이고, 유교가 곧 정치이었으므로 불교도는 천시를 당하고, 천주교도는 학살 당하고, 동학교조는 사형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공자의 「足食足兵」이라는 가르침과 「臨戰無勇非孝」라는 상무정신을 소홀히 하고 문약에 훌렸기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등 국치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유교의 잘못으로 돌리는 자가 많은듯 하나, 유교의 본질이 그런게 아니라 당시 위정자들의 잘못이며, 또한 사화니, 사색분당이니, 사대주의니 하는 문제도 역시 집권자들이 유교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데서 연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왕가에서는 宗廟를 설치하고, 백성들은 家廟를 두어 조상을 봉사하고, 유림은 향교 이외에도 서원과 鄉祠宇를 지어 그들이 숭모하는 성현을 奉祀하였으니 그 수가 수백개소에 이르렀다. 그후, 고종 8년(1871) 3월에 사액서원 47개소만 남기고 전국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조상이나 先師를 제사함은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종교사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지만 같은 기독교인인 月南 李商在는 유교인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태어나게 된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는 미풍양속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와는 전연 그 정신이 다르다고 논평하였다.¹⁾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제는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經學院令)을 내려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만을 존속시켜 사회교화의 기능만을 담당케 하므로써 한국인의 사상적 성장과 정신적 통일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한편 유림의 반발을 우려하여, 明倫專門學校를 부설하여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5년 국권 회복후 전국 유림의 총의에 의해 관에 이속하였던 향교재산을 회수하고 경학원을 다시 성균관으로 환원 시켰다.

1946년 전국 유림의 결합체인 儒道會를 결성하고, 成均館大學校가 창립되어 유학정신에 의한 새로운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유도회는 각 시·군에 조직되어 있으며, 목적은 孔夫子의 도덕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윤리의 도덕을 바로 잡는 정신을 기르고 수신·제가·치국의 대도를 선포·실시케 하는데 있다.

유도회 사무소는 각 시·군 문묘에 두고 주로 향교의 운영, 유도진흥, 재산관리, 석전집행 등의 일을 맡고 있으며 문묘의 임원인 典校, 掌議, 都有司 등도 모두 시·군 유도회원으로 문묘의 임원을 맡고 있다.

석전의식은 춘·추로 2회에 걸쳐 2월과 8월의 첫 丁日에 제를 올리며 지금도 옛날의 방법대로 각 시·군 문묘에서 거행되고 있다.

II. 儒教의 起源과 教理

유교는 기원전 3~4세기경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孔子가 주장한 유학을 받드는 教로 시작되었다.

1) 京畿道, 경기도지 중, 1956, P.258

유학은 중국 고래의 정·교일치의 학문으로 민간의 도리와 통치자의 치세도를 깨우쳐 줌으로써 이상적인 君子國, 또는 君子道를 실천하려는 민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요·순을 祖述하고 옛 성현의 도를 집대성해서 易·詩·書·禮·樂·春·秋의 6經을 가지고 敎를 세우고 부터 중국 학계의 권위가 되었으며 후세의 학자들은 공자를 宗師로 하고 그의 언설을 祖述하여 子思, 孟子 등의 소설을 참조하여 4書(논어, 맹자, 중용, 대학) 5經(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을 경전으로 삼았다.

그 사상은 천명을 근본으로 하여 仁에 의해서 일관된 인도를 道로 하고, 도를 실행함을 德으로 삼고, 忠恕로써 이상의 도덕인 仁에 도달하고자 하며, 윤리상·정치상의 가르침을 논술하여 修己治人을 목적으로 하였다.

곧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를 상설한 것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각지의 정치, 사회, 제도, 문화 각방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회윤리와 가치관의 근거로 삼강오륜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또한 유교에 있어서 관혼상제의 예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각종 예속이 유교 윤리에 근거하여 가정과 사회 및 국가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다하였으며 국제관계도 유교예제에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교의 가장 오랜 전통이며 형태의 특징은 祭祀라 할 것이다. 이 제사도 사회적 신분계급에 따라 제약을 두었으니, 이것도 공동체 내부에서의 예의 기본기능인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즉 장자만이 제사를 지낼수 있고, 차자이하는 장자를 통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가족사회가 장자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근래에 서구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와 전통은 폐습이오, 봉건적 구제도의 유물로써 타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여 문물제도의 개혁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까지도 무분별하게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근대화라는 말이 마치 서구화를 뜻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끝으로 유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 이상의 존재나 來世觀에 대하여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유교가 종교이냐 학문이냐 하는 문제가 종종 거론된다.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聖人之心에 뒤따라서 유교의 사명, 목적, 방법을 밝힘으로써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유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사상의 중심으로서 종교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은 물론 인도적 인륜관에 따른 내세관으로 발전하여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조상숭배의 민족사상을 창출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온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華城地方의 儒教

유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지방에 언제 유교가 전파되었는지도 문헌상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득이 화성지방에 初創되었거나 또는 현존하는 향교, 서원, 鄉祠字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南陽 鄉校

(1) 鄉校 概觀

향교란 시골에 있는 文廟와 이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를 말하며,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 기관이다.

향교에는 文廟, 明倫堂 및 중국·우리나라의 先哲·先賢을 제사하는 동서양무(東西兩廡)·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庶類를 두고 보통内外兩舍로 갈라진다.

內舍에 있는 자는 内舍生이라 하고, 外舍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增廣生을 두었다.

향교학동인 校生의 수는 經國大典에 의하면 부·목에 90인, 두호부에 70인,

군에 50인, 현에 30인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종6품), 훈도(종9품) 각 1인이나 작은 군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校隸)가 속하고 있었다.

향교는 중앙의 四學과 같으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에 합격자는 生員 · 進士의 칭호를 받고 다시 성균관에 가게 되며 문과시에 응하여 고급관위에 오르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장으로 되고, 서원이 일어나게 되자 점차 쇠퇴하여졌다.

고종 31년(1894)에 과거제도의 폐지로 향교는 이름만이 남아 문묘를 향사할 따름이었다.

(2) 南陽 鄉校

①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6리 335번지

② 연혁 개요

조선 태조 6년(1397)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위치는 南陽府 陰德面 驛谷(역골)이니 현 남양중 · 종합고등학교가 자리한 곳이다.

고종 10년(1973)에 현 위치로 校官(鄉校)을 이전하였다.

이전 당시의 건물은 大成殿 9間, 東 · 西廡, 東 · 西齋 4間半式, 內 · 外三門 3間式, 明倫堂 10間, 紅箭門, 守僕室 등이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4호로 되어 있는 남양 향교는 경사지에 자리잡아 前學後廟의 배치수법을 따르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內三門 안에는 文廟部인 大成殿과 東 · 西廡가 있고, 外三門 안에는 講學部인 明倫堂과 東 · 西齋가 있으나 현재 남양향교는 공자등 성현의 위폐를 모신 맞배집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로 좌 · 우에 방풍판이 있으며, 方形石柱形 초석 위에 건립한 정면 3間, 측면 3間인 大成殿과 東 · 西齋가 있다.

③ 南陽 鄉校 奉安位

대성전에는 5聖位 즉 중앙에 南向으로 孔子(BC 552~BC 479), 西向하여 顏子 · 子思, 東向으로 曾子 · 孟子를 모신 외에 孔門 10哲과 宗朝 6賢을 봉안하

고, 東·西무에는 우리나라 先賢 18位 즉 東從亨으로 薛聰, 安珦,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金長生, 安浚吉의 9위를 모시고, 西從亨으로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彥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의 9위를 봉안하였다.

儀禮는 매월 삭망일(朔望日 :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의 焚香禮와 매년 춘추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 : 丁酉, 丁未, 丁申등과 같이 日辰의 天干이 丁으로 된 날)에 釋奠儀式을奉行해 왔다. 그러나 諸行은 無常하여 그후 동무와 서무가 없어지고, 교육제도도 개혁되어 學政이 분리되고, 향교에서는 祭政과 敎化만을 계승하게 되었다.

1949년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비교적 옛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大成殿에 5聖位와 宋朝 2賢(程顥, 朱熹), 그리고 우리나라 18賢位를 봉안하고 기타 중국 儒賢 14위를 매안(埋安 : 신주를 묻음)하였다.

또한 春秋釋奠을 폐지하고孔子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석전을 봉행하기로 하였는 바 1986년부터는 음력 8월 첫 丁日에만 시제를 드리고 있다.

④ 重修 内容

- 가. 1933년 수원군 학교비와 지방유림 부담으로 대성전을 단청하였으며, 명륜당, 동재, 내삼문, 외삼문, 수복실, 원장(垣牆 : 담)등을 보수하고, 서재를 개축하였다. 그러나 동·서무와 홍전문(紅箭門 : 홍살문)은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명륜당은 1973년에 멸실되었다.
- 나. 1976년 화성군수 윤용우가 도비와 군비로 대성전 및 내삼문을 보수하였다.
- 다. 1980년 화성군수 이재원이 군비로 홍전문을 중건하고, 외삼문을 개축하였으며, 원장 70間을 축조하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
- 라. 1981년에는 원장과 동재를 보수하였다.
- 마. 1983년에는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 바. 1985년에는 서재와 내삼문 및 계단을 보수하였으며, 대성전 단청을 새로하였다.

⑤ 남양 향교 현황

남양향교는 남양리 마을 후면 경사지인 文坂峴 左麓 乾坐(서북방을 등에 지고 앉음)에 위치하여 눈에 잘 띄며, 입구의 몇몇 민가를 제외하면 주변 경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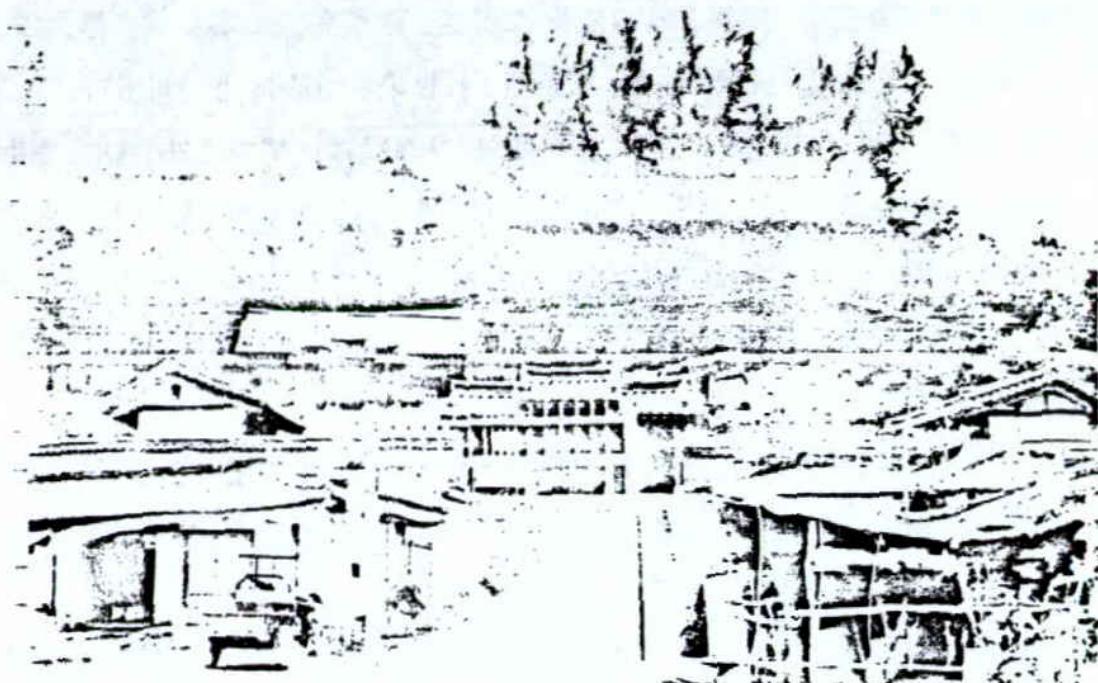


사진 1 <남양 향교 전경>

매우 아름다운 편이나 입구 민가들의 형태가 전통양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다소 아쉽다. 사진 1)

입구에는 下馬碑가 있으나 파손되어 3자중 碑자가 없어진채 앉아 있으며, 바로 뒤에 1980년에 중건한 홍살문이 위풍있게 서 있다. 사진 2)

홍살문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돌 계단을 오르면 소슬삼문 형태의 外三門에 이른다. 1933년에 보수하고, 1980년에 개축하였다. 사진 3)

외삼문을 들어서면 明倫堂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된 24평 건물이었으나 1973년 붕괴되어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며 方形石柱形 초석만이 남아 있다 ($56\text{cm} \times 63\text{cm}$, 높이 41cm) 사진 4)

명륜당 좌우에 東·西齋가 있다. 동재는 <日新齋>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현재 관리인이 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면적은 7.75평(25.56m^2)이고, 막돌 허튼층쌓기 기단위에 덤벙주초가 있으며 方柱이다. 바닥은 흙이며, 마루퇴간이 있다. 무늬목 천장이 있으며 맷배지붕의 민도리집으로 防風板은 없다.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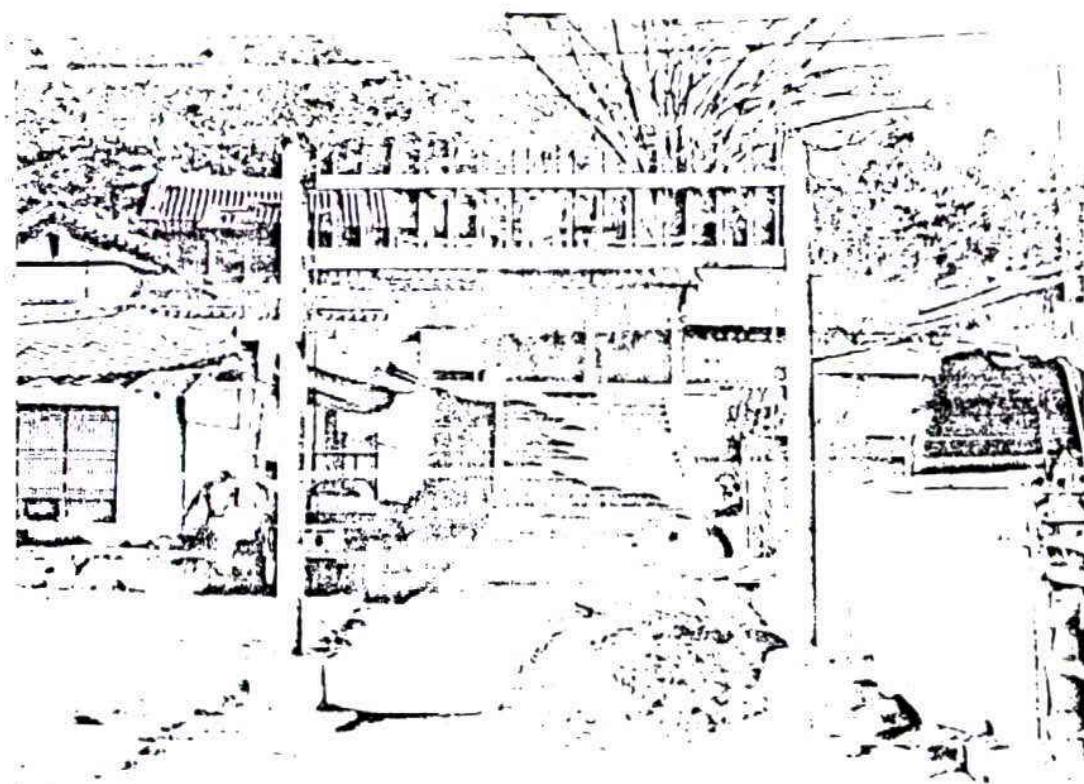


사진 2 <下馬碑와 紅箭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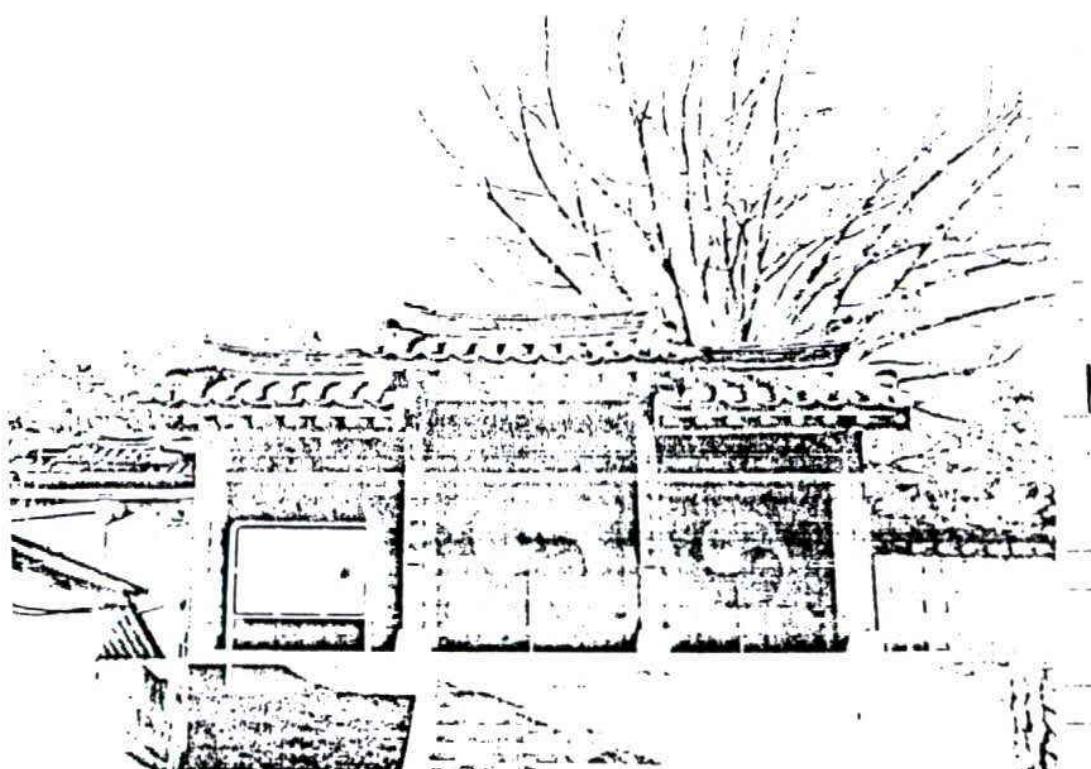


사진 3 <外三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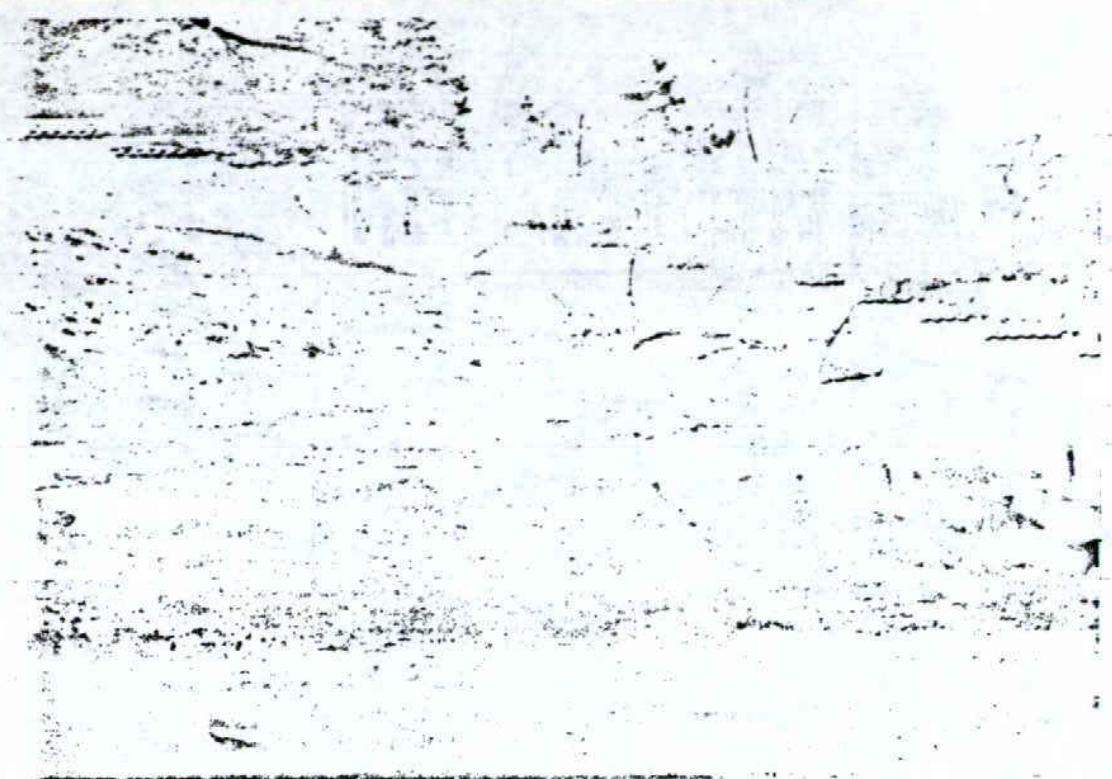


사진 4 <明倫堂터에 남은 碩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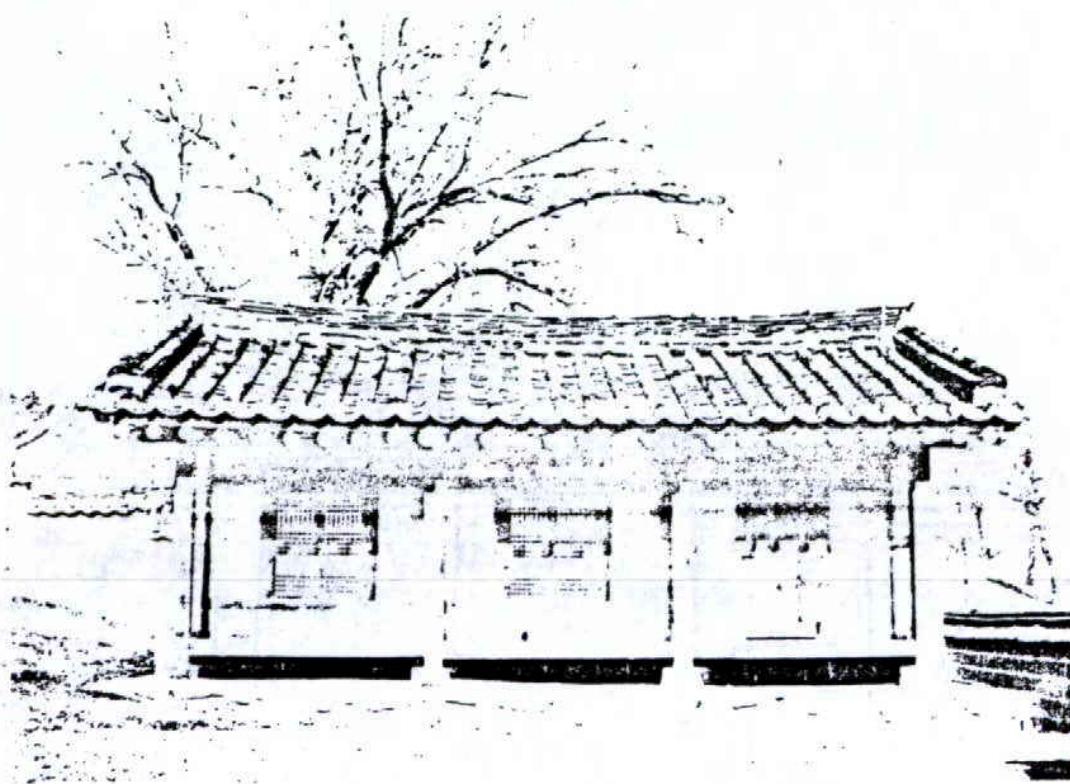


사진 5 <日 新齋> (東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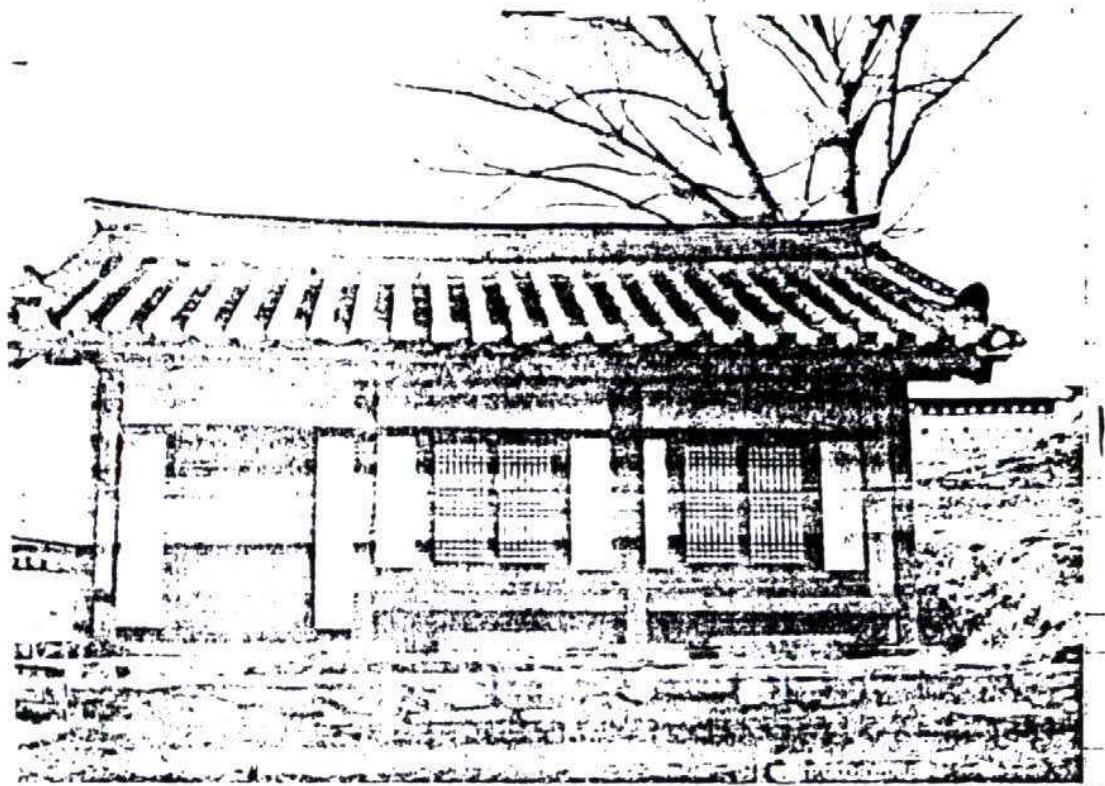


사진 6 〈西齋〉

1993년과 1981년에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재는 동재와 외관 및 구조가 유사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 면적은 6.30평 ($20.80 m^2$)이다.

1933년 개축하였으며, 1985년에 보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진 6)

명륜당터의 좌측으로 계단을 오르면 소슬삼문으로 된 內三門에 이른다.

1933년과 1976년, 그리고 1985년에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 7)

內三門을 들어서니 그 옛날 경건하고 엄숙한 제전이 봉행되었던 동무와 서무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으나, 다행이 본전인 大成殿은 옛모습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다. 1933년에 단청을 하고, 1976년과 1983년에 보수하였으며, 1985년에 새로이 단청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 8) 기단은 장대석 바른층쌓기이고, 정평주초위에(퇴간은 장초석), 원통형 木柱가 있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있으며 연등천장에 2익공집이다. 퇴간의 보아지가 양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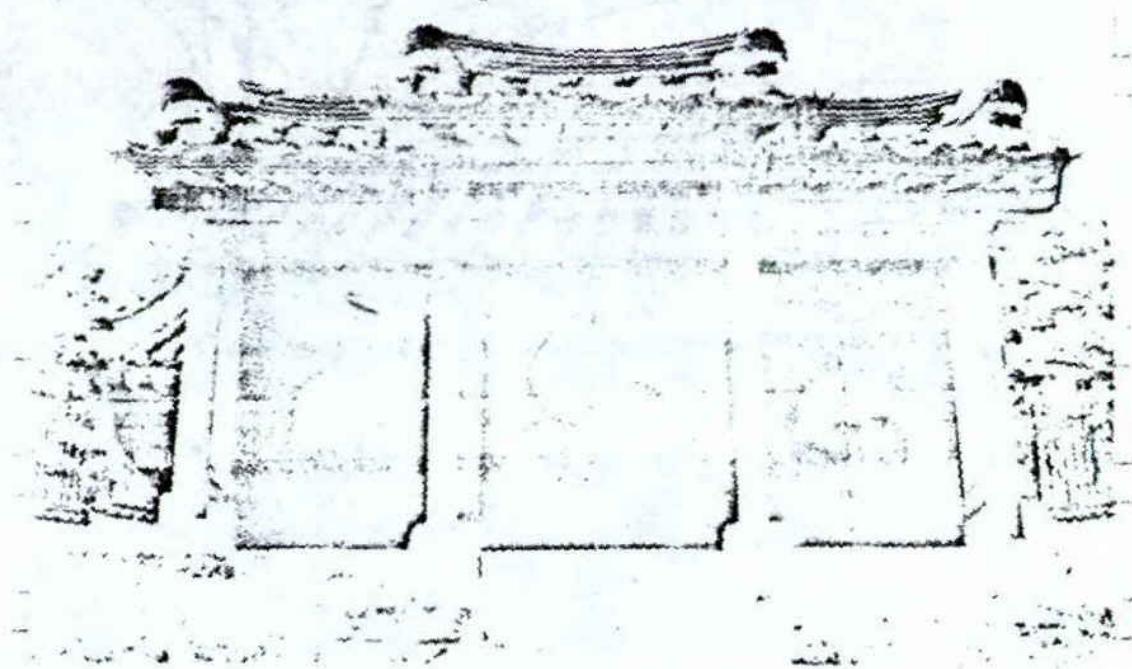


사진 7 <內三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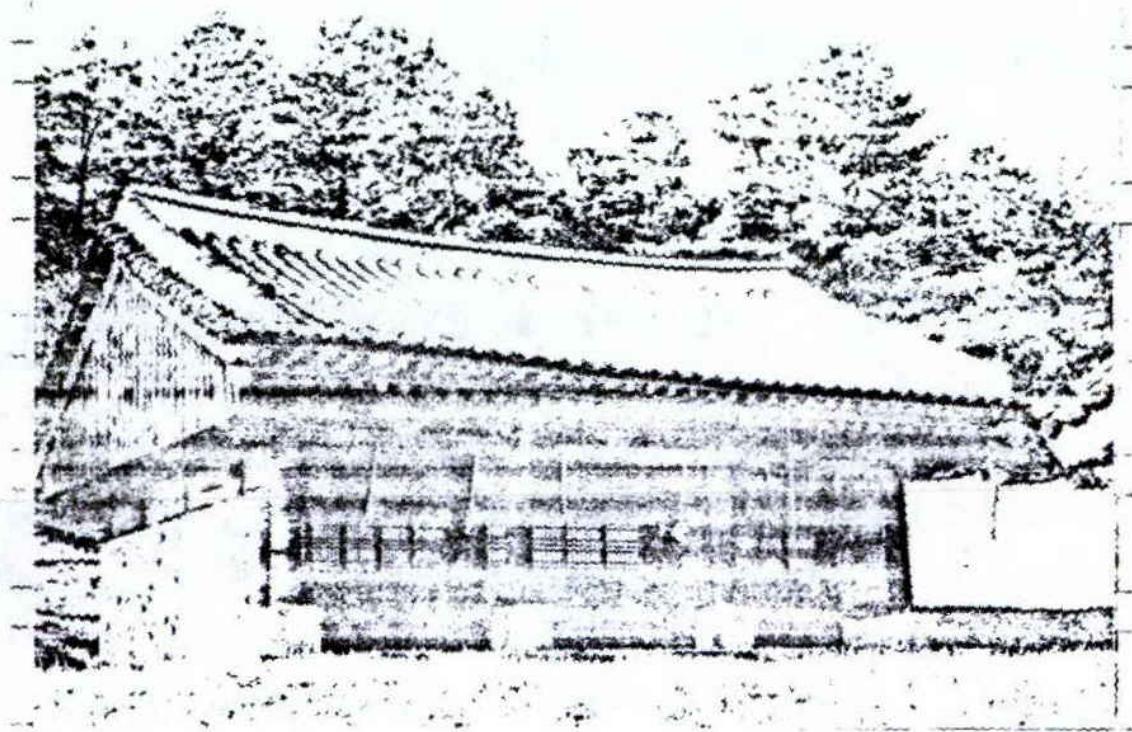


사진 8 <大成殿>

장식되어 있다.²⁾

⑥ 南陽鄉校의 特徵

가. 배치 - 풍수설에 의한 경사지 배치의 전형적 양식을 갖고 있으므로, 講學空間과 祭享空間이 건축물에 의하지 않고 지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있다.

나. 평면 - 大成殿은 전면에 퇴간이 있고, 전면 3칸짜리에 3개의 수분합문으로 처리된 전형적 형태를 갖고 있다.

비슷한 규모와 양식중에도 뒤마루나 개구부에 변화를 가미한 東齋(日新齋)와 西齋등의 평면구성이 특이하다.

다. 立面 - 동·서재의 입면구성이 아름답다. 대성전은 퇴간의 주초가 방형 장초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입면구성이 짜임새 있고 아름답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라. 구조 - 2익공(翼工)에 柱頭도 2개로 되어있고, 퇴간의 보아지(작은 집에 있어서 들보 구실을 하는것) 초각(峭刻 : 돈을 새김)이 되어있는등 섬세한 장식기법등이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³⁾

⑦ 祭官

가. 初獻官 - 1인(지방관서장)

나. 亞獻官 - 1인(전교 : 典校)

다. 終獻官 - 1인

라. 分獻官 - 2인

그러나 종현관과 분현관은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른다.

⑧ 南陽鄉校 管理者 및 任員

1947년 향교제도가 개혁되어 成均館職制로 文廟直員을 鄉校典校로 개칭하였다.

가. 남양향교 관리자 전교 洪性學

나. 화성군 유도회 지부장 安世榮

2) 자료제공, 남양종합고등학교 洪道義

3) 京畿道鄉校書院建築調查報告書

다. 남양향교 총무 洪太鎮

2) 安谷書院

(1) 서원 概觀

연산군 이후 계속되는 사화로 인하여 특히 己卯士禍 이후로 사류들의 사기는 극히 저하되어 이들은 정계를 등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를 떠난 학문을 위한 학문에만 열중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즉 그들 권위있는 선비들은 향리에 은거하여 각기 문호를 열고 學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같은 추세로써 先儒의 연고지에 서원을 사설하고 先賢에 대한 추모와 奉祀의 명분을 세우고 유생의 강학, 집회소로 삼는 풍습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향교가 국립교육기관인 동시에 文廟配享을 본뜬 것이라면, 서원은 1인의 名儒를 祭享하는 민간 사학기관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 36년(1541) 풍기군수 주세봉이 順興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安珦-安裕)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白雲洞書院이라 한것이 최초의 본격적 서원이었다.

명종 5년(1550)에 이퇴계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紹修書院이라는 간판을 하사하고 책·노비·田結 등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賦額書院의 시초이며 때마침 황폐되어 가는 향교에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설치되었다.

이리하여 서원은 양적으로 증가할뿐 아니라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 되어 서원의 토지에는 조세를 과하지 않았고, 또 양민이 院奴가 되어 軍役을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학문을 공부하는 대신 朋黨에 가담하여 당쟁에 골몰하고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하여 양민을 괴롭히는 폐단도 생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인조 22년(1644)에는 서원설치를 허가제도로 하였고, 그후 역대 임금이 서원 정비에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섭정하자 고종 1년(1864)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 서원의 누설을 엄금하고 이듬해 5월에는 대표적 서원인 만동묘를 폐쇄하였다. 이와같은 대원군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원은 정비되고 47개의 서원만을 남겨 놓았다.

(2) 安谷 書院

① 소재지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585번지에 위치하며, 몇채의 민가가 있는 마을 후면 산 기슭 경사지에 자리 잡아, 앞은 田畠이며, 뒤에는 산림이 울창하다.

남장에 의한 경내의 구별은 없으나, 나무에 의해 측면 울타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연혁 개요

조선 현종 7년(1666) 남양현감으로 부임한 閔耆重이, 己卯名賢인 道源齋 朴世熹 선생의 유풍을 경모하고, 다음해 현위치에 安谷書院을 창건하여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한 것이 그 유래이다.

그 뒤 현종9년(1668)에는 도원재 선생의 사부이며 伯兄인 松村 박세훈선생 역시 기묘명현이므로 병향키로 하였고, 숙종 23년(1697) 남양 유생 한덕봉외 150여명의 陳章으로 영상 忍齋公洪進(洪遷)선생을 追亭향키로 하였다.

경종 1년(1721) 안곡서원으로 賦額되었으나, 영조 5년(1729) 疊設書院 철폐시 첨설서원으로 오인하여 撤額되었다가, 영조 16년(1740) 남양유생들이 非疊設書院임을 상소하여 復額되었다.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毀撤되었다가, 1976년 유림들에 의하여 사우를 중전하고, 세 분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사진 9)

향토유적 제1호로 되어있으며, 尚州朴氏判書公派 宗中에서 관리하고 있다.

③ 安谷書院 現況

앞의 콘크리트로 된 홍살문을 지나면 강당이 있으며, 그 뒤에 내삼문과 사당이 있다.

강당은 콘크리트 기단위에 정평주초를 두고 방주를 세운후 그 상부에 팔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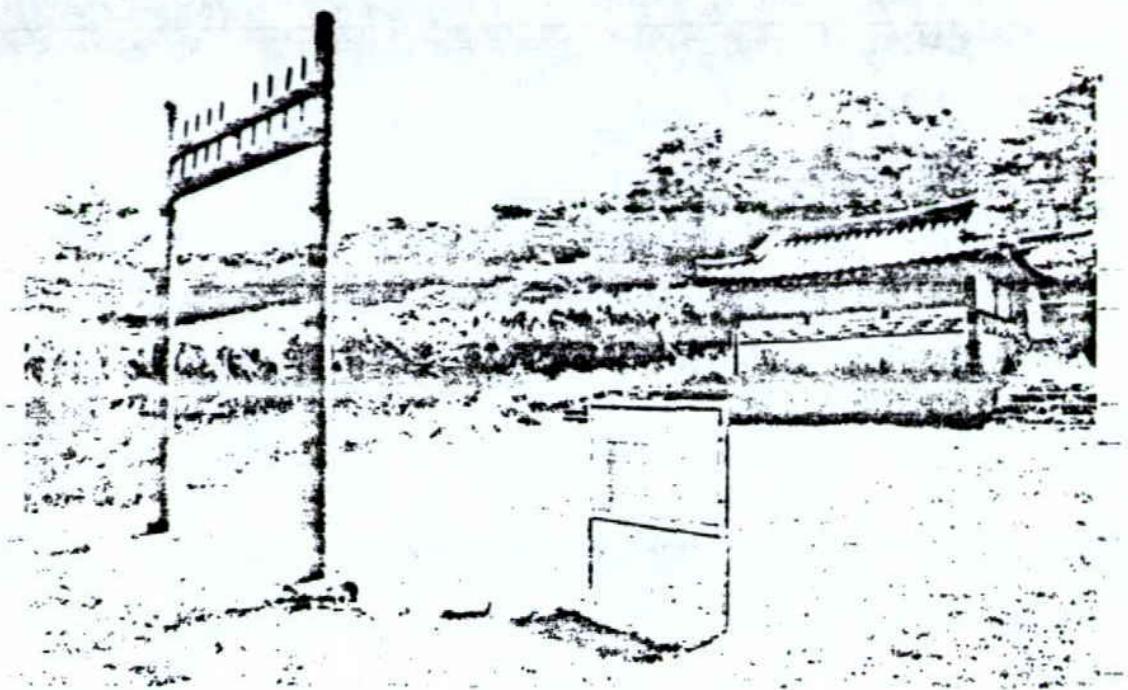


사진 9 <安谷書院 全景>

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민도리집이다. 그러나 벽체는 현대식의 시멘트 블록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하였다. 내부에는 「安谷書院重建記」「安谷書院重建上樑文」을 비롯한 몇개의 현판들이 걸려 있다.

내삼문은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흙쳐마 건물이다.

사당은 콘크리트 기단위에 정평주초를 두고, 方柱를 세웠으며, 바닥은 콘크리트이고 천장은 연등천장의 翼工집으로 맞배지붕에 방풍판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통양식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3) 關里祠

① 沿革

오산읍 궐리 147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水原郡邑誌에 의하면 '전에는 광덕면

에 있던 공자의 영정을 정조 계축년에 특명하여 남쪽 40리 거리 초평면으로 옮겨 세웠다. 어서로 현판을 내린 것이 있다. 신미년에 훼철되고 영정은 향교 대성전에 봉안되었다.⁴⁾

大同地志에도 '초평에 있으며 정종 계축년에 옮겨 세웠다. 어필로 된 현판을 걸었다.'⁵⁾

또한 華城關里誌에는 '정조 임자년에 특명으로 공자의 64세손 文獻公 瑞麟의 遺址인 華城府(古水原府正祖改名華城) 남쪽 40리 문공산 구정촌에 궐리사를 창건하고 廣德舊廟에 있던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

정조 창건이후 79년 되는 고종 신미년에⁶⁾ 祠院 重說處로 잘못 인정되어 廢撤령이 내려 廢撤되었다. ...

고종 경자⁷⁾ 7월에 중건하였다. ...

문현공이 구정촌에 서재를 세우고 제자를 모아 교수할 때 앞뜰 은행나무에 복을 걸고 문하제자들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깨우치며 가르쳤는데 공이 죽자 또한 은행나무도 죽었다. ...⁸⁾

이와같이 오산의 궐리사는 魯城(충남 논산군 노성면)의 궐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2대 궐리사 중의 하나로 정조 16년(1792)임자에 착공하여 다음해인 정조 17년 계축년에 준공되어 어필의 賦額이 내렸으며 공자를 봉사하고 있다.

어느날 정조께서 현옹원을 전배하고 이곳에서 멀리 바라보니 梧美부근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群鳥가 슬피 울면서 운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어 행차하여 보니 죽은 은행나무가 있었다.

삼감은 은행나무의 유래를 알아보고 그 유래대로 사당을 지어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게 하고 공자가 살던 곳인 魯國의 曲阜를 본따 關里祠라는 편액을 내리니 흘연히 은행나무 줄기에서 새싹이 나와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4) 水原郡邑誌, 1899. 祠院·關里祠 …特教移建于南四十里 楚坪面…

5) 金正浩, 大同地志, 1864. 祠院·關里祠 …在楚坪正宗癸丑移建…

6) 高宗 8年(1871) 辛未

7) 高宗 37年(1900) 庚子(光武 4年)

8) 華城關里誌, 1947. 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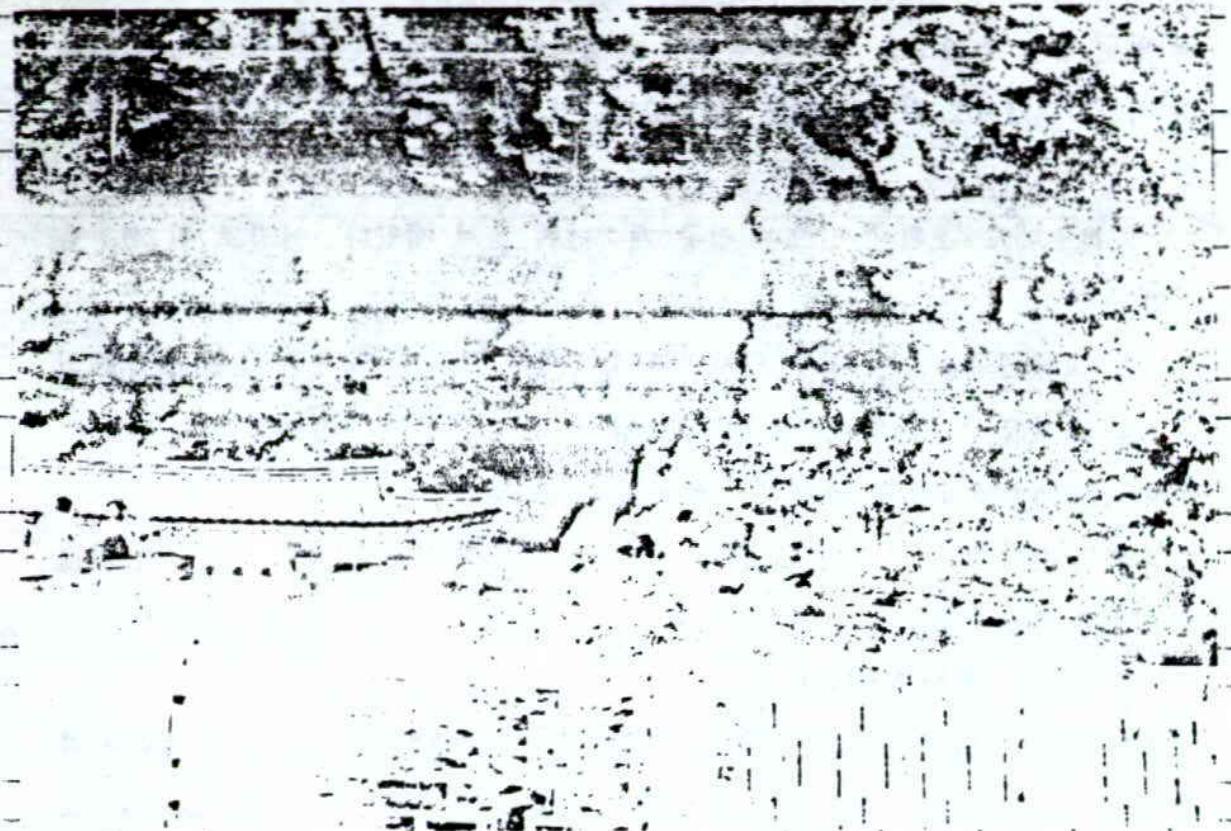


사진 10 〈關里祠의 은행나무〉

이로 인하여 이 곳 지명을 關里로 고치게 되었다.

② 現況

下馬碑가 있는 입구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유서 깊은 은행나무가 있다. 사진 10)

華城關里圖에 의하여 소슬三門 좌우에 明倫堂 터가 남아있고, 서쪽에는 강당이 있다.⁹⁾

소슬三門의 주위는 사고석담을 둘렀으며 삼문에는 聖廟라는 현판이 있다.

사진 11) 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祠堂이 있으니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翼工양식의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고 있으며 사진 12) 경내는 약 100평이다.

사당내 우측에는 고종 41년(1904)에 都約長 趙秉式의 7인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 聖蹟圖를 본따 제작한 것으로,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성적도가 보

9) 華城關里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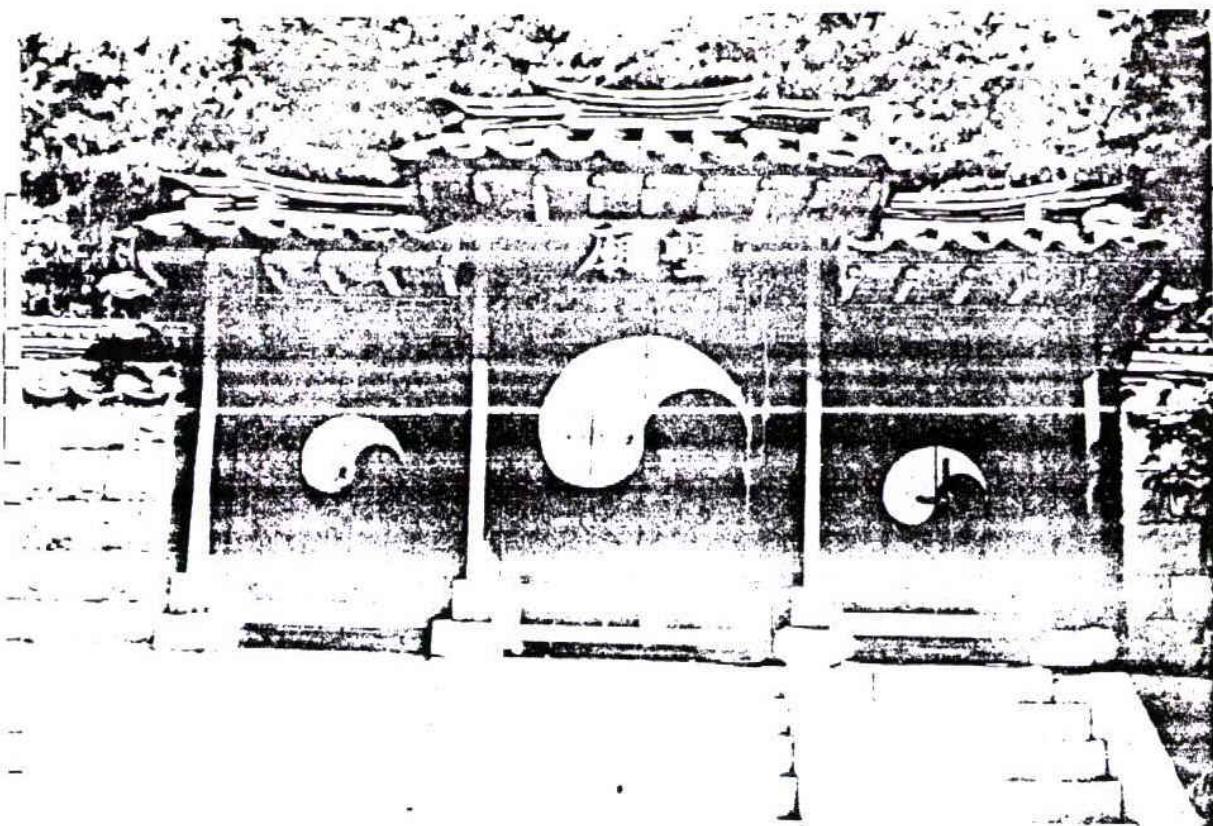


사진 11 <솟을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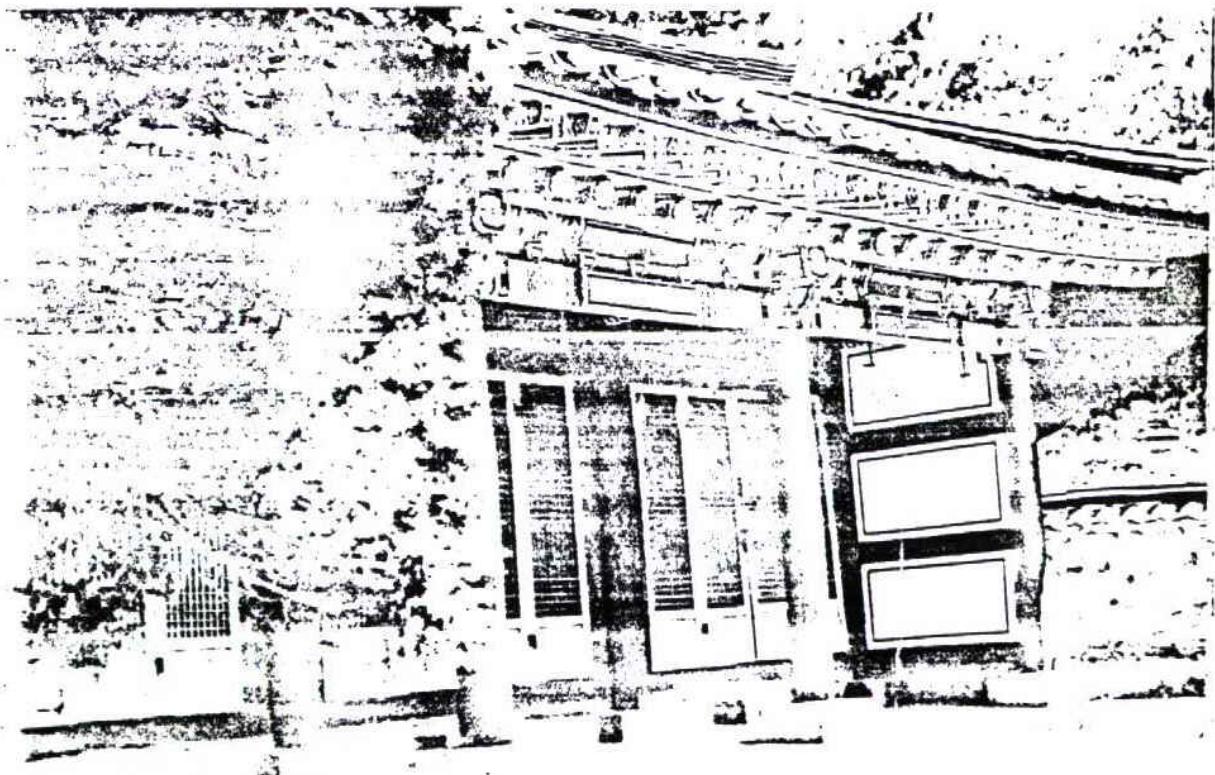


사진 12 <祠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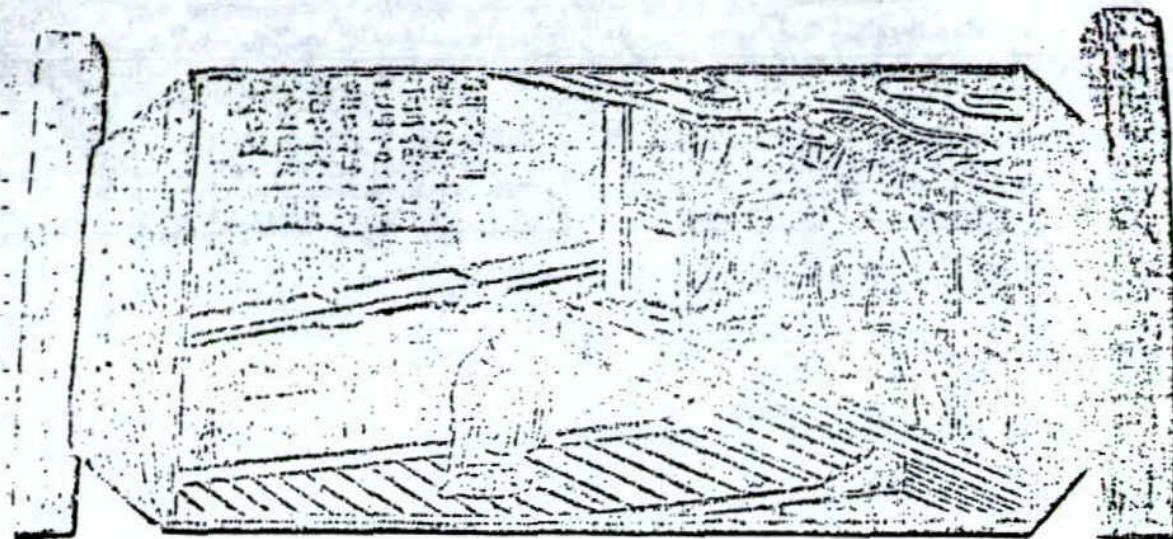


사진 13 〈關里祠聖蹟圖〉

관되어 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된 이 성적도는 도식의 구성이 매우 회화적인 것이어서 원근과 투시법 등이 잘 구사되어 있다. 木版은 피나무로 되었으며 길이 70cm, 너비 32cm, 두께 1.5~2cm 가량이며, 양쪽 끝에 나무를 깎아서 끼워 版木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 안에 새겨진 글씨는 1cm 정도의 작은 글씨로 정교하지는 못하나, 版張에 조각된 공자의 성적도는 비교적 섬세한 편이다. 사진 13)

③ 文獻公 孔瑞麟

華城關里誌에 보이는 孔瑞麟(1483~1541)은 조선 중종 때의 명신으로 字는 希聖 또는 應聖이고, 호는 休巖, 시호는 文獻이다. 본관은 昌原으로 縣令 義達의 아들이다.

중종 2년(1507)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 14년(1519) 승지 때 기묘사화에 관련되어 趙光祖 등과 같이 간혀 벌받기를 자청했으나 곧 풀려났다.

경기감사 때 기묘사화 당인의 무죄를 극력 주장했으며, 중종 33년(1538)에 大司憲, 이듬해에 황해감사가 되었다.

끝으로 孔夫子誕降 2498년(1947) 丁亥에 重刊된 華城闕里誌의 目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序 ○圖 ○世家 ○尊號
- 創建 ○廢撤 ○設壇 ○重建
- 影幀 ○笏記 ○祝文 ○陳設圖
- 祀品 ○備品 ○規則 ○祭文
- 歷史 ○事蹟 ○銘 ○歌章

(4) 金山祠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된 金山祠는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산104번지 彦昌마을 남쪽에 있는 사당으로, 김해김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당 주변은 수목이 우거져 풍치가 아름답다.

1912년 김해김씨들의 모금으로 선조인 김유신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으로, 설총과 최치원 선생의 위패도 함께 配享, 奉祀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6.5m, 측면 3.75m의 굴도리집으로, 圓柱形의 木柱가 세워져 있으며,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겹처마 건물이다. 「金山祠」란 현판이 달린 솟을삼문은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홀처마집으로 정면 5.87m, 측면 2.20m의 규모이다.

사당 밖에 걸린 「金山祠重修記」「金山祠記」 등의 현판 내용으로 보아 1912년 창건 이래 1935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4)

현재 봄·가을로 吉日을 택하여 1년에 두 차례 제향을 올리고 있다. ¹⁰⁾

(5) 明臯書院, 梅谷書院

水原郡邑誌에 의하면¹¹⁾

10) 京畿道, 鄉土遺蹟總覽, 1987, p.148

11) 水原郡邑誌, 祠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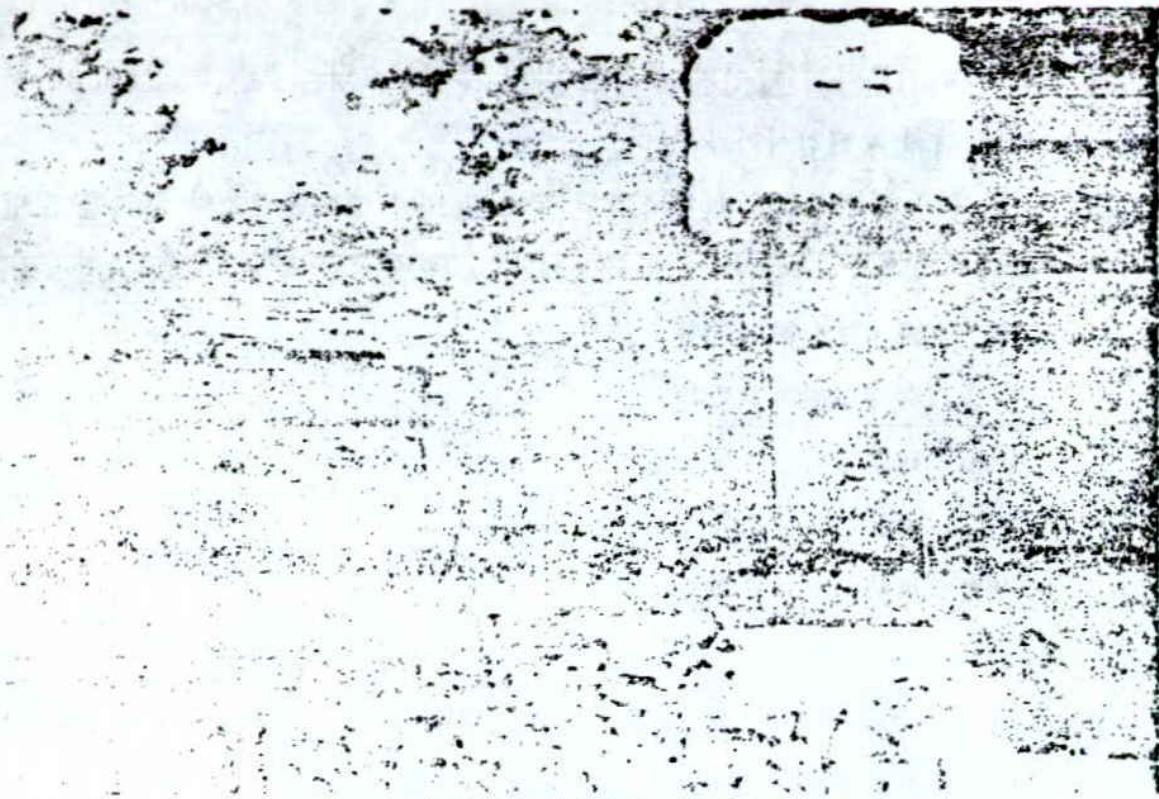


사진 14 <金山祠 全景>

明臯書院은 府의 서쪽 20리 松洞面에 있다.¹²⁾ 趙翼(1579~1655)이 主享이며, 浦渚의 아들 松谷 復陽(1609~1671)과 松谷의 아들 迂齋 持謙(우재지겸 1639~1685)을 配享한 곳으로 현종 경자년(1660)에 세우고 기유년에 賦額하였으며 신미년에 毀撤되었다.

新增文獻備考와 大東地志에도 대략 같은 내용이므로 약하기로 한다.

梅谷書院은 府의 서쪽 20리 梅谷面에 있으나 우암 宋時烈을 흠로 祭享하고 있다.

숙종 을해년(1695)에 세우고, 賦額하였으며 신미년(고종 8년, 1871)에 毀撤하였다.

그러나 大同地志에는 '肅宗甲戌建乙亥賜額...'이라 되어 있으며, 新增文獻備考 도 같은 내용이다.

12) 水原郡邑誌, 坊里條에는 '西距三十里'로 되어 있다.

즉 明臯書院은 현종 1년(1660)에, 梅谷書院은 숙종 21년(1695)에 각각 세워졌으나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둘 다 없어지고, 아직 복원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水原 鄉校

수원향교는 고려 충렬왕 17년(1291) 봉담면 와우리에 初創되어,¹³⁾ 조선왕조 정조 13년 己酉(1789)에 현 수원시 팔달산 기슭으로 옮길 때까지 약 500년간 유교의 지방 본산이 되었었다.¹⁴⁾

수원향교에는 중국의 5聖 2賢과 우리나라 18賢을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을 올리며 옛 성현의 威德을 추모하였으니 화성군에서 가장 오랜 유교의 본산이었다.

그후 조선 태조 6년(1397) 남양부 읍면 역골에 南陽鄉校가 세워지며, 水原 鄉校와 함께 화성군 유교의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

(7) 儒教의 華城郡 傳播

앞에서 본 바와같이 화성군에 初創되었거나 또는 現存하는 향교, 서원, 鄉祠宇 및 유적을 통하여, 이 지방에 유교가 어느 때 傳教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즉, 화성군에는 고려 忠烈王 17년(1291) 봉담면 와우리에 初創되었던 水原鄉校가 시초이며, 그후 약 100년 지나 조선 태조 6년(1397)에 전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南陽鄉校의 설립이 그 다음으로 되어있다. 이리하여 봉담면의 수원향교와 남양면의 남양향교가 兩大山脈을 이루며 발전된 것으로 본다.

또한 조선왕조의 崇儒政策으로 학풍이 진작하고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화성군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현종·숙종·정종시대에 유교가 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화성군에 儒教가 전파된 것은 고려 충렬왕대로 봄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삼국시대에 3국의 변방에 위치한 화성군은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정책상 세워졌을 護國寺刹로 3국을 통하여 일찍부터 佛

13) 第一章 教育 參照

14) 水原郡邑誌, 壇廟條 '鄉校己酉移建于府南三里許八達山之陽…'

教는 전파되었고, 이에 따른 非形式的 教育을 통하여 한문의 전파는 있었을 것으로 본다.¹⁵⁾

참고로 1987년 12월말 기준 文公部가 조사·발표한 宗教別教勢現況에 의한, 儒教의 신도수는 48만 3,366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1983년말 신도수 78만 8,956명에 비해 격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인구 대 유교의 신도비율은 83년말 1.98%에서 87년말에는 0.78% 포인트가 줄어든 1.21%이다.¹⁶⁾ 끝. (華城郡史, 1988)

15) 第1章 第1節 1. 佛教의 傳播와 비형식적 教育 參照

16) 서울신문, 1988. 6. 26. 文公部, 종교별 教勢現況 발표

華城郡의 佛教

I. 佛教의 傳來

신라 왕족의 후예요, 사대주의자였던 金富軾의 손으로 「三國史記」가 쓰여졌으므로 신라에 관하여는 매우 소상히 기술하면서도, 고구려나 백제에 대하여는 눈에 띄게 소홀히 다뤘으며, 더욱이 3국 초기에 신라보다 훨씬 강성했던 6伽倻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 버렸다. 그 위에 倭人이 《任那伽倻說》을 조작하여 자기네가 한국을 지배하였다고 억지를 쓰기 위해 또다시 金官伽倻를 비롯한 6伽倻國의 존재를 깔아뭉개 버렸다.

이리하여 駕洛佛教가 우리 佛教史에서 생략된 점이 매우 아쉽다.

그러나 一然스님은 「三國遺事」에서 마치 김부식의 흠을 씻어 주기라도 하듯이 伽倻國 특히 금관가야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해 놓았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을 「삼국사기」에 근거한 北方傳來說과 「삼국유사」에 의한 南方傳來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北方傳來說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AD 372)에 前奏王 符堅이 使者와 順道스님으로 하여금 불상과 경전을 고구려에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에 불교가 初傳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양국 사이에 공인된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梁高僧傳》에 의하면 東晉의 고승 支道林(314~366)이 고구려의 道人(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釋亡名으로 알려지고 있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支道林은 소수림왕 2년보다 6년전에 入寂한 고승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불교는 고구려에 公傳되기 전에 이미 전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流通年代는 公傳年代보다 약 100년은 앞서는 것으로 學界는 보고 있다.¹⁷⁾

2) 南方傳來說

駕洛國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해상무역으로 불교를 믿는 인도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信佛王이 되었고, 富와 勢를 누리면서 그 힘으로 세운 금관가야 즉 가락국은 이웃 신라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였다.

수로왕이 인도의 阿踰陀國 공주인 許黃玉을 왕후로 맞아, 그녀의 오빠인 寶玉 선사라고도 하는 長遊和尚과 함께 가락국으로 건너 올 적에(AD 48) 배에 싣고 온 「婆婆石塔」이 都城안의 호계사에 있는 것을 일연스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기록이 「삼국유사」塔像條에 있다.

또 수로왕이 首都를 정하면서 '여기 金官城이 비록 넓은 땅은 아니나 山勢를 둘러보니 16羅漢과 7聖이 住할 만한 곳이니, 首都로서 적당한 곳이니라'하고 16나한과 7성을 말하였음을 볼 때 당시에 이미 불교가 유포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⁸⁾

현재 김해에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초전한 長遊和尚이 住錫했다는 최초의 절인 長遊寺가 있으며, 浮屠와 紀蹟碑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장유화상의 渡來는 불교계와 김해지방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불교가 소수림왕 2년(372) 北方으로부터 초전되었다는 설에 비하여 약 300여년전 앞서는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다.

그러면 화성지방에는 언제 불교가 전파되었는지 문헌상의 기록이 없으나, 後述하는 현존 화성군의 고찰을 통하여 그 시기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II. 佛教의 教理

불교란 글자 그대로 「佛陀의 가르침」 즉, 「부처님께서 말씀한 가르침」이다.

17) 洪思誠, 世界의 佛教, 1987, 和南出版社, p.137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1959, 乙酉文化社, p. 576

'…그러나 高僧傳(卷四) 竺潛傳에 支遁道通林(314~336)이 高句麗 통인에게 書信을 보내어 竺潛을 賛稱한 것이 보이는데, 道林이 入寂한 해인 太和元年(366)은 소수림왕 2년보다 앞서기 六年이므로…'

18) 佛教新聞, 1985, 12, 11(白雲스님, 金海 佛母山 長遊寺)

여기서 부처님(佛陀)이라고 함은 불타 석가모니(釋迦牟尼, 佛)로서 釋迦는 불교의 「教主」이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설법 함으로써 성립한 종교다.

석가모니는 어찌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가,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생겨났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면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것을 염원하는 까닭이다.

결국 불교는 목적적으로 말한다면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다.

이 불교를 구성하는 세가지 기본 요소가 불·법·승이다.

첫째, 「佛」이란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교도 없었을 것이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은 것, 成道하여 부처님(깨달은 자, 覺者)이 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불교는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된 후에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석가모니의 가슴속에 갇혀 있다가 그가 죽음으로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불교」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석가모니의 설법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가 남긴 가르침「法」을 통해서만 이 깨달음의 진리「法」을 알 수가 있다. 이 「法」이 불교를 성립하게 하는 두번째의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또한 佛法은 가르침을 듣는 자와 불도를 실천하는 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가 되기 위한 道를 실천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僧伽라고 부르며 「僧」이라고 약칭한다. 이 집단이 없이는 제자에서 제자에로 불교가 상속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때 불교는 오늘에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僧」의 존재는 불교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것

水原의 宗教와 教育

을 세번째의 요소라고 부르는 이유다.

佛·法·僧 이 세가지 요소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의미에서 「三寶」라고 한다.¹⁹⁾

이와같이 불교는 인도의 迦毘羅國 淨飯王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생겨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적 종교이다.²⁰⁾

教理를 要約해보면

먼저 불교는 歸依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어느 특별한 초월적 절대자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모범적인 대상이었다.

즉 人間中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주의 入滅后 제자들의 손으로 교단이 결성되면서 석가가 말한 無神論的, 無祈禱的인 것이 많이 수정되어, 석가 자신을 부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것으로 숭배되었고, 또 여러가지 신격을 가진 諸佛의 신앙도 생겼으며, 뒤따라 종교적 의식과 戒律과 기도도 조직화되어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부처님은 고뇌에 가득찬 현실세계에서 자기를 구하고 중생을 解脫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人間苦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 수 있는 涅槃(열반:理想世界)의 세계에 이르도록 가르친 것이다.

이것을 苦·集·滅·道의 四聖諦와 正見·正思惟·正語·正行·正命·正勤·正念·正定의 八正道로써 설명하고 있다.

苦諦란 현실의 모든 것이 고통이며, 이것은 사랑, 미움,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과 같이 無常하다는 것이다.

集諦란 苦·集의 2諦에 의하여 고통과 그 원인을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解脫) 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滅諦란 苦·集의 2諦에 의하여 고통과 그 원인을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解脫) 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19) 佛教新聞, 1986. 7. 16(불교입문)

20) 金得槐, 韓國宗教史, 1973, 韓國思想研究所, p.89

道諦란 모든 고통을 없애고 여기서 벗어나 이상세계(涅槃)에 이르는 원인인 道法의 진상을 말한 것이다.

석가모니佛에 의하면 해탈의 방법은 快樂의 추구나 苦行의 어느 것도 아닌 中道에 있다고 說하시고, 이 中道라는 것이 팔정도라고 하셨다.

그리고 四聖諦와 八正道의 배후에 있는 원리는 「因緣法」이라고 하였다.

因緣法이라는 것은 우주의 萬物 · 萬象 · 육체적 · 정신적 모든 일이 직접원인으로서의 因과 간접원인으로서의 緣이 그지없이 얹히어 生成되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곡식은 씨라고 하는 因만으로는 되지 않은 것과 같이, 이 밖에 밭 · 물 · 일광 · 노력이라는 緣이 없으면 곡식은 얻을 수 없다.

사람의 행위도 이 因緣法에 의하여 좌우되어 「業」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業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因緣法에 지배되어 3세에 각각 결과를 낳고 원인이 되어 영원히 연속한다는 것이다.

이 因緣法의 대표적인 것이 12인연으로

- 1) 진리를 알지 못하는 「無明」의 인연으로 行 즉 業을 낳으며
- 2) 육체 행위의 근본인 「行」의 인연으로 識을 낳으며
- 3) 정신계의 작용인 「識」의 인연으로 名色을 낳으며
- 4) 有形의 세계인 「名色」의 인연으로 六根 즉 六處를 낳으며,
- 5) 의식의 대상계인 「六根」은 외계와 접촉하여 觸을 낳으며
- 6) 感官知覺의 세계인 「觸」은 苦樂의 감각 즉 受를 낳으며
- 7) 대상계와의 교섭인 「受」는 사물을 탐애하는 愛를 낳으며
- 8) 대상계에의 매착인 「愛」의 인연으로 사물에 대하여 집착하는 取를 낳으며
- 9) 대상계에의 집착인 「取」의 인연으로 선 · 악의 업을 가진 有를 낳으며
- 10) 유형 · 무형의 실재인 「有」는 다시 전개하여 生을 낳으며
- 11) 구체적 인생인 「生」의 인연으로 반드시 「老 · 病 · 死」의 고통스런 결과를 받는다고 말하였다.²¹⁾

21) 金得槐, 전계서 P.95-96.

III. 華城郡 佛教宗團 現況

1983년 12월말 문공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 전체 종교인구는 1,558만 7,619명으로 당시 인구 3,966만 9,895명의 32.29%를 차지하고 있다.

2) 이 가운데 불교도가 750만 7,059명으로 인구의 18.92%에 이르고 있다.

3) 종교인구중 불교가 48.10%, 개신교가 34.24%, 천주교가 10.2% 기타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후 1987년 12월말 기준 문공부가 조사·발표한 宗教別教勢現況은 '우리나라의 宗教人口는 1,720만 3,296명으로 총인구대비 42.56%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83년말 宗教人口 1,558만 7,619명에 비해 17%인 261만 5,677명이 더 늘어났다. 종교별 신도수는 佛敎가 805만 9,624명으로 가장 많다.

총인구 대 종교별 신도비율로는 佛敎가 83년말 18.92%에서 1.02% 포인트가 성장한 19.94%를 차지하고 있다.²²⁾

4) 현재의 한국 불교는 18개 종단, 5,680개 사찰, 12,693명의 승려가 재직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화성군에는 7개 종단, 33개 사찰에 28,773명의 신도가 불교에 귀의하고 있음이 필자의 조사로 밝혀졌다. 그러면 종단별로 그 연혁과 종지(宗旨)를 살피고, 소속 사찰의 현황을 통하여 교세를 보고자 한다.

1) 大韓佛教 曹溪宗

(1) 연혁

대한불교 조계종은 고려때 보조국사가 선종을 창시한 데서 비롯한다.

선종은 처음에 조계·천태 양종이 있었으나 조선왕조에 들어와 8道都總攝制度로 선종과 교종이 통합되고, 임진왜란 뒤에 南北總攝制度로 선종과 교종이 다시 양분되면서 선종은 曹溪·天台·摠南宗, 고종은 華嚴·慈恩·中神·始興宗으로 따로 종단을 이루게 되었다.

1911년 일제 총독부는 전문 7조로 된 「사찰령」을 내려 불교를 식민통치에 이

22) 서울신문, 1988. 6. 26. 문공부, 종교별 교세현황 발표

용하려고 한국불교를 연합하여 31本山제도를 형성하고 31개 교구로 나누어 선·교 양종의 명칭을 사용하더니, 1914년에 이 양종을 통합하여 太古寺에 총본산을 두고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단일화하였다.

그러나 일제때의 한국불교의 포교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도시에는 포교당이 설치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에 中央學林과 지방에 地方學林이 설치운영되었다. 1928년에는 中央學林을 中央佛教專門學校(현, 동국대)로 승격시켜, 고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호국사상에 투철한 불교도들은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국내·외에서 조국광복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었다.

그 후 1945년 조국이 광복되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다시 개명하고 종정에 朴漢永스님이 추대되었다.

그러나 1954년부터 1962년까지 比丘와 帶妻사이의 불교정화운동(분규)으로 뼈를 깎는 진통을 겪더니 1962년 4월 12월 양파의 노력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을 발족하고 25교구 本寺制度를 실시하였다.

화성군은 제2교구에 속하여 본사는 태안읍 송산리에 있는 花山龍珠寺이다.

이리하여 1962년 12월 14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불교단체를 등록하였다.

이와같이 비구와 대처의 양파는 單一宗의 구성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치열한 분규는 마침내 1970년에 대처측에서 太古宗을 創宗하게 되어 우리나라 불교는 비구의 조계종과, 대처의 태고종으로 양분되었다.

이로부터 선·교 양종에서 새로운 宗旨를 내세운 신흥불교가 16종파가 생겨 현재의 한국불교는 18개 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宗旨

불법에 귀의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널리 퍼서 그 법을 원만히 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본종은 신라 道義國師가 창시한 迦智山門에서 기원하여, 고려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 석가세존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直指人心·見性成佛·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고 하였다.

所依經典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하여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송주등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승려는 具足戒와 보살계를 받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기어 수도하는 자이며, 신도는 在家五戒 또는 보살계를 받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겨 불·법·승 三寶를 護資하여 宗旨를 信受奉行하는 자로 하고 있다.

본존은 석가모니佛이나 종전부터 석가모니佛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은 그 관례에 따른다고 하였다.

(3) 종단 기구

중앙宗政기관인 총무원과 감사기관으로 감찰원,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으로 中央宗會가 있다.

사찰은 본사와 본사에 소속된 말사가 있으며, 본사 주지는 총무원의 直任職이며 말사 주지는 본사 주지의 粟任職으로 되어 있다.

현재 조계종 종정은 李性徹 큰스님이며 총무원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다
1979년 10월말 현재 전국 교세는 1527개 사찰에 승려가 남자 8,661명, 여자 5,239명 계 13,900명이고 신도수는 489만 6,094명이다. (前述한 1983년과 1987년말 文公部 발표 참조)

이 가운데 경기도의 교세는 187개 사찰에 승려가 1,037명이고 신도수는 54만 9,456명으로 나와있다.²³⁾

끝으로 본군내 조계종 사찰을 화성군 문화공보실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다.

사찰명	소재지	면적		주지		교직자	신도수			창건년도
		건물	부지	성명	성별		남	여	계	
1. 용주사	태안읍 송산리 188	11/1,234	23,893	서병식	남	30			15,000	7,000 8,000 AD 844
2. 세마사	오산읍 지곶리 150	3/1,483	990	강도광	남	1			350	50 300 삼국시대
	오산읍 오산3리 442	1/66	.	남향문	남	1			180	49 131 80.5.20
4. 수리사	반월면 속달리 329	8/230	826	심상희	남	1			450	115 335 1955

23) 京畿道, 京畿道史 第2卷, 1982 p.1116

5. 흥법사	봉담면수기리34	1/164	2,805	고금순	여		1	160	60	100	1940
6. 화엄사	비봉면삼화3리63	1/162 ⁵⁶	991	안용일	남	1		32	2	30	1975
7. 봉림사	남양면북양리642	4/214	1,361	조병영	남	1		650	219	431	1942
8. 신흥사	서신면상안리산42	4/661 ⁸³	3,290	오혜전	여		4	5,000	2,200	2,800	1935.2.2
9. 흥법사	서신면홍법리산1	3/237 ²⁸	659	주옥희	여		2	60		60	1927
10. 봉래사	우정면화수리830	5/304	200	김혜순	여		1	60	25	35	1919
11. 관음사	우정면한각리27	1/238	150	박환영	여		1	140	50	90	1984
12. 만의사	동탄면중리140	6/1,213	1,659	김임호	남	3		1,700	600	1,100	1970.4
13. 천석사	향남면관리산141	2/97	264	이정례	여		1	56	18	38	1962.4
14. 수월사	봉암면와우리8-13	1/216	4,950	이상하	남	3		1,602	300	1,302	1877
15. 수월선원	오산읍가수리159	1/79	443	가무일	남	1		100	10	90	1985.12.29

2) 韓國佛教 太古宗

(1) 연혁

한국불교 태고종은 太古晋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1970년 5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分團하여 창종하였다.

역대 종정으로는 제1세 朴漢永, 제2세 方漢岩, 제3세 · 4세 宋曼庵, 제5세 · 6세 · 7세 鞠默潭, 제8세 · 9세 朴大輪, 제10세 鞠默潭, 제11세 鄭斗石 큰스님을 이어 현재 安德庵 큰스님이 종정으로 法脈을 잇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 태고종이 분종된 이후부터의 종정계보는 제8세 · 9세 종정을 역임한 朴大輪스님이 제1세 종정이 된다. 그러므로 제7세 종정까지는 현 조계종과 같으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2) 宗旨

종지는 조계종과 별로 차이가 없으니 태고종 종현 제2조에 '석가모니佛을 教祖로 하며,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한다'고 규정하고, 종현 제3조에는 '석가세존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太古宗祖의 종풍을 선양하여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宗統을 宗憲 제4조에 명문화하였으니 '신라 현덕왕대 道義國師로부터 연원된 迦智山門의 법통을 이어 받은 고려 공민왕때 태고보우국사의 諸宗包攝에 의한 불법중흥의 圓融宗風을 宗統으로 삼아 그 法脈을 清虛와 浮休를 거쳐 이후 연연히 계계승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所依經典도 조계종과 대동소이하여 금강경과 화엄경으로 하되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지송등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3) 현황

1982년말 문공부 종교편람에 따르면 사찰이 2,294개, 승려수 3,245명, 신도수 350만 8,475명에 해외신도가 1만 266명이란 교세를 가지고 있다.²⁴⁾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사찰이 298개, 승려수 329명, 신도수 471,198명으로 되어있다.²⁵⁾

종단 기구는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총무원, 감찰원, 중앙 종회가 있으며, 총무원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다.

특히 태고종은 한국 불교종단중 유일한 通佛教 宗團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종파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禪·敎·密·法華·觀音·彌陀·淨土 등 제종을 포용, 원효스님의 和諍사상, 태고보우국사의 圓融無碍정신에 의한 通佛教신앙, 서산·사명의 호국불교정신,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 사상을 근간으로 자아완성과 大乘行願의 교화 종단을 지향함'을 宗綱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화성군의 태고종단 사찰을 화성군 문화공보실의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

24) 文日錫, 역사와 시대의 產物, 太吉宗·佛教思想 7, 1984. p.214

25) 京畿道史 第2卷, 1982. p.1116

면 다음과 같다.

사찰명	소재지	면적		주지		교직자		신도수			창건년도
		건물	부지 (m ²)	성명	성별	남	여	계	남	여	
1. 반야암	오산읍수청3리42	3/101	495	김복실	여		1	154	32	122	1975.8.30
2. 일광사	매송면천천리21	4/144	1,538	유길진	남	1		50	10	40	1972
3. 천광사	봉담면세곡리84	1/78	806	박순균	남	1		200	30	170	1975
4. 수도암	팔탄면매곡리산2	1/106	309	강형식	남	1		75		75	1915
5. 장안사	장안면장안리산25	1/60	1,000	김종태	남	1		151	51	100	1960
6. 개원사	장안면사랑리산30	1/24	1,000	이강래	남	1		180	70	110	1980.1
7. 보덕사	우정면이화리530	1/62 ²	300	황인현	남	1		100	32	68	고려말
8. 화운사	우정면멱우리516	1/98 ²	100	전대원	남	1		300	125	175	1873
9. 칠성암	향남면장집리산59	2/120	1,000	민선화	여		1	37	11	26	1972.3

3) 大韓佛教 法華宗

(1) 연혁

오랫동안 법화사상의 불모지였던 한국불교에 다시금 법화계가 등장한 것은 1920년대의 일이다. 법화사상에 뜻을 가진 인사들이 모여 법화계의 재흥을 모색했다. 해방전까지 몇 개의 신행단체가 나왔으나 유명무실하다가 1945년 12월에 大乘佛教法華會가 구성되었으니 법화계 최초의 종문이다.

그러나 지도층간의 갈등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여, 대승불교법화회가 구성된 이후 23년간을 수없이 모이고 갈라지다가 결국은 分宗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즉 대승불교법화회라는 한 종문에서 남파와 북파로 분파되고, 다시 일승회, 현정회, 정각회로 분회된 후,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대한불교 불입종, 대한 불교 일승종(등록순)으로 분종된 것이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대한불교법화종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창종주 金甲烈스님은 대승불교법화회 때부터 참여한 유일한 여성으로, 남부파에 속하였으나, 1956년 자신이 세운 성북동 無量寺에 대한불교正覺會를 두었다.

그 후 몇 차례의 봉치고 헤어짐이 반복되다가 1969년 4월 8일 대한불교법화종으로 당국에 등록하였다.

(2) 현황

所依經典은 법화경이다.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한다. 법화경은 석존의 49년 교화중 마지막 8년간의 설법이다.

종단 기구는 종정 밑에 원로원, 총무원, 종회 등의 부서가 있다.

이 밖에 14개소에 지방종무원이 설립되어 있다.

宗正은 초대 김갑열, 2대 노정공스님을 이어 1987년에 신방우스님이 3대 종정에 취임하였다.

총본산은 무량사이며 초대 종정 김갑열 스님이 1946년에 창건하였다.

법화도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나무묘법연화경 … 나무묘법연화경 …'.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소리이나 법화종에서의 제목봉창은 곧 신앙의 상징이오, 수행의 비법이다. 즉 묘법연화경의 5자속에 불·법·승의 삼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경을 부르면 무한한 공덕과 함께 즉신성불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재 전국에 1600개의 사찰이 있으며 신도수는 300만이라고 한다.²⁶⁾

이 가운데 경기도에 사찰수 161이 있고, 승려는 220명이며, 신도는 13만 5,391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²⁷⁾

그리고 화성군 문화공보실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4개 사찰에 교직자가 4명이며, 신도수는 남·여 계 1,220명으로 되어 있다.

26) 李環雨, 나무묘법연화경의 신앙문·佛教思想 9호, 1984, p.189~

27) 京畿道史 第2卷, p 1118

사찰명	소재지	면적		주지		교직자	신도수			창건년도
		건물	부지(m ²)	성명	성별		계	남	여	
1. 보음사	오산읍양산리370	2/83 ¹	497	김백옥	남	1	170	54	116	83.12.2
2. 구룡사	오산읍서리산26	1/66 ¹	2.333	전영준	남	1	200	62	138	83.12.3
3. 철보사	반월면사사리산40	4/112	991	심광섭	남	1	500	150	350	1907
4. 원각사	동탄면신리산39	2/33 ⁷¹	1.652	곽홍석	남	1	350	130	220	69.7.2

4) 大韓佛教 總和宗

1) 연혁

대한불교 총화종의 전신은 總和會이다.

1960년 12월 比丘와 帶妻승의 분규가 한참인 무렵 불교계의 뜻있는 인사 5명이
화동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68년 6월 다시 회합하여 종파를 초월한 단체를 만드니 <總和會>의 결성이
다.

각 종파와 제휴하면서 通佛教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 운동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것을 느끼고, 1969년 12월 30일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고 1975년 1월
총화회에서 <大韓佛教 總和宗>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초대 종정으로 崔得淵스님이 추대되었으며, 總本山은 종로구 연지동의 福元寺
에 두고 조직을 꾸하였다.

그후 2대 변설호(1973), 3대 이장호(1974), 4대 조종현(1982), 5대 이장
호(1983)스님으로 법맥이 이어지고 있다.

(2) 宗旨

宗祖는 창립 당시에는 원효대사였으나 그후 서산대사로 바뀌었고, 현재는 다
시 태고보우국사를 모시고 있다.

宗旨는 大乘行願과 六和精神을 담아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현대불교의 구현

으로 광도창생, 보국안민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所依經典은 창립 당시에는 반야경이었으나 현재는 화엄경이다.²⁸⁾

(3) 현황

경기도에는 현재 285개의 사찰과 206명의 승려에 20만 1,460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²⁹⁾

이 가운데 화성군내 총화종단 사찰을 문화공보실의 자료를 통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은 2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사찰명	소재지	면적		주지	교직자	신도수			창건년도			
		건물	부지 (m ²)			성명	성별	남				
1. 선불사	오산읍수청리402	3/245 ⁵	1,316 ⁷	김대운	남	1		154	32	122	75.8.30	
2. 향천사	향남면장점리177	3/87	210	김경애	여			1	240	50	190	1962

5) 大韓佛教 元曉宗

(1) 연혁

원효와 의상에 의해 시작된 한국 화엄종은 조선왕조에 들어와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수백년이 흘렀다.

해방 이후 다시 화엄종단들이 등장하였으니 대한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화엄종, 대한불교 총화종 등이다.

화엄종단의 발생은 조계종의 이른바 비구·대처의 분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1962년 8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시행령이 내려지자 조계종의 대처계 승려와 사찰은 갑자기 설 땅을 잊게 되었고, 여기서 모색된 것이 새로운 종단의 창립이었다. 따라서 대처계는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끼리 모여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는 생활 불교 종단을 만들었다.

28) 이경우, 화엄계열 종단들, 불교사상 12호, 1984, p.219

29) 京畿道史 第2卷, p.1118

이렇게 창종된 단체가 불교재단관리법 이후에 나온 13개 종단들이다. 화엄계의 세 종단도 여기에 속한다.

화엄계 가운데 가장 먼저 창종된 것이 대한불교 원효종으로 1963년 12월 6일 등록을 필하였다. 당시의 대표는 金敬澤스님이었으나 본격적인 조직체제는 2년 후 丁壽鎔스님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 1월 초대 종정에 추대된 정수용스님은 포교원을 총본원으로 바꾸고, 1967년에는 총본산을 경주 祇林寺에서 월성군에 있는 望月寺로 옮겼다.

(2) 宗旨

1967년 5월 「원효종성전」을 간행하고宗旨의 수립을 꾀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대승불교사상의 구현체이며 민족정신문화의 창조자이신 원효성사의 대도를 받들어, ② 삼계유심의 근본진리를 사무쳐 깨닫고, ③ 만법적멸의 금강삼매에 굳건히 머물러, ④ 일도해탈의 보살행원을 힘차게 닦아서, ⑤ 만선동귀의 지상 불국을 건설하려 한다.

所依經典은 화엄경이며, 元曉를 宗祖로 받들고 있다.

역대 종정으로는 초대 정수용(1965), 2대 정수용(1971), 3대 박효천(1972), 4대 김경봉(1973), 5대 이장우(1975), 6대 엄상수(1977)스님이 추대되었다.

(3) 현황

원효종은 창종이래 7대 종정을 맞고 있으며, 엄상수스님이 6대에 이어 중임하고 있다.

종단 기구는 총무원, 규정원, 원로원, 종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종은 총무원장 중심제로 되어 있으며 총무원은 서울 창신동 안양암에 있다.

敎勢는 사찰 300개, 승려 320명, 신도 10만을 혜아린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의 직할교구를 비롯해 7개 종무원이 있다.³⁰⁾

경기도는 사찰 20, 승료 28명, 신도 3,940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³¹⁾

30) 이경우, 華嚴계열 종단들, 불교사상 12호, 1984, p.210

31) 京畿道史, 第2卷, p.1118

이 가운데 화성군내 원효종 사찰은 우정면 조암리 산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태안사>하나로, 주지는 권을수(남)스님이다.

사찰 부지는 300m²에 54.6m²의 법당을 가지고 있으며 1977년에 창건되었다.

현재 신도수는 남자 35명, 여자 45명 계 80명이라고 한다.

6) 大韓佛教 普門宗

(1) 연혁

보문사는 고려 제16대 예종 10년(서기 1115년) 담진국사에 의해 창건된 비구니 사찰이다. 그뒤 조선 19대 숙종 18년 비구니 묘첨스님이 중건하였으며 21대 영조 33년 비구니 보찬·유봉스님에 의해 대웅전이 수축되고, 23대 순조 26년 비구니 정운스님이 좌우승당을 개축하였다. 또 24대 현종 8년에는 비구니 영전 등 세 스님이 대웅전을 개축하고 26대 고종 9년 비구니 금훈스님이 좌우승당을 수축한 이래 1936년 비구니 이금탄스님이 관음루·만세루 등을 신축하였다.

1940년초 龍珠寺주지였던 姜大蓮스님이 보문사를 넘보기 시작하여 爐殿수리를 위해 내놓은 임야를 가로채고, 항의하는 송은영스님에게 치명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恩師인 금탄스님과 함께 체탈도첩까지 시키는가 하면 관권을 동원해 주지를 교체하는 등 보문사를 괴롭혀 왔다.

1945년 송은영스님이 주지에 선임되면서 비약적인 불사가 진행되었다.

삼성각(45년), 선불장(58년), 산령각(62년), 범종각 및 대종(69년)의 완성과 함께 70년에는 극락전, 보광전, 호지전, 시왕전을 신축하고 71년에는 불우노인들의 거처인 시자원을 설립했다.

이리하여 1971년 8월 5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을 설립한 후 1972년 4월 20일 대한불교 보문종의 창종과 함께 문공부에 등록했다.

보문종은 여승들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계도처에 불교국이 많지만 비구니들만으로 구성된 종단은 오직 한국의 보문종 뿐이다.

(2) 宗旨

불타의 이모인 大愛道尼를 宗祖로 모시며, 중국 淨檢尼를 正法祖로 신라시대 法流尼를 中興祖로 받들고 있다.

宗旨는 석가모니佛의 근본이념과 보문시현 관세음보살의 구세사상에 의해 전술개오와 복지사회를 목표를 하고 있다.

所依經典은 화엄경과 법화경이며 기타의 經·論·祖·錄을 부소로 종지를 함께 양양한다.

이와같이 宗旨나 宗風은 조계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법요의식이나 종단체계도 비슷하다.

(3) 현황

기구조직은 종정 밑에 원로원, 심의회, 총무원, 규정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타종단의 종회기능은 9명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대신하여 종현개정, 예산 및 결산만 의결, 종유재산 처분등을 의결한다.

현재 대부분의 종무는 삼직(총무, 교무, 재무)스님이 각 별당간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처리하고 있다.

전국에 20여개의 말사가 있으나 등록만 했을 뿐 거의 독자운영이고 종정스님 이 주석하고 있는 전주 지방에 많다.

宗正은 정명조(鄭明韶)스님으로 전주 定慧寺에 주석하며, 보문종의 정신적 지주이다.³²⁾

경기도내에는 3개의 사찰에 승려가 9명이며 신도는 423명이다.³³⁾

이 가운데 하나가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82-1에 위치하고 있는 <태현사>이다. 주지는 김정이(법명 태현) 스님(여)으로 1977년 5월에 창건되었다.

사찰 경내는 990.⁷⁵m²에 2동의 건물 (89.⁸⁶m²)로 이루어졌으며, 신도수는 남자 32명, 여자 180명, 계 212명이라고 한다.

32) 李揆元, 탑골승방 모문종, 불교사상, 11호, 1984, p193~

33) 京畿道史 第2卷, p. 1118

7) 大韓佛教 天台宗

(1) 연혁

천태종이란 종단이 설립된 낸도는 1966년이다. 그 이듬해인 1967년 1월 24일 문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불교의 한 종단으로 출발을 하였다.

불교사에서 천태종의 기원을 찾는다면 중국의 智者대사(538~597)부터 이다.

지자대사가 天台山에서 수도한 후 도를 깨닫고 「법화경」을 중심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천태종이란 지자대사가 수행했던 천태산을 종명으로 삼은 데서 유래한다.

천태종이 우리나라에서 한 종파로 시작을 하게된 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의 천으로부터이다.

그후 400여년간 융성하다가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으로 선·교 양종 통폐합시 천태종은 종파로서의 맥이 끊어졌다.

그로부터 또 500여년간 자취도 없이 내려오다가 해방후 朴上月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의 천태종은 지자대사가 일으킨 천태종이나, 대각국사가 일으켰던 천태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신흥불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宗旨

상월스님은 대각한 이후에 새 불교운동을 펼으니 ① 미신적 기복 불교에서 信行的 受福佛教로 ② 소승적 둔세 불교에서 大乘的 救世佛教로 ③ 출가 중심의 산림불교에서 社會的 大衆佛教로 ④ 형식적 호국불교에서 實質的 愛國佛教로 ⑤ 관념적 우상불교에서 實踐的 生活佛教 ⑥ 소비적 有閑불교에서 自給的 生產佛教에로라는 방향이었다.

또 새 불교운동의 목표로는 ① 참된 자아의 발견 ② 참된 생활의 구현 ③ 참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3) 현황

천태종은 종정 중심제이다. 종단의 기구로는 총무원, 감사원, 중앙 종회를 구분이 되어 있다.

현재 말사는 108개가 있으며, 본산 중심으로 조직된 지회는 100여개나 된다. 전체 승려는 450여명이며, 교인은 약 3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승려와 신도가 서로 긴밀하게 화합하고 협조하므로써 교단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회의장을 일반 신도가 맡고 있는 것만 보아도 조직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다.

승려들도 놀고 먹는 일은 없다. 畫耕·夜禪과 禪農一致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총본산을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救仁寺이며, 현 종정은 박상월스님에 이어 남대충 스님이다.³⁴⁾

현재 경기도내 천태종 사찰은 13개에, 승려는 28명, 신도는 32,625명이다.³⁵⁾

화성군에는 비교적 늦게 포교가 되어 1987년 12월 14일에 〈천태종 화성지회〉의 창립법회를 오산읍 오산4리 878-18에서 갖었다.

대표는 이재순(남)으로, 매월 본산에서 법사스님이 파견되어 법회를 보고 있다. 현재 신도수는 남자 15명, 여자 65명 계 80명이며 교세를 확장중에 있다.

IV 華城郡의 古利

1) 龍珠寺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事蹟碑文³⁶⁾에 의하면 城隍山 용주사는 태안면 송산리에 있으니 서기 1790년(조선 정조 14년)에 寶鏡堂 獅駒스님이 8道都化主가 되어 副化主 城月堂哲學스님과 함께 8道官民의 施錢 8만 7천여량을 거두어

34) 文日錫, 한국불교의 不可思議 救仁寺, 佛敎思想 5호, 1984, p.104~

35) 京畿道史 第2卷, p.1118

36) 李正無, 龍珠寺本末寺誌, 眞影出版社, 1984, p.13



사진 15 〈龍珠寺大雄寶殿〉

葛陽寺의 옛터에 대웅전 등 145칸을 지은 것이다.

양주군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永祐園을 수원군 花山에 이장한 顯隆園의 願刹이 되었으니 顯隆園은 1899년에 隆陵으로 追封되었다.

葛陽寺는 창건연대가 미상하고³⁷⁾ 고려 光宗時에 惠居國師 智光스님이 주석하였으며 유물로는 石塔이 있다. … 현재의 寺守는 정면에 대웅보전^{사진 15)} 57평이 남향하고, 보전의 서에 북으로 당기어 칠성각(十方七燈閣) 18평도 남향하고 있으며 그 앞에 奉香閣 16평이 동향하고 있다. 보전의 서남에는 범종각 5평이 자

37) 국보 120호 용주사 법종의 後刻銘에는 '成皇山之後身花山葛陽寺之後身龍珠寺 新羅文聖王十六年五月剏建同時鑄此梵鐘...'이라 하여 문성왕 16년(AD854)에 창건 되었다고 함.



사진 16 〈龍珠寺 天保樓〉

리하고, 동북에는 6·25사변에 불탄 護聖殿터가 있었다. 호성전 동북에는 오래된 석탑이 있으며 탑의 남에 명부전(지장전) 26평이 있고 보전의 동남에 法鼓閣 5평이 있다. 보전의 축대 아래는 동에 那由他寮 86평이 서향하고 맞은 편에 曼殊利室 86평이 동향하였으며 두 寢舍를 연결하며 남으로 치우쳐 天保樓^{사진 16)}가 있으니 左右 從樓를 합하여 82평이다.

누의 앞뜰에 석탑이³⁸⁾ 있고, 그 앞에 3문이 있으니 左右翼廊을 합하여 54평이요, 문의 동에 東司 12평이 있어 사원이 구성되었다. …문화재로는 국보 제 120 호로 지정된 범종^{사진 17)}이 있는데 葛陽寺의 유물이란 말은 증거

38) 천보루 앞에 있는 석탑에는 조선 19대 숙종 28년(1702)에 고승 性淨이 佛舍利 2개를 감로병에 담아 이 석탑에 보존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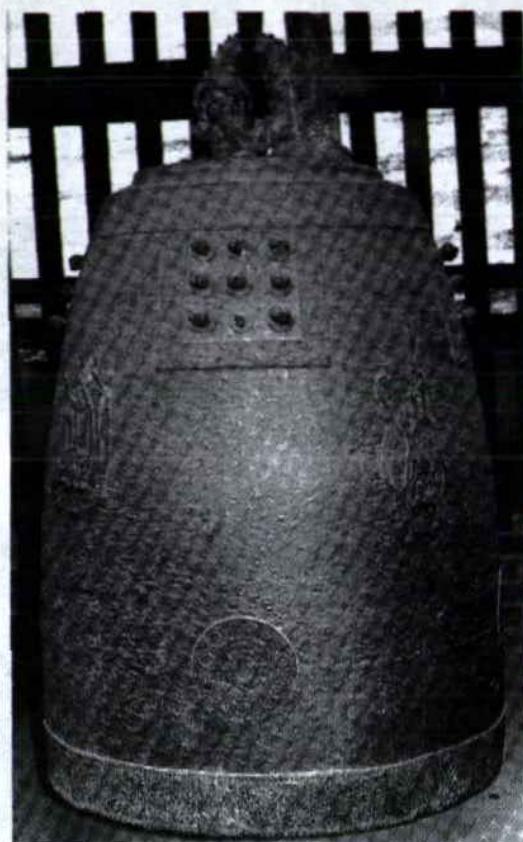


사진 17 <용주사 범종> (국보 제120호)
소재지 :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 118

양종대본산이 되어 초대 주지 姜大蓮스님은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하고 그 뒤 孫啓照, 尹豪淳, 曹萬海 세 스님이 차례로 주지를 하였다.

1955년 사찰 정화후에는 초대 주지 全觀應스님은 불교강원을 세웠고 金石牛 주지를 지나 成喜變 주지 때에는 동국역경원의 譯場이 되고 金導光 주지를 지나 鄭田岡스님은 중앙선원을 설립하였다. 朴松潭 주지 후임으로 1971년에 李正無 스님이 제7대 주지로 내왕하여 도장을 일신하게 정리하였다. … 서기 1974년 갑인 5월 일 세움'

이상과 같은 용주사 사적비문을 통하여 葛陽寺의 옛터에 용주사가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경기도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³⁹⁾

'용주사 자리에는 원래 신라 제46대 문성왕 16년(854)에 창건한 葛陽寺가 있

39) 京畿道, 京畿道誌 下卷, 1957. p 892

가 없고 주조년대는 고려초기로 본다. 창건 당시에 단원 김홍도거사라 그린 後佛幀은 보기 드문 명화요, 금동향로·청동향로·대웅전·상량문·봉불기복계·꽃병풍·은중경판 3종이 모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천연기념물 제10호인 회양목이 대웅전 계단아래 있는데 수령이 300년이라고 한다. 이 외에 千佛幀畫·石塔·聚奎硯이 있다. …

역대의 주관인은 도총섭 寶鏡스님 후에 1804년경 哲學스님과 1825년 等雲스님이 도총섭이 되고, 중간은 알 수 없으며 1900년경의 총섭은 成龍海스님이었다. 1911년에 선·교

었으니 지금부터 1,100여년 전이다. 그후 고려 제4대 광종 3년에 갈양사는 누차의 병난을 겪어서 兵火로 烏有花되어 있던 것을 이조 제22대 정조대왕이 부왕 장현세자등을 화산으로 뵙시면서 갈양사터에 용주사를 건립하고 부왕의 명복을 빌게한 것이다. …

용주사에는 사보가 많다. 그중에서도 石造 7중의 사리탑은 용주사의 전신인 갈양사 창건시의 유일한 건물로서 사내보물중 最古에 속한다. …고 하였다.

또한 葛陽寺에는 고려 광종때 惠居國師가 주석하였다고 용주사 사적비문은 적고 있다.

불교는 고려의 國敎였으므로 광종(925~975)은 과거제도에 이어 불교에도 僧科를 설치하여 승려의 階位制度를 만들었다.

이와같은 고려 초기의 불교 진흥책으로 선종에 眞徹·洞眞·靜眞 등 英僧이 나오고 교종에도 惠居·坦文·均如 등 英僧이 배출되어 法燈을 밝히므로서 불교를 빛나게 하였다.

광종 19년(968)에는 國師制度를 베풀어, 승려의 소질이 향상되고 권위도 높아졌다. 國師는 국가의 사표로서 왕사보다도 높은 자리인데 왕사나 국사가 되었을 때에는 왕도 사제의 예를 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실시로 처음으로 王師가 된 스님이 용주사의 전신 葛陽寺에 있던 惠居國師인 것이다.⁴⁰⁾

혜거국사의 성은 朴씨요, 이르는 智回이다. 16세에 출가하였으므로 태조의 부름을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정종 2년(947)에 王師가 되었으며, 광종 19년에(968) 國師가 되고 광종 25년(974)에 열반에 드셨다.

한편 寶鏡스님은 正祖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진정하며, 설법하신 후 특별한 신임을 받게 되어, 상감이 현릉원에 행차하실 때에는 법회의 도사로서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물론 정조께서 불교에 귀의하신 것은 그의 부왕 장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40) 고려사 世家卷第2 光宗 戊辰十九年 '…以僧惠居爲國師…'
甲戌二十五年 '…僧惠居死…'

이 때문에 능침을 옮겨 모신 다음 해인 정조 14년(1790) 10월에 유서깊은 신라 고찰 갈양사 옛 터에, 망부의 명복을 비는 追福寺로 용주사를 세웠으니 그 上樑文을 보면⁴¹⁾

'아름다운 間浮의 나무가 있는 大地인 이곳 花山은 명산 속리산에서 지맥이 뻗어내려 북으로 5~6백리 지점인데 체세의 변화가 용이 꿈틀거리듯 조화가 비장되어 있고 鎏遁(위이 : 구불구불 에워 두르는 모양)하고 완연(蜿蜒 : 龍蛇등이 꿈틀거리고 가는 모양, 산맥이 길게 뻗친 모양)하여 황홀하게 구름을 타는 듯한 산천이 명미함을 더한 곳에 주상전하께서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 선왕의 원침을 정하고 길경한 땅에 무한한 정성을 기우려서 절을 지어 資福寺로 하였다. 상량한 후 한자루 등을 전하거나 180년(三元)동안 촛불을 고루하여 재해가 없고 길이 宗國(종주국)에 경사롭고 복스럽이 드리우고 不齋不崩(불건불붕 : 이지러져 무너지지 아니함)하여 영원히 선침의 수호신이 되어 주실 것이며 매양 군왕에게 만수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하였다.

또한 낙성식을 하던날 정조께서 龍이 如意珠를 품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절이름을 龍珠寺로 지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정조께서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왕의 원침을 옮겨 모시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용주사를 창건하신 다음에 정조 20년(1796)에는 불교식가사체로 奉佛祈福偈를 왕이 손수 지어 내렸다.

手寫本으로 된 이 기복계는 정조의 친필로 추정되며 필치가 매우 流麗하고 2책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 사찰은 顯隆園의 齋宮으로 건립하였다. 소자(정조)는 8만 4천의 普眼法門의 經義를 베껴 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偈語를 지어 3業(몸과 입과 마음의 세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짓는 죄업)의 供養을 드리며 報恩의 福田을 修築한다고 하고, 동방의 좋은 땅 화산에 새절을 짓고 金輪의 聖像을 모시니 때에 應해서 구원이 내리리로다. 乳海에 無量한 福을 처음 생겨날 때

41) 地方有形文化財 第13號. 龍珠寺 上樑文

부터 내리어 稻麻竹葦(도마죽위 : 벼와삼, 대와 갈대가 서로 엉키어 있다는 뜻)와 같이 서로 얹혀 열 姓이 사는 국토에 꽉 찼도다. 諸世의 佛을 다시 모시니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은덕일세. 내 참됨이 이와 같음을 아니 佛法의 힘이 가 없이 빛난다.'고 佛恩을 찬송하였다.⁴²⁾

그뿐아니라 正祖大王의 효심은 宮中에서 사용하던 귀중한 금동향로, 청동향로, 병풍 등을 부왕을 위한 재궁인 용주사에 하사하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은중경」을 목판·석판·동판으로 제작케 하였다.

위의 것은 모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원형이 잘 용주사에 보존되고 있다.

1983년 6월 12일 현 주지 徐正大스님이 부임하여 경내의 정화와 주위의 사방 공사를 함으로써 교구 본사의 면모를 일신 하였다. 이어 1985년에는 유서 깊은 고려 범종(국보 120호)의 보존과 불교중흥의 대원력으로 1,000관의 대종을 주조하여, 14평의 종각을 신축하고 안치 하였다. 또한 「護聖殿」은 정조께서 부왕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위폐를 모셨던 곳으로, 능행시에는 아버님을 뵈옵듯 찾으셨던 곳이나 애석하게도 6·25사변으로 불타 폐허가된 것을 1986년 옛자리에 복원하였으니 16평이다.

특히 선풍진작을 염원하여, 中央禪院의 신축 건물을 대웅보전 북쪽의 화산 허리에 1987년 1월 착공하여, 이제 그 웅자를 들어내고, 준공을 기대하고 있으니 60평 규모이다.

2) 萬儀寺

「龍珠寺本末寺誌」⁴³⁾에 실린 萬儀寺 事蹟碑文을 참고하여 그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舞鳳山 萬儀寺는 화성군 동탄면 中2里에 있으니 본래 水原郡 東北面 萬儀里 현 동탄면 신리에서 移建된 신라 고찰이다.

42) 地方有形文化財 第14號. 御製 花山龍珠寺 奉佛祈福偈

43) 李正無, 前揭書, p.31

창건연대는 未詳이며 폐허된 옛 절터에 고려 충선왕 4년(1312)에 천태종 珍丘寺 주지 混其대선사가 중건하였다. 그후에 三藏 璞公스님이 이 절을 주관하면서 천태종 수행도장으로 삼았다.

공양왕 2년(1390)에는 神照대사가 큰절로 중건하였다. 신조대사는 본래 천태종 치악산 覺林寺에 주석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용맹하여 남보다 뛰어났다. 공양왕 때에는 奉福君으로 조선왕조 개국 후에는 奉利君으로 봉해졌다. 우왕 14년(1388)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나라에서는 이 공으로 功牌를 특사하고 아울러 만의사와 그 곳 노비를 길이 법손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한 寺田 70결을 주어서 三寶를 護持케 했다. 대사는 감격하여 이에 보은코자 정성을 다하여 기도정진법회를 마련하고 國一都大禪師 玄見等 천태종 승려 33인을 초청하였으며, 外護에는 洪濟寺 주지 대선사 明一等 19인과 執事監院에는 覺恒선사 등 19인이 모여 화엄삼매참회의식 묘법연화경 강의를 21일 간 계속하며 임금님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태평과 백성의 복리를 기원하였다. 선조 때에는 禪華대사가 주석했는데 대사는 사명당의 제자로서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道行이 고결하여 많은 대중을 교화하였다. 인조 24년(1646) 78세로 입적하니 많은 사리가 나와 智海, 寶應 두 제자가 부도를 세웠다.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의 初葬地로 택정되면서 부득이 사찰건물을 신리 무봉산 옛땅에서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사진 18)

정조 20년(1796)에 수원성곽을 축조하고 팔달문에 만의사 동종을 옮겨 달았다. 鍾銘에는 고려 11대 문종 34년 2월에 주조된 종을 이조 숙종 13년 3월에 만의사 주지 性雲이 개주하니 그 무게가 700근이라 되어 있다.

1894년 갑오에 지장전이 퇴락하여 지장보살상과 十大王像을 본산 용주사로 옮겨 갔다.

1911년에 선·교 양종 본산 용주사의 말사가 되었고, 1955년에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말사가 되었다.

3) 鳳林寺

멀리 서해를 바라보며 나즈막한 산 중턱에 건립된 사찰로, 남양면 북양리에 위



사진 18 <동탄면 중리 「만의사」>

치하고 있다.

「龍珠寺本末寺誌」에 의하면⁴⁴⁾ '봉림사는 신라 진덕여왕때(647~653) 고구려와 백제의 잦은 침략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막아 보려는 頑力으로 세워졌는데 창건 당시 궁궐에서 기르던 새가 이 절 숲에 날아들은 것에 연유하여 凤林이라 이름하고 산 이름도 飛鳳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고장은 원래 고구려 땅으로 唐城郡에 속했으나 洪學士의 귀화로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 唐恩郡이라 불렸으며, 흥덕왕 4년(829) 2월에 唐城鎮으로 명명하여 자치구역을 만들어 지내왔다.

44) 이정무, 전계서, p.44

그 후 조선 태종때는 남양도호부로 하다가 그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인조 이후로 縣, 郡, 邑, 面으로 차츰 격이 내려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의 역사에 보이듯이 중국대륙과 해로를 통한 교역의 관문이자 군사요충지로서 여기저기에 성을 쌓게 되고 그를 관장하는 주무관아가 생기면서 인구집중과 함께 불교신도의 증가 또한 자연적 추세로서 당시에는 지방 방어를 위한 관민의 기원불사가 성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명산에 기원도장이 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그후 지역 역할의 약화로 寺勢 또한 기울어지게 되었다.

1621년 安暮 慈賢 비구의 화주로 법당, 누각, 요사를 改建하고 1708년에 중건했으며 1975년에 경내 보수작업을 하였다. 사진 19)

1978년 改金佛事中 木佛腹藏品에 3차의 改金緣記(1차 고려 충선왕 4년 1312년, 2차 1362년, 3차 1580년)와 佛舍利가 출현하여 1979년 金保旼 주지가 사리탑사진 20)을 건립하고 이어서 이듬해에 요사를 확장 이전했으며 300관의 큰종을 주조하여 종각을 세우는 등 도량을 쇄신시켰고 1980년 李龍象 주지를 거쳐 1981년 말 荣祐주지에 이르고 있다.

寺內에는 대웅전, 봉향각, 요사, 망양루, 범종각 등이 있다.

특히 대웅전은 多包系 양식의 맞배지붕으로 중앙에 주불로 안치된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지방유형문화재 제99호로 유명하다.

전술한 바와같이 복장품의 3차의 개금연기로 보아 고려 초·중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좌불 높이 90cm, 무릎 폭 64cm의 木佛이다.

머리는 큼직한 螺髮위에 肉髻가 맷어 있으며 상호는 원만하고 眉間의 白毫는 수정이다. 그 아래에 두 눈, 코 줄기, 입술 등이 매우 조화있게 정제되었고 목에는 三道가 부드럽게 돌려 지고 法衣는 兩肩을 通肩으로 부드럽게 무릎까지 내려져 있으며 結印은 中品中生印을 맷고 있다. 溫厚端雅한 木造像으로 結跏趺座하고 있다. 사진 21)



사진 19 <鳳林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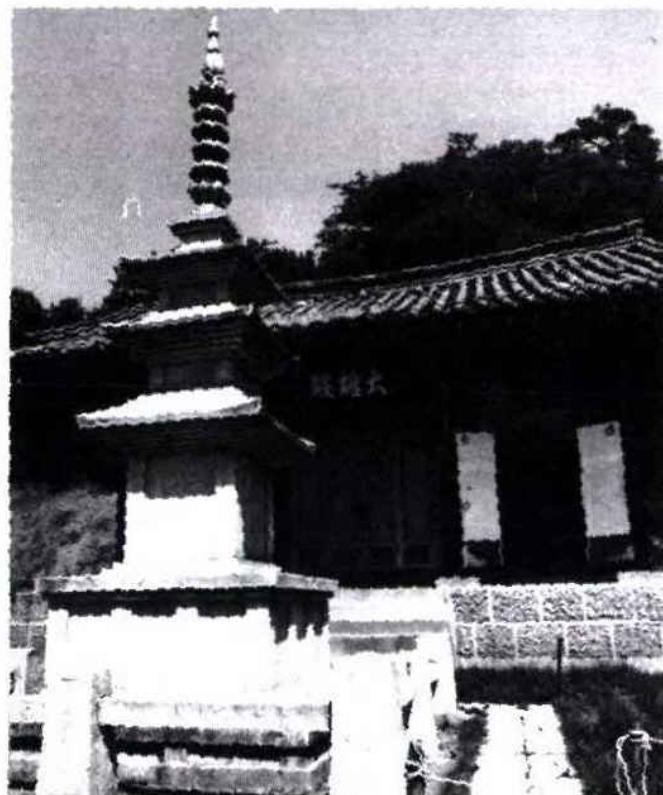


사진 20 <鳳林寺 舍利塔>



사진 21 <지방유형문화재 제99호>
(木造阿彌陀如來坐像)

4) 寶積寺

보적사는 오산읍 지곶리의 이름난 사적 제140호 독산성 세마대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그 연혁이나 유래에 관하여 아무런 문헌상의 기록이 없고 그저 3국 시대에 창건된 古刹이라고 전할 뿐이다.

그러나 독산성이 역사적,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보적사도 함께 삼국시대에 창건되었으나 끊임없는 전란으로 많은 시달림을 겪으면서 내려오다가 영조 29년에 산성을 보수하고, 정조대왕 때 용주사의 창건과 함께 중창되었다고 본다.⁴⁵⁾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은 삼국간의 치열한 쟁패장이었다. 그것은 반도의 중심지

45) 李悌宰, 烈山城考, 華成문화 제3호, 1987, p60

요. 대륙과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을 차지하므로써 남·북으로 팽창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 해상으로 직접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삼국간에 최종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하여 당항성을 쌓고, 남양방면을 문호로 삼아 중국과의 집중적인 교섭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당항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옛수원(태안읍 송산리)과 독산성이 군사상, 교통상으로 요충지였음은 당연하다.⁴⁶⁾

그 결과 독산성은 새로이 개축·보강하였을 것이오. 그 안에 있는 보적사도 군진(軍陣)속의 사찰로 일찍부터 정책적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보적사가 현재 용주사의 말사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라시대에는 용주사의 전신인 갈양사의 말사로서 호국사찰로 창건되었다고 본다.

그후 한 반도에 통일국가가 출현하자 독산성의 위치는 약화되고, 군진 호국사찰로서의 보적사도 의미를 잃게 되었다. 더욱 한일합방후 日人은 독산성과 세마대를 파괴하고 주민을 각처로 분산하여 이주시킴으로써 보적사도 세인의 이목에서 사라져 한적한 山寺로 퇴락하였다.

다만 1957년에 세마대가 복원되고, 1985년에 허물어진 성곽 1,100m가 복원되었을 뿐 보적사를 비롯한 기타의 많은 유지는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1978년 朴月光 비구니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寺宇를 보수하였으며, 1985년 강도광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큰 원력으로 보적사의 중창불사를 일으켜 도장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즉 퇴락한 약사전을 혈고 그 자리에 크게 대웅전을 중창하여 1987년 총무원장 큰스님의 奉佛點眼式이 있었으며 아울러 寺名을 洗馬寺로 바꾸었다.

이어 요사의 중창을 위하여 현재 스님은 주소불별 동분서주하고 계시다.

5) 修理寺

46) 前揭論文 pp. 32-33

「용주사본말사지」에 의하면⁴⁷⁾ '신라 진홍왕 때 창건되었으며, 신심을 닦는 聖地의 절이라 하여 수리사라 이름 지었다.

그후 왕손이 기도중 부처님을 친견하였다하여 산 이름을 見佛山이라 부르다가 약 40년전부터 사찰이름을 따서 수리산이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교 전성 시대에는 본전 외에 12개 부속 암자가 있었으며, 이조때는 괴재우 장군이 말년에 입산 수도하신 곳으로서, 임진란으로 사찰 건물이 파괴된 것을 괴장군이 재건하였다 하며, 1951년 사변으로 본전 및 전 건물이 소실되었던 것을 1961년 沈青雲스님이 부임하여 이를 모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월면 속달리 수리산 중턱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사는 팔작지붕의 대웅전 외에 나한전, 삼신각, 요사 2동이 있다. 사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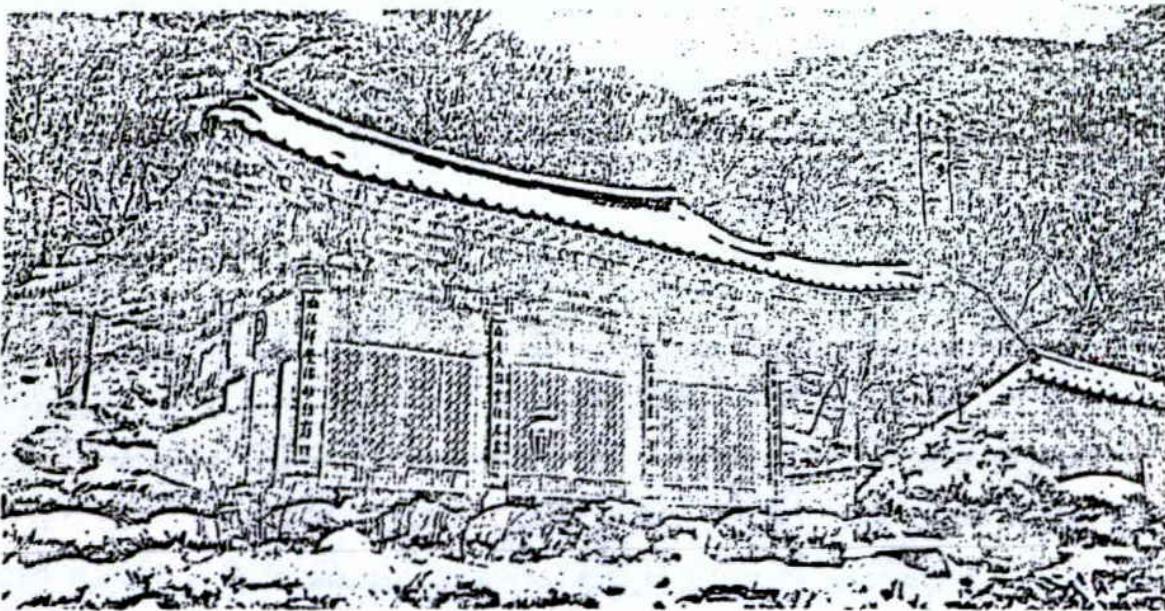


사진 22 〈修理寺 大雄殿〉

47) 李正無, 前揭書,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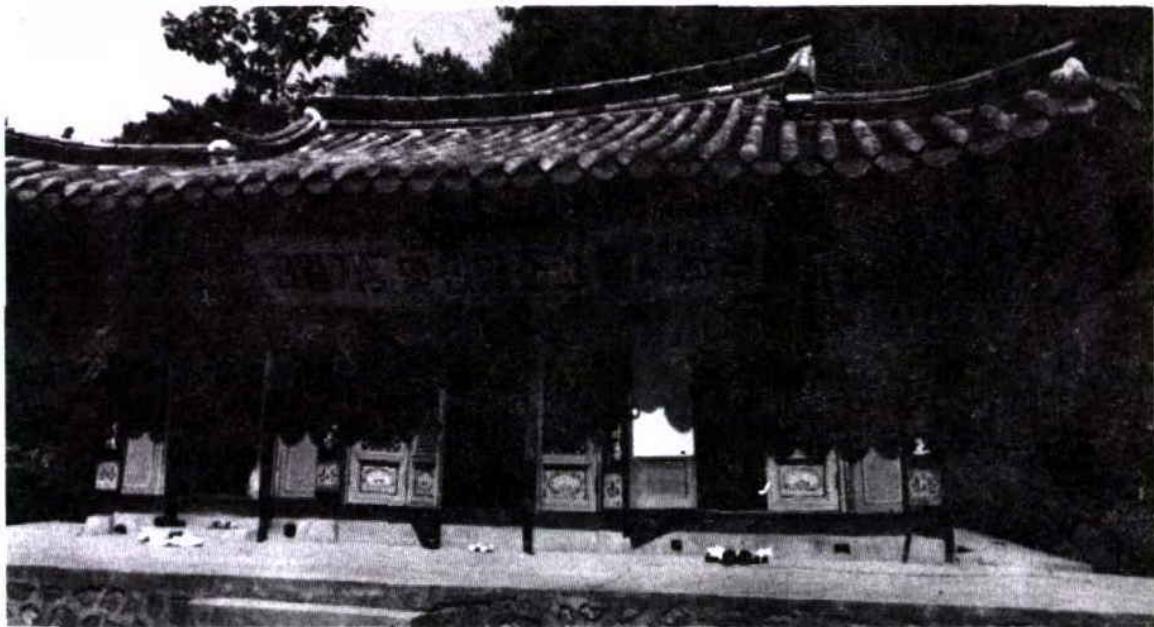


사진 23 〈新興寺 觀音殿〉

6) 新興寺

서신면 상안리에 있으며 사적 217호로 지정된 구봉산의 당성(당항성) 바로 아래쪽에 좌우로 포근히 감싸준 山形을 의지하고 자리잡은 신흥사는 1934년 張德仁스님이 한영석 거사의 시주로 창건되었다.

당성은 전술(보적사 참조)한 바와같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한영석 거사가 임야, 전답 등을 佛糧畱으로 현공하고 아울러 절을 세우게 된 동기는, 신비스런 꿈의 현시에 의해서라고 한다. 거사의 꿈에 한 스님 이 나타나 이르기를 “당성안에는 고려시대의 석불이 계시니 잘 모셔다 새로이 절을 일으키라” 하기에 당성에 가보니 과연 옛 절터인 듯한 곳에 꿈속에서 당부한 불상이 무성한 수풀 속에 계셨다. 한거사는 부처님의 현몽에 감동하여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 부처님의 법력을 새로이 보일 곳이라는 뜻으로 신흥사라 부르게 했다. 그후 1941년 청신녀 李閨泰가 법당을 중수하였고, 1973년 吳性一 비구니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불교 불모지에 가까운 이 지역에서 불법홍포에 힘쓰는 한편 1981년에는 낡고 작은 요사를 뜯어내고, 도장을 넓혀서 설법당 57평을 새로 지어 절의 모습을 淨化해 가고 있다.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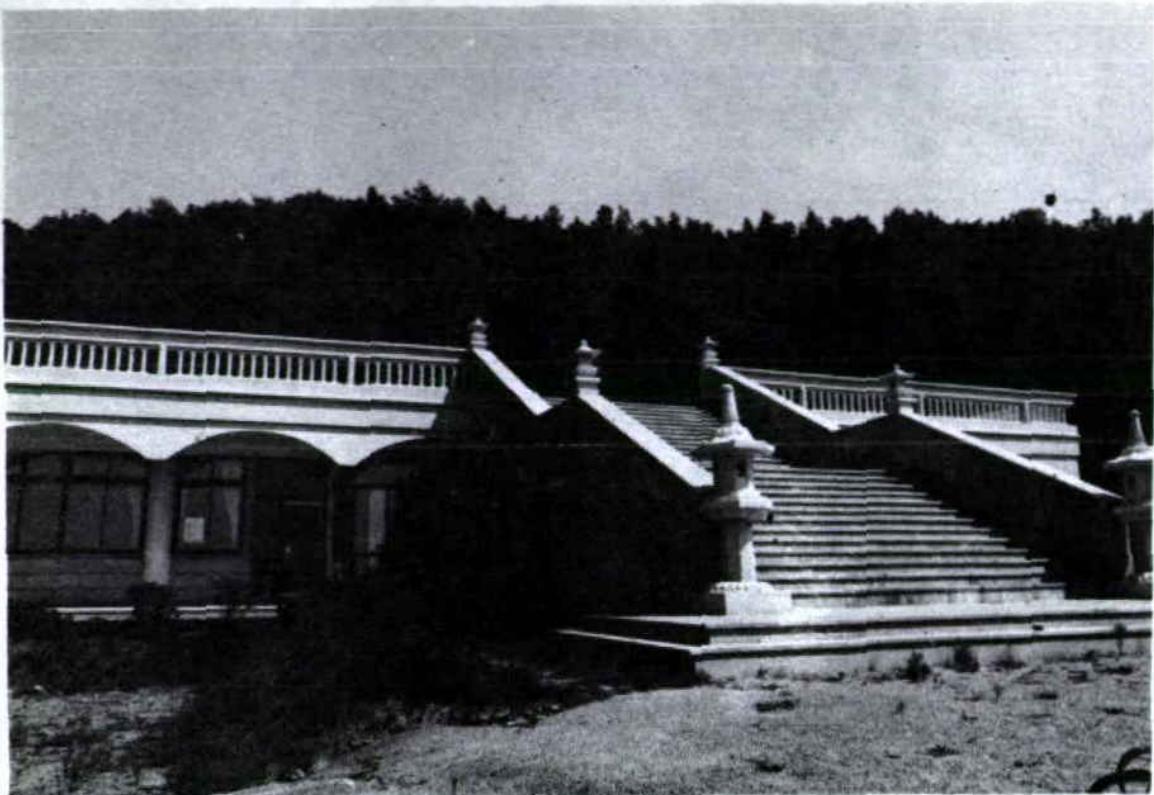


사진 24 〈新興寺 青少年 修練院〉

그러나 창건시주 한영석 거사가 죽자 그의 양자가 선친이 시주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1981년부터 약 4년의 소송 끝에 그동안 저축해놓은 법당 건립기금으로 절에서 이를 사들였다.

이러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1986년 11월 9일에는 100평 규모의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인 青少年修練院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사진 24)

이 수련원에는 불교어린이회, 불교학생회, 신흥사신도회의 사무실을 비롯하여, 불교 도서실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청소년 교화도량으로 절의 면모를 일신해가고 있다.

이리하여 1987년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 2,000여명의 수련을 비롯하여, 스님교육, 성인을 위한 교양대학도 개설하여 불교 현대화와 불국토건설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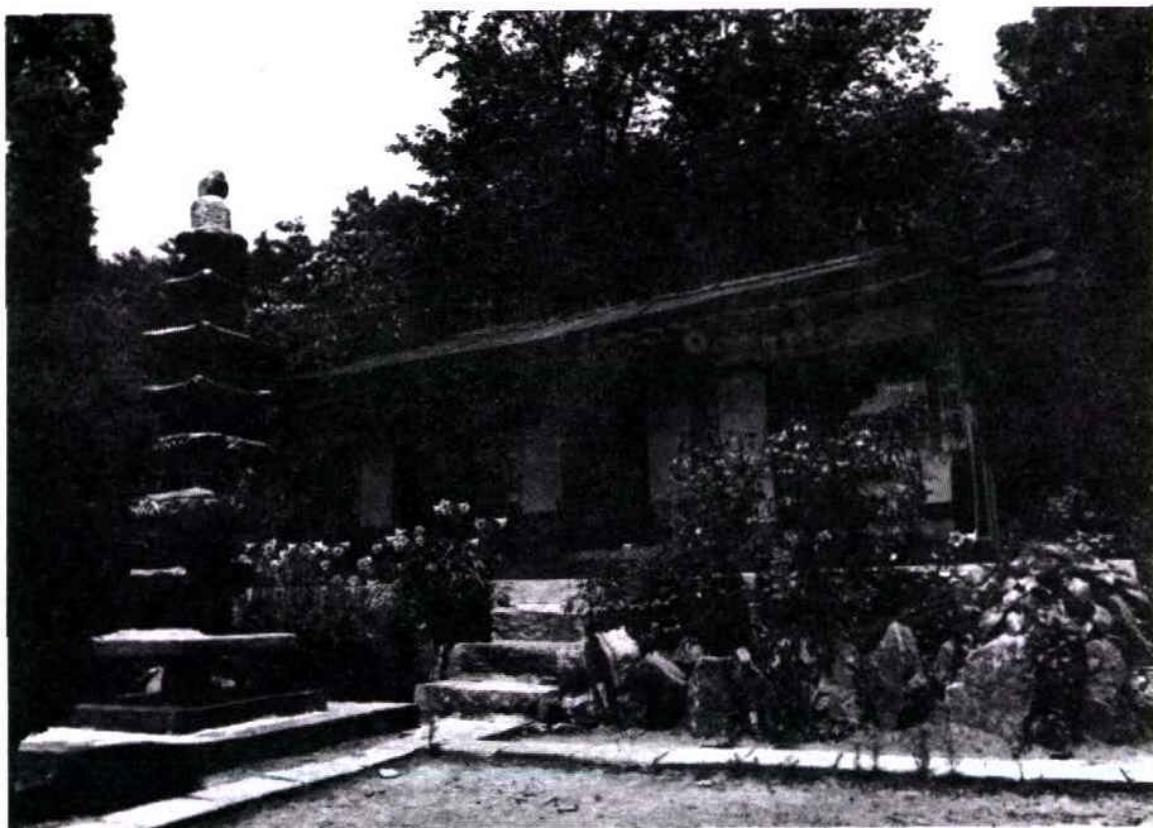


사진 25 〈西新面 弘法寺 藥師殿과 無名塔〉

7) 弘法寺

서신면 홍법리에 소재한 홍법사는 광해군 3년에 건립되고 1927년에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경내에는 약사전(약사여래불이 아닌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음)과 요사2동(하나는 1927년 창건당시의 것이고, 하나는 1984년 세움) 그리고 무명탑(문양과 수법이 다른 2개의 산일된 석탑을 모아, 하나의 탑으로 조성하여 8층이 됨)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진 25)

그러나 고려시대 몽고(원)의 침입과 그 영향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잃은 충렬왕(1274~1308) 이후 충정왕(1348~1351) 시대에 창건되었던 옛 절터에 다시 세운 사찰이 오늘의 홍법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써

① 원은 고려를 굴복 받은 후 혼인정책에 의하여 두 왕실의 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며, 또 貢賦 · 誅求 · 徵發 특히 부녀의 求索은 국내의 인심을 적지아니 불안케 하였다. (원은 鬪子軍 즉 몽고의 强兵을 위하여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의 여자

를 구하였다.)⁴⁸⁾

이 때문에 고려 충숙왕은 반전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충정왕은 盤纏色(반전색)을 두어 이를 기화로 관원이 백성을 괴롭혔다.

이와같이 元의 高麗女徵求는 인도상, 인심상에 큰 영향과 소란을 일으켰다.

② 남양반도는 삼국시대부터 군사상, 문화상의 요충지로 서해를 통하여 중국과 교통하는 출입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전술한 凤林寺, 寶積寺, 新興寺 참조)

따라서 이 고장을 통하여 멀리 중국대륙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설을 적어본다. <서신의 홍법사와 무쇠사공>중국 원나라의 천자가 고려에 조공을 바칠 것을 명하고 특히 고려 미인을 요구하였다. 이때문에 고려에서는 早婚의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⁴⁹⁾

다른 一說에는 조선왕조 태종 8년(1408) 4월에 명나라 사신 황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美女를 요구하여 進獻色을 설치하고 처녀들을 징집하여 그해 11월에 명나라로 데리고 갔다.⁵⁰⁾

그 당시 홍법리 앞실마을(前谷)에 용모가 絶色이고 덕망이 있는 홍씨 규수가 조공으로 원나라에 끌려갈 때 사신에게 부탁하여 고향의 모래, 대추, 물 세말씩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받고 배에 실고 가게 되었다. 절세가인에 덕을 겸비한 여인이라 원나라 황제가 반하여 후궁으로 간택하고 마음을 돌리기를 간청하여도 홍규수는 듣지 아니하고 가지고 간 대추와 물로만 연명을 하고 모래를 뿐고 그 위에서만 살았다 한다. 그 이유는 더러운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고 흙을 밟지 않겠다는 뜻에서였다. 그렇게 지내기를 100여일만에 홍규수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은 연약한 동녀이나 원나라의 비인도적인 횡포에 대한 무언이 저항이자 여성의 貞節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여성상을 깨우쳐

48) 李丙齋, 國史大觀, 1961, 普文閣, pp263-4

49) 京畿道, 地名由來集, 1987, 京畿出版社, p.434

50) 자료제공, 서신중학교

주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처녀들이 자기와 같은 조공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고귀한 순국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규수가 죽은 그날부터 천자는 이름 모를 병으로 눕게 되더니 편작의 신술도 효용 없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때 천자의 꿈에 홍규수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자신은 보살이 되었으니 돌배에 무쇠사공으로 하여금 나의 혼을 호위하여 고향으로 보내줄 것과 다시는 고려여인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약조를 받고 사라졌다.

이에 천자는 홍씨규수의 시신을 태울 돌배를 만들고 무쇠사공을 12명 만들어 규수를 바다에 띄우니 천자의 병은 씻은듯이 나았다.

한편 홍법리 홍씨문중의 3사람 꿈에 홍규수가 현몽하여 자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니 홍씨문중에서는 급히 바다에 나아가 기다릴때 배가 도착하였다.

문중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보살이 된 홍규수와 무쇠사공 12명을 꺼내자 돌배는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후 보살을 만들어 현재의 홍법리 산1번지에 절을 짓고 모시니 이것이 홍법사가 창건된 유래하고 한다.

8) 洪法寺

봉담면 수기리의 나즈막한 산 허리에 자리잡은 홍법사는 원래 정남면 탑상골에 소재했던 절로, 초창은 모 비구니스님으로 고려 우왕 2년(1376)이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현종 7년(1841)에 봉담면으로 옮겼다.

그러나 도적떼의 극성으로 현재의 절터에 존재해 있던 미를불상 위에 움막처럼 초가를 엎어 이주하게 되니 1934년 한덕수스님 때의 일이다.

2년후 덕수스님이 초가를 3칸 법당으로 개축하고 요사 2동을 신축하였다.

1974년 高惠明 주지가 인수하여, 1980년 법당과 요사를 중수 단청했으며, 1983년 조그마한 별당을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진 26)

약사보전 사진 27)에 약사여래상과 약왕보살상 등을 모시고 있다. 51)

51) 李正無, 前揭書, p.38



사진 26 〈洪法寺 全景〉



사진 27 〈洪法寺 藥師寶殿〉

9) 普德寺

우정면 이화리에 있으며 원래 藥水庵이라 하던 것을 1950년에 普德寺로 개칭하였다.

사찰측 말에 의하면 “고려 말기 · 조선왕조 초에 王씨 1명이 이 산중에 은거하며 변성琴씨라 하고, 산명을 保琴山이라 하며, 암석은 부처바위라 부르고, 암석 하에 至靈堂이란 1칸 초막을 건축하고 은거하며 불교를 신앙하였다.

1927년 3월 15일 수원 용주사 姜大蓮주지를 證師로 절을 창건하여, 초대 金鏡河주지스님을 이어 현재 黃仁鉉(法名 · 柱玄)주지스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至靈堂, 大雄寶殿, 寫舍, 客室 등이 있으며, 특히 山下藥水란 영천이 유명하여 원근에 전파됨으로써 인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함⁵²⁾

한편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보덕사의 창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26년 (1750) 9월에 중수하고, 1977년에 보수하였음’이라고 하였다.⁵³⁾

V. 佛教의 華城郡 傳播

우리나라에 불교가 절래된 시기에 관하여는 前述하였으나, 화성군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문헌상의 기록이 없으므로 현존하는 古刹의 연혁을 통하여 그 전파 시기를 추정하여 보기로 한다.

삼국시대의 화성군은 삼국간의 치열한 쟁패장이 있다.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 질러 흐르는 한강유역에 위치하여, 이 지역을 다스림으로써 남 · 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대륙과 바다를 통하여 직접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는 일찍이 온조왕 11년(BC 8) 7월에 禿山柵(독산성)을 설치하여 이후 방비를 튼튼히 하였으나,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함락되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후 백제 성왕 29년이며, 신라 진홍왕 12년(551)에 나 · 제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는 축출되었으나, 진홍왕은 2년뒤에 나 · 제 동맹을 파기하면서

52) 자료제공, 보덕사주지

5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권, 1986, 보진재, P.518

이 지역의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진홍왕 25년(564) 이후 거의 해마다 중국 남·북조의 제·진과 사절을 교명하며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갖게 되었다.

원래 삼한시대의 화성군은 진한 여러나라중 車水國, 爰襄國, 桑外國의 세나라였다. 車水國은 오늘날의 수원시와 옛 수원 일대이며, 爰襄國은 화성군 남양면 일대, 桑外國은 화성군 우정면·장안면 일대였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辰韓의 여러나라중 廣州지방의 伯濟國이 진한의 여러나라와 馬韓을 통합하여 百濟를 건국하였다.

그후 고구려의 남진으로 화성군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買忽郡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성군은 삼국간에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불교의 전파는 정책적으로 세워졌을 군진(軍陣)속의 사찰을 통하여 佛力으로 외침을 물리치고, 군사들의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려는 원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예로 신라 28대 진덕여왕때 고구려와 백제의 잦은 침략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막아 보려는 원력으로 세운 남양의 鳳林寺나, 독산성을 수호하기 위한 군진 속의 사찰로 건립된 寶積寺를 들 수 있다.

또한 진홍왕 25년(564) 이후 활발하여진 중국과의 외교활동으로, 옛수원과 남양지방은 교역의 관문이자 군사요충지로써 여기저기에 성을 쌓게 되고, 주무관청이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자 지역방어를 위한 기원불사가 성행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은 호국사찰을 통하여 호국불교사상이 전파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법홍왕 14년(527)이나, 백제에 공인된 침류왕 원년(384)이후 얼마 안되어 삼국간의 변방에 있던 화성군은 오늘날의 군법당과 같이 진중속의 호국사찰로 삼국의 불교가 제각기 꾸준하게 전파되었다고 본다. 끝. (華城郡史. 1988)

54) 李丙燾, 前揭書, P283

우리나라의 僧軍과 京畿道

■ 目 次 ■

- I. 머리글
- II. 古代의 僧軍
- III. 高麗時代 僧軍
- IV. 朝鮮時代의 僧軍
 1. 財政的 側面
 2. 軍事的 側面
 - 1)
 - 2)
 - 3)
 - 4)壬辰倭亂斗 義僧軍
 - (1) 京畿道地方
 - (2) 忠淸道 地方
 - (3) 全羅道 地方
 - (4) 慶尙道 地方
 - (5) 江原道 地方
 - (6) 平安道 地方
 - (7) 汝頭爲寶
 - (8) 水軍으로서의 僧軍
 - (9) 山城의 築造와 僧軍
 - 5) 丁酉再亂斗 惟政
 - 6) 丁卯·丙子胡亂斗 義僧軍
 - 7) 南·北漢山城 義僧軍
 - V. 大韓佛教 護國 僧軍團

I. 머리글

나라가 危殆로울 때 정부의 명령이나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生命이나 財產을 바쳐 침략군과 싸우던 민병을 義兵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는 有史이래로 많은 外侵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 싸웠으니 그 활약은 매우 뛰어났다.¹⁾

특히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修道僧이 많아지자 국가 有事時에는 그들도 出戰하게 되었다. 원래 불교는 殺生을 금하나 우리 나라의 불교는 護國信仰과 결부되어 金剛明經, 仁王經, 藥師經 등을 존중하여 나라가 危殆로울 때 군사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²⁾

이들을 僧軍이라고 한다.

깊은 山속 구름속에 살며 참선 수도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스님들의 바라는 生活이었으나, 나라의 큰 난리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투구를 쓰고 갑옷 입어 殺生의 戒律을 크게 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心情 어찌 悲壯하지 않았으랴. 孤雲野鶴처럼 아무 拘碍가 없는 身勢로서 오직 國家에 對하여 忠誠을 바치는一片丹心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韓國佛教 1천6백년의 긴 역사 안에는 國家安危에 직접으로 참여한 僧軍의 歷史가 길이 빛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 僧軍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 가운데도 京畿道를 더욱 照明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古代의 僧軍

삼국시대 고구려에 唐 太宗이 침입하여 3만의 僧軍이 出戰하였다는 것을 高麗史 崔瑩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1) 李弘植 國史大事典. 知文閣 1972. p. 1095

2) 앞의 책. p. 800

3) 高麗史 一百十三. 列傳 卷第二十六, 崔瑩, '以僧徒唐太宗征本國本國發僧軍三萬擊破之今若造戰艦禦寇功'

또한 신라에서도 太宗 武烈王 때 백제가 助川城을 침입하므로 왕이 친히 나아가 싸웠으나 승부를 결판하지 못하였다. 이때 實際寺의 승 道玉은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중이 된 자는 첫째로 術業이 精通하여 그 本性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음은 道를 일으키고 이를 잘 활용하여 남을 有益되게 하여야 된다는데 나야말로 겉 모양만 중이지 아직 한가지 善行도 한 일이 없으니 차라리 從軍하여 몸을 나라에 바치는 일이 오히려 낫다.'하면서 중의 法衣를 벗어버린 다음 軍服으로 갈아 입고, 이름을 고쳐 驟徒라 하고 전선으로 나아갔다. 그는 칼과 창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격하여 역전고투하며 적을 여럿 죽인 끝에 마침내 戰死하였다.⁴⁾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동해안의 祇林寺도 신라 때 이곳에 兵營을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을 봉쇄하는 곳이었다고 한다.⁵⁾

이밖에도 三國遺事에 依하면 '新羅의 義湘이 唐에서 華嚴經을 研究할 때, 高宗이 將次 크게 軍士를 일으켜 新羅를 치려함을 알고 咸亨元年(文武王 10년, 670) 彙國하였다. 義湘이 朝廷에 이 事實을 알리자 神印宗의 고승 明朗에게 命하여 密壇을 가설하여 秘法으로 기도하니 國難을 벗어날 수 있었다.'(卷第四, 義解第五, 義湘傳敎條)

이와같이 新羅佛教의 特殊性을 護國佛教에서 찾는다면 그 대표적인 것으로 花郎制度와 皇龍寺9層塔 또는 四天王寺의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僧軍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는 훨씬 후의 일이다. 즉 신라 말에 사회가 혼란하여지고 도처에 도적과 무뢰한들이 성행하여 사찰에까지 침탈하여 음으로, 그들은 막아 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군은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발전되어 갔다. 이리하여 승려는 물론 그 절에 딸려 노역에 종사하는 자나 소작인까지도 포함하여 편성된 僧軍은 그 수가 대단하여 한 사찰에 무려 천수백 명에 이른 곳도 있었다.

4) 三國史記 卷第四十七 列傳第七 駟徒 “名道玉居實際寺太宗大王時百濟來伐助川城 …力鬪殺賊數人而死”

5) 佛教新聞 1985. 9. 18 歷史紀行 11

III. 高麗時代의 僧軍

신라시대의 승군은 시찰은 自衛의 수단으로 자연 발생한 조직체였으며 국가적인 公役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僧軍의 발자취를 살피기 위하여는 僧軍을 僧侶에 부과한 일종의 요역제도라는 관점에서, 국가에서 僧侶에게 과한 賦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먼저 考察해 봄야 되겠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후 고려시대까지 극히 융성하여 정치·문화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고, 僧侶의 세력과 지위도 대단하여 고려 중엽에는 僧侶가 出家入山하면 王이나 父母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으며, 비록 在家僧이라도 국가에서 賦役을 시키지 않았었다.

그 예로 ① 高麗 成宗元年(982)에 崔承老가 올린 時務28條 가운데 '善會란 자가 요역을 피하려고 出家하여 산에 있었는데, 光宗이 그를 공경하고 禮를 극진히 하였다.'⁶⁾ ② 高宗4年(1217)에 崔忠獻이 승려에게 자주 요역을 일으켜서 여러 절을 침해한 일이 있었으므로, 승려들이 많이 원망하여 마침내 난을 일으켰다.⁷⁾ ③ 忠宣王元年(1309) 教書에는 '僧人이 出家하면 마땅히 위로는 君王에게 拜禮하지 않고 아래로는 父母에게 拜禮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밖에야'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佛教의 崇尚은 科舉制度의 시행에 따라 僧科制度의 창설을 보았으며 僧侶들은 국가로부터 土地의 紿與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요역의 義務에서 免除되었다. 따라서 一般 鄉役의 吏屬과 公私의 노예들까지도 官役을 회피하기 위하여 佛門에 몸을 委托하게 되니 승려의 수는 늘어가는 형편이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役事를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文宗 10年(1056)에는 '지금 요역을 피하는 무리들이 이름을 僧侶에 붙이고 돈을 벌어 生活을 하여 … 罪를 범한 자는 法으로 다스리라'⁹⁾는 制教가 내리었다. 또 恭愍王 10年(1361)에는 御史臺에서

6) 高麗史節要 卷之二, 成宗元年 '…有善會者規避徭役出家居山光宗致敬盡禮…'

7) 앞의 책 卷之十五, 高宗四年

8) 高麗史三十三, 世家卷第三十三, 忠宣王一, '僧人既已出家固當上不拜君王下不拜父母況其餘乎'

9) 앞의 책, 世家卷第七, 文宗十年 '今有避役之徒托號沙門殖貨營生…犯者以法論'

아뢰기를 '鄉役의 관리나 공·사간의 종들의 賦役을 피하기 위하여, 佛門에 자취를 숨기고 손에는 佛像을 가지고 입으로는 梵唄를 부르고, 여염집에 횡행해서 百姓들의 財產만 소모하여 그 害가 輕하지 않으오니 이들도 함께 체포하여 모두 그들 본래의 職業으로 돌려보내소서'하니 왕도 따라서 그렇게 실행케 하였다.¹⁰⁾ 즉 鄉吏나 公私 노예가 佛門에 잠적하는 것을 禁하고 本役에 도라가게 할 뿐이며, 정당한 僧侶에 대하여는 직접 賦役를 시키지 않았었다.

그후 儒學이 극성하고 抑佛崇儒의 소리가 날로 거세지니 恭讓王 3年(1391)에 '京畿·交州(江原道)·西海(黃海道) 三道의 民丁과 諸道의 僧侶를 徵發하여 京都內城(開城)을 築造하게 하고, 判三司事 裴克廉에게 명하여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¹¹⁾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僧侶를 賦役시킨 최초의 기록이다. 이와같이 高麗王朝 末期에 이르러 崇儒排佛策으로 一時的으로 특정한 공사에 僧侶를 동원하였을 뿐이며, 國家의 制度로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新羅時代와 마찬가지로 寺院의 늘어나는 經濟的인 富를 지키기 위하여 自衛手段으로 僧軍이 必要하였다. 따라서 寺院에는 모두 隋院僧徒라는 것을 두어 勞役에 종사시키는 한편 寺院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人的資源으로서 僧軍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僧軍은 점점 그 수가 많아져갔으므로 國家의 非常時에는 이들은 軍事力으로도 利用되었으니 降魔軍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僧軍은 貴族들의 權力爭奪에도 관계를 가져서 政治舞臺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 高麗時代 僧軍의 活動을 여러 史書에 의하여 時代順으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

- 顯宗元年(1010)에 거란이 재차 침범해 왔을 때, 僧 法言이 거느린 僧軍을 포함한 9천명은 林原驛(평남 대동군)에서 敵軍을 맞아 쳐서 머리 3천여개를 베고 勝利를 가져왔으나 法言스님은 戰死하였다. 이때 王은 教旨를 내리어 '거란이

10) 高麗史節要卷之二十七, 恭愍王十年 '御史臺啓曰, …鄉役之吏公私之隸規避賦役托迹桑門手持佛像口作梵唄橫行閭里消耗資產其害匪輕並今捕捉悉還本役, 從之'

11) 高麗史四十六, 世家卷第四十六 恭讓王三年 '京畿交州西海道民丁及諸道僧築京都內城命判三司事 裴克廉監之'

西京을 포위하니 沙門 法言이 義勇을 떨쳐서 生命을 잊고 나라를 위하여 죽으니
首坐를 증직하도록 하라'하였따.¹²⁾

2. 肅宗 9年(1104)에 東女眞이 두만강을 건너 계속 南下하여 定平地方에 까지
侵犯하여 왔으므로, 尹瓘이 나아가 싸웠으나 失敗하였다. 이에 建議하여 別武班
이라는 特殊軍隊를 설립하여 四時로 훈련하였다. 그 别武班 가운데는 僧徒를 署
아서 조직한 降魔軍도 있어 再舉를 도모하였다. 이때 僧軍은 女眞征伐이라는 特
殊目的을 가지고 臨時的이나마 正規軍으로 編入되었던 것이다.¹³⁾

3. 仁宗 13年(1135) 西京에서 妙清의 亂이 일어나자, 王은 金富軾을 원수로
삼아 西京叛亂을 討平하게 하였을 때 승려도 여기에 從軍하였다. 즉 冠宣은 큰
도끼를 메고 먼저 나가서 數十名을 쳐서 죽였다. 官軍이 이 기세를 타서 敵을 크
게 부수고 머리 3백여 급을 베니 적의 기세는 이로 말미암아 갑자기 꺾이었다.
¹⁴⁾ 또한 土山을 쌓아올릴 때에도 僧軍 550名이 이에 投入되었다. 마침내 그 土
山을 향해 敵이 공격을 해왔던 11月에는 김부식이 승군 尚崇을 시켜 도끼를 들
고 反擊하게 하여 10여명을 죽이니 적병이 달아나 무너져 버렸다.¹⁵⁾

4. 鄭仲夫의 亂(1170)후 계속되는 백년간의 武臣政治期는 武臣 相互間의 權
力다툼이 치열하였던 시기였다. 이 武臣政權에 대해 全國의 寺院은 전통적으로
報恩主義를 至高最上으로 여겨왔으므로 王室派로서의 立場을 취하였다. 따라서
불교계의 움직임은 武臣政權에 큰 威脅이 아닐 수 없었다.

즉 明宗 4年(1174)에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李義方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失
敗하였다.¹⁶⁾

12) 高麗史節要 卷之三, 顯宗元文大王元年 '僧法言率九千迎擊于林原驛南斬首三千餘級法言
死之'

" " 二年, '教曰契丹圍西京沙門法言見義奮勇忘生殉國
可贈首座'

13) 앞의 책 肅宗明孝大王九年 '尹瓘…於是建議始立別武班…又選僧徒爲降魔軍以圖再舉'

14) 東史綱目, 第八下, 仁宗恭孝王十三年 '僧冠宣…荷大斧先出擊殺數十人官軍乘勝大破之
斬首三百餘級…賊勢由是頓挫'

15) 高麗史節要卷之十, 仁宗恭孝王十三年 '僧徒五百五十人築土山…富軾令僧尚崇荷斧逆
擊殺十餘人賊兵奔潰'

16) 東史綱目 第九下 明宗光孝王四年 '諸寺僧人謀誅李義方不克'

5. 明宗 때 全國에는 大小 규모의 叛亂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그中에도 충청·전라·경상의 三道에서 일어난 南賊이 그 규모가 제일 컸다. 진압에 나선 官軍은 도처에서 敗北하였으나, 僧軍이 動員됨으로서 戰勢에一代 轉換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明宗 6年(1176)에 대장군 丁黃載 등을 보내어 南賊을 치게 하였으나 싸움이 不利하자 僧軍을 모집하여 軍士를 구제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리하여 僧軍이 南賊·討伐에 動員되므로써 적의 기세는 꺾이게 되었다.¹⁷⁾

6. 高宗 3年(1216)에도 거란이 쳐들어 왔을 때 僧軍은 鄭叔瞻 휘하에서 敵을 맞아 싸웠으며¹⁸⁾ 이듬해(1217) 적이 原州·堤川까지 내려 왔을 때 양광·충청도 방어사 池允深은 官軍과 더불어 僧軍을 거느리고 마침내 적을 막아냈다.¹⁹⁾

7. 高宗 19年(1232) 蒙古의 侵入으로 江華로 遷都하고, 그 해 年末에 살레탑이 龍仁의 處仁城(지금의 龍仁郡南四面衙谷里에 있으며, 京畿道 地方記念物 第 44號로 指定·保護되고 있는 土城이다.)을 攻擊하니 한 僧侶가 城中에서 살레탑을 쏘아 죽이었다. 여기서 指揮官을 잃은 몽고군은 사기가 떨어져 개성으로 퇴각하였다.

국가에서 그 공을 가상하게 여기어 上將軍을 除授하였으나, 그 僧侶는 功을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며 '한창 싸울 때에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헛되게 重賞을 받겠습니까'하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므로 이에 僉郎將으로 삼았으니 이 僧侶가 바로 金允侯이었다.²⁰⁾

8. 高宗 40年(1253) 압록강을 건너온 몽고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南下하여 충주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防護別監 김윤후(僧將)의 굳센 저항으로 약 70여일을 지나, 몽고군은 포위망을 풀고 退却하였다.

이때 충주성은 軍糧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김윤후는 軍士들을 타일러 激勵하기를 '만일 죽음을 다하여 싸운다면 貴賤을 막론하고 모두들 다 應分의

17) 앞의 책, 明宗六年 '遣大將軍丁黃載等…將之以討南賊戰不利請募僧以濟師'

18) 高麗史節要 卷之十四, 高宗安孝大王三年 '…又抄僧爲軍共數萬'

19) 앞의 책, 高宗四年 '以大將軍池允深…率道內兵及僧軍以禦賊'

20) 앞의 책, 高宗十九年 '撒禮塔攻處仁城有一僧城中射殺撒禮塔…僧即金允侯也'

벼슬을 얻도록 하여주겠다.'하고 官奴의 文簿를 불태워 믿음을 보이고 또 노획한 牛馬를 나누어 주자. 軍士들이 모두 죽기를 맹세하여 싸웠다. 몽고군이 차츰 꺾기어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²¹⁾

9. 高宗 41年(1254) 車羅大가 尚州山城을 공격함에 黃嶺寺 僧侶 洪之가 한 官人을 쏘아 죽인 것이 계기가 되어 적의 전사자가半을 넘었다. 마침내 包圍網을 풀고 退却하였다.²²⁾

10. 恭愍王 8年(1359) 紅頭賊이 압록강을 넘어 侵犯하여 西京이 함락되었 다. 이에 權適으로 하여금 僧軍을 거느리고 戰場에 나가도록 하였다.²³⁾

11. 禍王 2年(1376) 倭寇가 都城(開城)을 侵犯한다는 소문이 있어 밤중에坊里의 軍士를 징발하여 城을 지키고 또 적이 먼저 송악산으로 오른다는 말을 듣고 僧侶를 징발하여 軍士로 삼아서 要所를 지키게 하였다.²⁴⁾ 또 이듬해에 황해도 일대에 들어온 倭寇를 李成桂가 해주에서 擊退시켰을 때도 僧將 神照의 활약이 컸다.²⁵⁾ 僧軍은 이때 崔茂宣이 고안한 最新武器인 火砲를 다루는 火器部隊로서 의 任務를 전담하게 되어, 禍王 4년에는 全國 寺刹에 火桶放射軍을 두게 되었으니 寺刹의 크기에 따라 큰 절에는 3명, 중간 절은 2명, 작은 절에는 1명씩 配置하였다.²⁶⁾

12. 僧軍은 戰艦建造에도 動員되었다. 즉 禍王 3년에 諸道의 승도를 징모하여 전함을 만들게 하였으니, 京山은 3백명, 楊廣道는 1천명, 交州·西海·平壤道는 각각 5백명(계 2천 8백명)이었는데, 僧徒에게 命令을 내려 만약 忌避하는 者가 있으면 軍法으로 論하게 하였다.²⁷⁾ 따라서 禍王 8년에 崔瑩

21) 앞의 책, 高宗 四十年 '忠州報蒙兵解圍時被圍凡七十余日兵食幾盡防護別監金允侯諭屬士衆曰'

22) 앞의 책, 高宗 四十一年 '車羅大攻尚州山城黃嶺寺僧洪之射殺一官人士卒死者過半遂解圍而退'

23) 앞의 책, 恭愍王八年 '命前贊成事權適率僧兵赴征'

24) 앞의 책, 辛禡二年 '…發僧爲軍分守要害'

25) 앞의 책, 辛禡三年 '太祖與諸元帥擊倭于海州… 僧神照割肉進酒命士卒焚柴…'

26) 高麗史八十一, 志卷三十五, 兵一 '火桶放射軍於京外各寺大寺三名中寺二小寺一'

27) 앞의 책 列傳卷第四十六, 辛禡一 禍王三年 '諸道僧徒作戰艦… 以軍法論'

의 계획에 따라 僧徒들을 모집하면서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어서 百姓들을 부릴 수 없으니, 僧徒들을 역사시키려고 한다. 이제 전함을 만들어 倭寇를 막는다면, 그 功이 어찌 작겠는가'하였으며 1年이 못되어 큰 배 1백 30척이 僧軍에 의하여 建造되어 要害處에 나누어 지키니, 이때부터 倭의 侵寇가 조금 뜸해져 百姓들이 기뻐하였다.²⁸⁾

IV. 朝鮮時代의 僧軍

高麗末期의 僧役은 崇儒抑佛의 여파로 一時的으로 使役함에 불과하였고 國家의 制度로써 法制化한 것은 아니었다. 朝鮮王朝에 들어와 太祖는 抑佛政策으로 불교에 대한 整備作業을 하는 한편 國家의 稅源과 人力을 확보하려는 財政의 의도에서 必要한 勞動力を 軍役이라는 이름아래 百姓을 動員하였으니 僧侶에 대하여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때에 계룡산에 國都를 경영하기 為하여 朝廷에서 論議가 있었는데, 創業初에 百姓을 많이 動員하게 되면 怨聲이 생기기 쉬워 民心收拾에 影響이 크므로, 無爲徒食하는 僧侶들을 徵發하여 賦役시키는 것이 좋다는 儒臣들의 主張에 따라 各道의 僧侶를 징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國家에서最初로 決定한 僧侶의 大公役이었다. 그리하여 승려는 의무적으로 僧軍에 編入되어 戰時는 물론이고 平時에도 土木·水利工事나 紙類生產에 동원되었다.

이때 세상살이에 밝은 僧侶중에는 徵發令도 내리기 前에 自願 賦役하여 소위願僧이라는 新語까지 생기게 되었다. 즉 內願堂 주지 祖生은 數千의 願役僧을 인솔하고 自進 부역하므로 太祖가 매우 가상히 여기어 厚賞을 주었으며, 그후 漢陽에 國都를 定하고 궁궐과 성첩을 축조할 때에도 祖生 등이 역시 자원하여 부역하였다.²⁹⁾ 그러면 朝鮮時代 僧軍의 活動을 國家 財政의 側面과 軍事의 側面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기로 한다.

28) 東史綱目 第十六下 壬戌廢王禡八年, '造戰艦 … 又募僧徒 … 禦寇功豈細裁… 造巨艦百三十餘艘分守要害自後倭寇稍息民反喜之'

29) 車相贊, 朝鮮史外史 第一卷, 1947 明星社, p65.

1. 財政的 側面

1) 太宗 13年(1413) 한강 기슭 龍山과 江西에 각각 軍資庫와 豊儲倉이 세워질 때 壯丁 2,140명과 더불어 僧軍 5백명이 동원되었으며, 이듬해에도 全國에서 동원된 6백명이 都城의 左右行廊을 쌓는데 京畿道 船軍 1천명과 함께 동원되었다.³⁰⁾

2) 世祖때에는 재간있는 僧侶를 뽑아서 東大門 밖에 있는 普濟院과 沙峴 북쪽郊外에 있는 洪濟院(현 弘濟院), 漢江 북쪽 언덕 위에 있는 濟天亭, 漢江의 南沙교외에 있는 沙平院등 城밖 三面에 있는 4大院을 修築하였으며, 成宗도 有能한僧侶를 뽑아 箭串橋(뚝섬의 살고자다리)를 構築하도록 命하였다.³¹⁾

3) 世祖 4年(1458) 부터는 檜岩寺와 榆帖寺를 重創하는 工事에 僧軍을 動員하고, 그 代價로 度牒을 주는 일이 盛行하였다. 度牒이란 國家가 僧侶의 身分을 公認하는 文書로서 이것은 兵役免除의 구실도 하여던 것이다. 세조의 이같은 政策은 僧侶를 正式으로 國家에서 認定하는 結果가 되어 抑佛로 一貫한 儒臣들은 度牒의 支給을 中止하도록 王께 陳情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

4) 成宗 14年(1483) 昌慶宮을 새로 세울 때 願僧 2천명을 동원하고 그 식량도 각자 부담시키되 1個月간의 動員期間을 마치면 度牒을 發給하기로 했다. 이에 유신 孫舜孝는 '2천명의 僧軍에게 度牒을 준다는 것은 곧 精兵 2천을 穩는 것과 같사오니 이를 거두소서'하였으나 王은 유신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오히려 2천이 넘는 3천의 승군에 度牒을 내렸을 뿐 아니라 나아가 開慶寺 重創 佛事에 도 僧軍 4백명을 동원시키고 각각 도첩을 더 주기까지 했다. 이때 유신 최옹현은 '一般 國民도 나이 60세가 되어야 兵役에서 免除되거늘 하물며 不過 20日 程度의 동원으로 度牒을 받아 平生을 면제됨은 當치 않는 일입니다.'고 아뢰던 일도 있었다.

5) 中宗 30年(1535) 漢江 上流의 犬項나루는 서울에서 廣州 등 地로 往

30) 安啓賢, 韓國僧軍譜, 大韓佛教 1972. 4. 16

31) 儒齋叢話卷之九 '城外四大院 …世祖命僧之有才幹者修之… 有僧曾構箭串橋 … 成宗以爲能命其僧構之'

來하는 幹線路上에 位置하였으나, 江물에 잠기기가 일쑤여서 단단한 防塞工事を 推進키로 하고, 다음해 준공될 때까지 動員된 僧軍 3천명에게는 度牒과 같은 僧人號牌를 내어 주었다. 不過 2個月의 동원으로 호쾌를 얻게 되어 많은 僧軍들이 다투어 줄을 이었다. 僧軍에게 號牌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儒生들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中宗 32年에는 所遠半島를 橫斷하는 蟻項 運河工事が 着工되어 5個月 만에 完工을 보았다. 動員되어 2個月이 지난 僧軍 5천명에는 각각 號牌가 주어 졌으며, 그후에도 京畿道·黃海道·平安道 등 각 지방의 僧軍이 이에 參加하였다. 이리하여 全羅道 지방으로부터 稅米를 실고 西海 沿岸을 北上하는 배들의 安全運航을 期하게 되었음에도 儒生들은 僧侶에게 非人間的 取扱을 일삼았다. 그러나 僧軍에게 號牌를 주어가면서 그들의 힘을 입어야 했었음은 崇儒抑佛策을 指向하는 朝鮮王朝의 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었다.³²⁾

6) 光海君 8年(1616) 慶德宮(英祖 36년에 慶熙宮으로 개칭)과 壽聖宮의 두 宮殿을 세울 때 8道의 僧軍 1천명을 동원했으므로 민간에서는 떠들썩 하였다. 또 같은 해 仁慶宮을 造營할 때도 1천5백명의 僧軍이 全國으로부터 동원되었다.
³³⁾

7) 仁祖 7年(1629) 큰 장마가 저서 東道防川이 무너져 물이 南原城 東南門으로 들이닥쳐 오니 城中에 물이 가득 차 男女가 죽고 물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南原府에서 附近에 있는 4面의 民戶와 僧軍을 동원하여 東道防川을 修築 켜 하였다.³⁴⁾

8) 정조 5年(1781) 황해도 서부지역의 요충이고, 農·畜產物의 집산지인 長湍의 海安坊에 있는 金沙寺에 僧將을 두어 절 앞 갯벌을 营鎮처럼 꾸몄다. 그리고 監營으로부터 資金을 貸付받아 길이 40里가 되는 뚝을 갯벌에 쌓아 올려 그 안에서 農事를 짓게했으며 그 收獲이 천石이 넘어 먹고 남은 것은 軍糧米로 備蓄 켜 하였다.³⁵⁾

32) 安啓賢 앞의 글

33) 趙慶男, 繢雜錄一丙辰 '…作慶德壽聖兩宮 …徵督… 八道僧軍民間驅擾'

34) 趙慶男, 앞의 책 三, 己巳 '大霖雨水入南原城… 本府令四面烟戶及僧軍修築東道防川'

35) 安啓賢, 앞의 글

9) 正祖 18年(1794) 水原에 華城이 築造될 때 一般 地方民과 더불어 僧侶도 많이 動員되었다. 이때 동원된 畵工 46명중 40명이 僧軍이었다. 이것은 主要 建築物의 丹青에 僧侶들의 재간과 기술이 必要했기 때문이다.³⁶⁾

10) 朝鮮王朝 初期부터 나라에서 所用되는 각종 紙類를 生產하기 為해 造紙署³⁷⁾를 두었다. 그리고 이 造紙署에도 明宗때부터 僧軍이 動員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지서 승군이 종이 뜨는 일 以外에 다른 일에 차출되어 감으로 明宗 12年(1557) 2月에는 긴급한 軍事關係 이외에는 僧徒의 雜役을 禁하였다. 그 후 壬辰倭亂으로 파괴된 造紙署의 설비를 복구하고, 다시 그 正常化를 꾀했을 宣祖 29年(1596)에 다시 僧軍을 動員하여 종이를 생산케 하였다. 한편 地方에서는 顯宗 11年(1670)에 보통 큰 절에서는 每年 80卷을 작은 절에서는 60卷을 각각 生產하여 바치게 하였었다. 그 후 英祖 33年(1756)에도 全國 4개처에 있었던 造紙署에 僧軍이 동원되어 配置되었다.

烏山市에 있는 寶積寺(지금 洗馬寺)의 寺下村으로 紙串洞이란 마을이 있다. 禿山城을 등에 업고 따뜻한 南쪽을 向하여 아늑하게 자리잡은 곳으로 종이곶이 → 조이곶이로 불리우다가 지금은 조꼬지로 부르는 洞里이다. 이곳은 韓紙인 窓戶紙의 原料가 되는 닥나무가 많이 自生하여 절에 딸린 隨院僧徒가 살면서 종이 뜨는 마을을 이루게 됨으로써 생긴 땅 이름이다.³⁸⁾

2. 軍事的 側面

1) 燕山君 5年(1499) 西北女眞이 압록강을 넘어와서 江界의 樹坡鎮을 侵犯하여 그 城을 包圍하였다. 이때 成俊이 아뢰기를 '度牒이 없는 僧侶가 많음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變 때에 이 노는 사람들을 使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傳教하기를 '度牒이 없는 僧侶를 일으키는 일은

36) 水原市史, 1986. p381

37) 李弘植, 앞의 책 p1435 '太宗 15年 (1415)에 설치한 造紙所를 世祖 12年(1466)에 造紙署로 고침'

38) 拙稿, 禿山城考, 華城文化 3號 1987. pp.64, 65

아원대로 하게 하겠소'하여 僧軍이 그곳에 투입되었다.³⁹⁾

2) 明宗 3年(1548)에 승군 6백명을 동원하여 釜山浦에 城壁을 쌓아 올리고 그 代身 정식으로 號牌를 支給하였다.⁴⁰⁾

3) 明宗 10年(1555) 倭寇들은 배 60여척을 이끌고 全羅道에 侵入, 먼저 靈岩 · 達梁을 점령하고 於蘭浦 · 長興 · 康律 · 珍島 등을 짓밟으며 갖은 만행을 다 하였다. 이때 節度使 元積, 長興府使 韓蘊 등은 戰死하고 靈岩郡守 李德堅은 生捕되는 등 事態가 매우 緊迫하였다. 이에 朝廷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을 都巡察使로 하여 討伐軍을 편성하는 한편 全羅 · 清洪道의 僧侶로 僧軍을 조직하여 戰線에 보냈으며, 江華 · 喬洞 등 海岸線을 防禦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討伐軍은 靈岩에서 敵을 크게 破하여 그들을 몰아 내었다. (乙卯倭變) 그러나 倭變이 끝난 后에도 僧軍은 계속하여 築城과 造船을 비롯한 여러 일에 動員되었다.⁴¹⁾ 生覺컨데 燕山君으로부터 中宗時代에 이르는 40여년간은 佛教에 一大彈壓이 가하여진 시기였다. 禪科制度의 廢止는 勿論이고, 長安의 寺刹을 모두 撤廢하고 僧尼를 내쫓아 全國의 僧侶들은 감히 숨을 쉴 自由조차 잃게되어 심지어 '중을 죽이고도 살인죄 진다.'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明宗時代에 이르러 그 母后 文定王后 尹氏가 佛教를 篤信하여 佛教 復興에 心血을 다하여 禪科制度의 復活은 물론이고, 奉恩寺로 禪宗을 삼고, 奉先寺로 교종을 삼는 동시에 全國의 寺刹을 一新 改革하고, 成宗때에 엄금되었던 僧侶度牒制를 復給하게 되니 佛教가 한때 中興한 시기였다. 따라서 明宗時代 僧軍 動員에 있어서 儒臣들은 승군 동원은 力說하였으나 王은 되도록 反對하고 佛教를 비호하는 立場이었다. 이와같이 佛教를 排斥하면서도 國防이라는 美名下에 意圖的으로 過重한 任務를 佛教側에 부과 시킨 儒教主義 官吏들의 佛教政策을 알 수 있다. 반면에 佛教側에서는 新羅以來로 傳統的인 護國思想을 이어 받았을 뿐 아니라, 유교주의 사회안에서 불교 자체

39) 燕山君日記 卷第三十四, 燕山君五年八月 '野人七十餘人犯江界楸坡鎮圍其城… 成俊啓無度牒僧人之多臣所詳也如此事變之時役此游手則不亦可乎…役僧事依所啓'

40) 安啓賢, 앞의 글

41) 燃藜室記述 卷之十一, 明宗朝故事本末 乙卯倭變

李弘植, 앞의 책 p1085 및 년표

의 生命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公役을 甘受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明宗 20年(1565) 文定王后의 승하함을 따라 禪·教兩宗이 廢止되고 禪科도 廢하며, 여러모로 佛教를 彈壓排斥하니 佛教는 다시 悲運에 빠져 暗黑期를 맞게 되었다.⁴²⁾

4) 壬辰倭亂과 義僧軍

우리나라 歷史上 僧軍이 가장 큰 戰果를 올린 것은 역시 壬辰倭亂 때이다. 宣祖 25年(1592) 4月 14日 釜山浦에 上陸한倭軍은 5月에 서울을 짓밟더니, 6月에는 平壤城을 陷落하여, 宣祖는 막다른 골목인 義州까지 창황히 避難해야할一大危機에 直面케 되었다. 그러나倭軍은 主要道路를 따라 진격하고 요충지에만 주둔군을 進駐시켰으므로, 대부분의 지역은 왜군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地域에서는倭賊의 侵略에 抗拒하는 民族的인 레지스탕스의 본거지가 되어 各地에서 義兵이 일어나 一大血戰이 展開되었다. 이때 妙香山 普賢寺에 주석하던 西山大使 休靜이 宣祖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門徒 1천 5백명을 규합하여 念珠대신 칼을 들고 73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行在所(行宮)에 이르러 宣祖를 알현하였다.

‘國難이 이와 같으니 佛法으로 救濟할 수 있겠는가?’ 宣祖가 묻자 휴정은 ‘신은 이미 국내에 있는 僧侶 가운데 늙고 병들어 소임을 맡을 수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절에서 분향수도로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하도록 하였사옵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모집하여 데리고 왔사오며 戰場에 나가고자 합니다. 臣들이 비록 俗世를 떠났사오나 國內에서 태어나 聖恩을 입었사온데 어찌 한 번 죽는 것을 아끼겠습니까.’라고 忠誠을 맹세하니, 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휴정에게 一國都大禪師八道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の 칭호를 내리고 僧軍의 勤기를 간곡히 請하였다.

이에 휴정은 순안의 복흥사(법흥사)에 주둔하면서 「國難을 打開하기 위하여 總蹶起하라」는 격문을 팔도의 사찰에 띄우니, 健康하고 勇猛한 僧侶들이 自發的

42) 金得槐, 韓國宗教史 大地文化社 1978. p228-235.

으로 일어나 선봉에서 活人寶劍을 휘두르며 생사를 초월한 一片丹心 救國救民의 忠節을 發揮한 義僧軍의 활약은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혁혁한 戰果를 올려 我軍의 戰勢를 有利하게 이끄는 등 各處에서 抗戰의 중핵이 되었던 것이다.⁴³⁾

이를 地方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1) 京畿道地方

선조 25년(1592) 7월 京畿道 江華府 태생으로 全羅道 순찰사였던 권율은 서울을 수복함에 급선무라 하여 2만의 兵力を 가지고 북상의 길에 오르니, 이때 해남 대홍사에서 일어난 僧將 처영도 1천명의 義僧軍을 거느리고 이에 호응하였다. 이들은 9월에 수원부의 독산성에 이르러 주둔하면서 삼국시대 아래의 옛 성을 수축하고⁴⁴⁾ 보적사를 의승군의 本部로 하여 陣을 쳤다. 그리고 부근에 나타나서 노략질을 일삼는 倭寇들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의 倭軍은 큰 威脅을 느꼈으니 당시 陸路로(큰길로) 남쪽에서 서울로 오자면 수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지로 이곳을 권율이 장악한다면 후방과의 보급선이 끊겨 倭賊들은 독 안에 든 쥐 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 해로는 이순신이 제해권을 잡고 있어 해로로 서울로 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서울의 왜장 宇喜多秀家는 수만의 군사를 보내어 독산성을 包圍·攻擊하였다. 그러나 험한 山城의 地勢와 河川의 이를 충분히 이용하여 숨어서 쏘는 우리 軍士의 화살에 신식무기인 조총으로 무장된 왜적들도 별수없이 쓰러졌다. 누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계책은 모두 실패하여 약탈할 곳조차 없게 되니 倭賊들은 밤에 병영을 불태우고 다시 서울로 퇴각하였다. 처영은 다음 해 2월 고양의 행주산성으로 移陣할 때까지 그 해 겨울 동안 禿山城에 머물면서 경기도내의 적을 서울로 몰아넣어, 서쪽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변이중은 화포를 발명제작하여 행

43) 申旻, 再造藩邦志二 '於是清虛禪師休靜…至是糾率門徒一千五百人仗劍上謁於行在上謂之曰…命賜一國都大禪師八道禪敎 都摠攝扶宗樹敎普濟等階尊者之號…順安之伏興寺傳檄八路寺刹 健禿勇衲莫不來赴'

44) 金正浩, 大同地志, 水原府 城池 '禿城山城 …宣祖二十五年修築古城…'

주산성에서 대첩을 얻게 하였다.⁴⁵⁾ 참고로 禿山城과 寶積寺의 군사상의 위치를 알아보기로 한다.

禿山城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낙랑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그 11년(BC 8) 7월에 독산에 栅을 설치함으로 시작되었다.⁴⁶⁾ 그리고 침류왕 1년(384) 백제에 佛敎가 들어오자, 변경의 軍事的 要地인 禿山城 안에 山城을 영구적으로 수비하기 위한 둔영으로서의 사찰(寶積寺)을 세웠으니 군관민의 정신적인 전력을 높이는 군진속의 호국사찰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禿山城과 寶積寺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義僧軍의 兵舍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軍糧米·兵器 등을 備蓄하는 倉庫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보적사는 首都防衛를 위한 僧軍의 據點으로 後述할 南漢山城의 開元寺 등과 같이 國防上 일찍부터 政策的으로 開創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禿山城은 선조 25년에 수축한 후 선조 35년에 변옹성이 다시 수축하였으며, 영조 29년에도 보수하였다. 그후 정조 14년(1790) 龍珠寺의 創建과 함께 寶積寺도 중창되고, 순조 31년(1831)에 성첩과 성문을 중수하였다.⁴⁷⁾ 이밖에도 여주 신륵사의 僧侶들이 한강상류를 넘으려는 왜군을 저지하는데 힘쓴 일이며, 또 平壤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얼마후에 중홍사 승 行思가 성내로 뚫고 들어가 倭賊이 그 以上 더 北上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탐하여 온 일이라든가, 서울 문 밖 정토사 승들이 奇智로 왜군을 誘引하여 죽인 일 등 道內의 모든 짧은 승려들이 일어나 生命을 바쳐 왜적과 싸웠던 것이다.⁴⁸⁾ 이리하여 선조 26년 (1593) 平壤에서 남쪽으로 패주한 倭軍은 서울에 集結하여 2월 12일 행주산성을 몇 겹으로 포위·공격을 해왔다. 이때 승군은 지형상 공격은 쉬우나, 방어하기 힘든 서북쪽 허술한 자성의 수비를 맡았으므로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승장 처영 휘하의 승군이 자성으로 몰려와 화공하는 倭賊을 잘 막아내어 행주

45) 李悌宰, 앞의 글 p47-49.

46)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第一 '始祖溫祚王…十一年秋七月設禿山柵以塞樂浪之路'

47) 李悌宰, 앞의 글 pp60, 61

48) 李肯翊, 燐藜室記述 卷之十七, 宣祖朝故事本末, 京畿義兵

산성의 大捷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후 기다리던 서울 수복작전이 展開될 때 서울 동북쪽 수락산과 우환동에 結集하고 있었던 수천명의 왜군이, 사명당 휘하의 僧軍에 패배 당하므로써 서울 수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 4월 하순경에는 왜적이 거의 철수해 버렸다.

이리하여 같은 해 10월 1일 선조가 환도할 때 어가를 빼고 서울로 모신 것도 승장 휴정이 선발하여 거느리고 온 백名의 僧軍이었다.⁴⁹⁾

(2) 충청도 지방

청주싸움에서 방어사 이옥과 조방장 윤경기는 관군을 지휘하여 싸우다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분격한 공주 청련암의 승려 기허당 영규는 임진년 7월 4일 8백의 승려로 僧軍을 조직하고 8월 1일 청주로 향하니, 경기도 김포현 사람으로 충청도 의병장인 조현은 문하생과 의병 천여명을 이끌고 승장 영규와 합세하여 청주로 진격하였다. 승준과 의병은 청주성을 에워싸고 서문을 향하여 육박해 들어 갔다. 이때 성을 지키고 있던 왜장은 黑田長政이었다.

의승군은 비록 칼·창·낫·도끼로 武裝했으나 軍律이 嚴했고 官軍과는 달라서 生死를 초월한 殉教精神으로 戰力이 막강하여 당해 낼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적장은 북문을 열고 退却함으로써 清州를 收復하는데 成功하여 百姓을 安堵시켰다.⁵⁰⁾

이리하여 충청감사 윤선각은 8월에 장계를 올려 '청주수복은 오로지 승장 영규가 이끄는 승군이 선봉에서 主導的 役割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報告하였다. 王은 영규를 당상관에 승진시켜 僉知中樞府事를 명하고, 비단 옷 한 벌을 내려주었다. (영규가 금산에서 전사하자 비단옷은 중도에서 되돌아 갔다.)⁵¹⁾ 그러나 朝廷의 儒臣들은 다같이 이를 非難하였다. 나라가 危殆로운 난리 중에도 儒臣들은 名分을 더 앞세웠던 것이다. 이어 한 여름 장마비가

49) 申足 앞의 책 '僧將休靜選勇士百人來迎大駕'

50) 朴鐘和, 靈圭大師와 趙重峯, 佛教思想第10號, 佛教思想社, 1962, p107-111

51) 朴東亮,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八月 '忠清監司尹先覺啓曰…皆靈圭之功也遂陞堂上爲
僉知賜段衣一襲'

장대처럼 쏟아지는 8월 18일 조현과 영규는 錦山에서 小早川隆景이 이끄는 정예군 1만 5천의 왜적과 일대혈전을 벌였으니 이때 승군의 수는 2천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衆寡不敵으로 분하게도 敗하여 27日에 조현과 영규는 전사하고 말았다.⁵²⁾ 이로 인하여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왜적의 기세는 꺾이어, 그 해 10월 나라에서는 영규의 공을 높이 받들어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이때 충청도내 각 사찰의 僧侶들은 모두 승군으로 종군하여 전장에서 많이 희생되었으니, 임천의 보광사에서도 많은 戰死者를 내었다.

(3) 全羅道地方

三道의 接境인 무주지방과 덕유산 일대는 왜적이 전라도로 내려갈 수 있는 요지였으므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곳이다. 담양 옥천사의 승려 인준은 9월 14일 밤에 약 2백명의 승군을 지휘하여 무주로 갔으며, 남원의 승려 두인도 승군을 지휘하여 이옹수 등 의병과 함께 무주로 달려 갔음은 이 때문이다. 이와같은 國難을 당하여 전라도의 僧侶들도 총궐기하여 종군하였으므로 자연히 사찰마다 노승만이 남게 되어 덕유산 밑 영각사에도 젊은 승려는 볼 수 없었다.⁵³⁾

(4) 慶尙道地方

진주는 전라도로 통하는 요지였으므로 왜적은 10월 3일 진주성을 겹겹이 포위·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라우의 병장 최경희가 군사 2천을 거느리고 진주로 진격하던 도중 丹城에서 倭賊을 만나 激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敵이 오히려 勇敢히 싸우고 退却하지 않다가 마침 僧義將 신열이 僧軍을 거느리고 뒤따라 이르니 我軍의 士氣가 높아지고 一時에 挾攻하니 적이 드디어 退却하여 달아났다.⁵⁴⁾ 그리고 휴정의 문하였던 해안도 진주에서 일어났다. 후일 王亂의 삼대첩의 하나로 불리우는 진주성에서의 勝利에는 이러한 義僧軍의 勇敢한 護國精神으로 我軍의 戰勢를 유리하게 이끌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52) 趙慶男, 亂中雜錄二, 壬辰下 '二十七日 忠淸道義兵將趙憲 僧義將靈圭…'

53) 安啓賢, 앞의 글 1972, 4, 23

54) 趙慶男, 앞의 책 '冬十月全羅右義將 崔慶會領軍二千方駐丹城 … 賊猶敢戰不退會僧義將信悅率軍繼至士氣 自倍一時協擊賊遂退走…'

그후 서울이 收復은 되었어도 남쪽의 狀況은 아직 불안한 때였다.

惟政과 處英은 계속해서 權慄과 함께 僧軍을 거느리고 영남으로 내려가 의령에 陣을 쳤다. 남쪽으로 撤收한 倭軍이 진주를 다시 攻擊하여 앞서의 敗戰을 雪辱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僧軍들의 勇敢한 從軍에 선조는 전에 유신들의 반대로 거두지 않을 수 없었던 「磨鍊禪科事目」⁵⁵⁾은 禪敎兩宗을 다시 두려는 뜻이 아니라, 오직 敵을 무찌르기 위한 장려책이라고 再考를 요청하자 6월 29일 施行하기로 決定을 보았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진주가 倭軍의 손에 들어가자 7월에 선조는 磨鍊禪科事目的 施行을 충청·경상·전라 3도의 감사와 병사에 再確認시키는 同時에 이미 敵의 목을 베어 바친 僧軍에게는 速히 禪科급제증을 주도록 당부했다. 따라서 2일후에는 休靜의 보고에 의해서 적을 십 명 정도 죽인 天祐와 一순에게 각각 禪科를 주기로 하는 등 僧軍의 士氣를 높이는 데 朝廷에서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⁵⁶⁾

이 밖에 동해안 산속 깊숙히 묻혀있는 기림사도 승군들이 起居하던 護國의 要塞였으며, 당시의 혼적들이 至今도 보존되어 오고 있다. 즉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倭賊을 鎮壓하기 위해 세운 鎮南樓는 승군을 지휘하던 野戰司令部였으며, 임난후에도 왕명에 의해 주어진 「袁中天子勅 塞外將軍令」이라 새겨진 군령패(木旗)와 軍用 銅製 나팔이 많은 歲月이 흐른 오늘에까지 전하여 護國佛教의 얼이 서린 歷史의 現場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⁵⁷⁾

(5) 江原道地方

근왕의 教書와 서산대사 휴정의 檄文을 표훈사에서 받은 사명당 유정은 佛卓위에 펴 놓고 스님들을 불러 눈물로 읽으면서 효유하니, 산중에 있던 僧侶 7백여인이 다 일어나 서쪽으로 근왕하러 떠났는데 平壤에 다다를 무렵에는 僧軍의 수가 천명이 넘었다. 성의 동쪽에 주둔하면서 平壤收復을 위해 義僧軍의 總本部인

55) 敵의 목을 베인 僧軍에게 禪科급제증을 주는것

56) 安啓賢, 앞의 글 1972. 4. 30

57) 佛教新聞, 1985. 9. 18 歷史紀行 11.

순안 복흥사(법흥사)의 승군들과 서로 聲援이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읊은 시가 전하여 진다.⁵⁸⁾

邦家多難海波驚	국가는 다난하고 파도가 거세이니
玉輦飄口鴨水營	상감님은 훌러흘러 암록강가에 머무셨네
何處蚍蜉能濟急	어느 곳의 군사가 위급함을 구제하겠으며
幾人忠義更同盟	충의로운 맹세 몇 사람이나 할 것인가
由來恩澤曾均被	끼쳐온 은택은 다같이 입었으니
却喜儒禪不異情	나라 생각에는 儒나 禪이 다를 수가 있으랴
請看香山靜老宿	묘향산의 휴정 노스님을 보아라
戒刀揮處衲衣輕	계도(스님이 지니고 있는 작은 칼) 휘두르는 곳에 장삼(스님의 웃옷)이 가볍고나

휴정이 念珠대신 칼을 들고 일어서자 유정과 치영 등 그의 문도들이 전국에서 승군을 이끌고 궐기한 것을 읊은 시이다.

유정은 위세도 당당한 무장의 풍채를 지녔을 뿐 아니라 그의 학덕과 담력에 군복하고 감화되어, 고성을 점령하고 있었던倭將 두 명이 오히려 유정으로부터 戒를 받고 그 곳에서 撤收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到處에서 일어난 의승군의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은 당시 사회에 큰 刺戟을 주어 강원도 도순찰사의 종사관 홍인상은 널리 募兵에 나섰을 때에 '임금도 없고 부모 없다던 중들조차 의분을 일으켜 멀치며 일어나 죽음을 盟誓하고 몽둥이로倭賊을 쳐 부수고 있거늘, 하물며 道袍 입은 우리들 유생에 있어서라'고 呼訴했을 程度였다.⁵⁹⁾

(6) 平安道地方

선조 26년(1593)에는 정초부터 사찰에 남아있는 平安道內 늙은 승려까지도 모두 동원되어 군량미를 輸送하는 한편 때마침 들어 온 明軍과 더불어 평양 수복을 위한 反擊作戰을 展開하였다. 휴정의 挥下에서 活躍하던 유정은 휴정이 늙어

58) 申旻, 앞의 책 '休靜檄文至山中惟政 …悉起山中之僧七百余 …至平壤衆千余人 …有詩爲證曰…'

59) 趙慶男, 앞의 책 '無父無君之僧猶且奮義聚徒制挺討賊况我青衿之士…'

서 물러난 뒤 僧軍의 擄攝이 되어 左營將이었던 敬軒을 비롯하여 印悟 등 승장과 5천여명의 義僧軍을 거느리고, 유성룡 指揮下에서 명군과 협력하여 그 선봉에서 평양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僧軍의 主力은 平壤 奪還戰에서 가장 힘든 곳이었던 모란봉 쪽을 攻擊했었다. 이 戰鬪에서 義僧軍이 올린 戰果는 자못 큰 바 있어 我軍의 士氣는 沖天하여 平壤 收復에決定的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선조는 僧軍의 이러한 功을 致賀하여 서울收復을 目前에 둔 3월 27일에 유정을 禪敎兩宗判事로任命함과 同時에, 敵의 목을 베인 僧軍에게는 僧科 及第證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신들의 反對에 부딪쳐 결국 4월 12일에 유정을 堂上으로 삼는 것으로 落着시켰다.

5월에는 휴정도 堂上으로 삼으니 유신들은 그 堂上마저 비위에 맞지 않아 거듭 참소하였으나, 선조는 아예 이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 그뿐 아니라 승군을 보다 效率的으로 動員키 위해 8월에는 全國 8도에 각각 2명씩 擄攝을 두기로 하였으니 즉 16宗擄攝인 것이다.⁶⁰⁾

(7) 汝頭爲寶

선조 27년(1594)부터 朝廷에서는 戰爭보다 平和會談에 더 主力하게 되었다. 이때 유정은 明軍 擄兵인 劉綎의 要請에 따라 권율의 명령으로 4월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蔚山西生浦에 있는 倭軍의 本營에 가서 敵情을 살피는 한편 敵將 加藤清正과 대담하게도 담판을 하기 위하여 遷진으로 향했다.

加藤은 사명당을 威脅할目的으로 칼과 창을 森嚴하게 羅列하고倭兵들이 四面에 빙 둘러 쌌으나 유정은 조금도 두려운 氣色없이 錫杖을 짚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갔다. 加藤은 교만하게 의자에 앉은 채 스님과 會談을 했으나 決裂되자, 그는 유정을 회통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다.

'貴國에는 보배가 있소?'

'보배가 꼭 하나 있진 있으나, 그것은 日本에 있지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

'무엇이기에 日本에 있단 말인가?'

60) 安啓賢, 앞의 글

'당신의 머리가 우리나라의 보배이니 日本에 있지 않은가' 이 말을 들은 加藤은
怒하지 않고 웃어 豪傑다운 一面을 보이면서 '어째서 내 머리가 貴國의 寶物이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千金과 萬戶候의 賞을 걸고 求하니 어찌
보배가 아니겠는가?'

加藤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恭敬히 待接하여 돌려 보냈다. 아무리 사납다는
그의 胸中도 서늘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 이야기는 日本 本土에까지 전해져 뒷날 유정이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에
는 유정이나 사명당 대신 說寶和尚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즉 加藤과 氣 막힌 보배
이야기를 나누던 膽力 큰 高僧이라는 뜻이다.⁶¹⁾

(8) 水軍으로서의 승군

선조 26년 2월 22일 慶尙道 熊川에서 李舜臣에 依하여 水陸 兩面作戰으로 勝
利를 거두었으니, 이때 僧將 三惠와 義能은 熊川 앞바다 가까이 배를 대어 거짓
으로 上陸할 氣勢를 보이며 敵을 唐慌케 함으로써 이곳의 倭賊을 거의 섬멸 시켰
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남쪽으로 後退한倭軍이 晋州城을 다시 攻擊하여 왔을 때, 浮
休善修와 그 弟子 碧巖覺性도 僧軍을 거느리고 水軍의 한 部隊로서 活躍했었다.
⁶²⁾

선조 30년 倭軍이 再侵하였을 때 僧將 處英은 李舜臣과 긴밀한 連絡으로 作戰
을 計劃하였으며, 順天이 危殆롭게 되자 李舜臣은 僧將 惠熙와 함께 이에 임하였
다.

最近 麗水 興國寺에서 尋劍堂을 해체·복원하던 중 「順天府靈鷲山興國寺禪
堂收拾上樑記」와 「順天府靈鷲山尋劍堂重建上樑文」의 두 記錄이 대들보의 팬
속에서 直四角形 모양으로 접힌채 기름먹인 종이에 쌓여 原形대로 發見되

61) 申冥, 앞의 책 四 '貴國有寶乎… 何物耶… 以汝頭爲寶矣清正大笑而罷敬待而送之'
權相老, 四溟堂, 韓國의 人間椽, 新丘文化社, 1965, p408

62) 京仁日報社, 내고장의 脈, 1984, p280

어公開됐다. 이中尋劍堂上樑文은 幅 18cm, 길이 11m 70cm로 一般上梁文에서 보기드물만큼 크다. 興國寺禪堂收拾上梁記는 정조 4년(1780) 홍국사가 寶劍堂을 改築할 當時 祖室 應雲스님이 쓴 것으로 興國寺가 高麗時代 普照國師 知訥에 의해 호국사찰로 창건됐으며, 壬辰倭亂때 李舜臣장군의 청에 의해 자운스님이 수군으로 參戰 웅천해전 등에서 先頭 突擊隊로 活躍했다고 밝히고 있다. 上樑文에 나타난 僧侶들의 職責은 2백년 전 승군의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興國寺의 祖室인 행선교종정 응운스님은 全國의 僧軍을 指揮하는 8도도총섭의 職責을 갖고 있으며, 주지인 태순스님은 도총섭아래 의승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아래로 대시질, 도승통, 대방연, 종사, 전어, 기방, 사부청, 수영영방, 동변장 등 홍국사가 一般僧侶組織과는 別途의 軍隊式, 編制를 두고 獨自的으로 運營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興國寺尋劍堂重建上梁文은 순조 12년(1812) 화재로 消失된 寶劍堂을 30여년만에 복원하면서 쓴 것으로 여기에는 간부급 승려 1백 10명의 승군 보직명칭과 함께 홍국사 산하 10개 庵子소속 3백여 승군의 이름이 9m가 넘는 한지에 빠짐없이 記錄돼 있다. 이에 따르면 庵子의 僧軍들을 天河, 文殊, 引月, 滿月, 淨水庵 등 20개 명칭의 支隊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대의 승군은 많게는 30명, 적게는 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대의 우두머리는 中央僧軍組織의 간부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壬辰倭亂때 李舜臣장군이 올린 狀啓중에는 '승장, 수인, 의능 등이 이러한 난리 때문에 제몸 평안히 할 것은 생각도 않고, 정의의 氣概를 發揮하여 軍兵을 募集 각각 3백여명씩을 거느리고 나라의 수치를 쟁으려 하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라는 구절이 있다.(선조 27년 3월 10일) 이와같이 홍국사는 임난 당시 및 이후 2백여년 동안 이순신 장군 휘하 수군승병들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인다.⁶³⁾

(9) 山城의 築造와 僧軍

63) 佛教新聞, 1988. 3. 30 「水軍僧兵기록 興國寺서 발견」

山城의 軍事的 價値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성룡 등의 건의로 평양수복 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산성의 축조와 보수에 대개 승군이 이 일을 또 맡게 되었으며, 여기에 軍糧米와 武器를 備蓄해 놓고 長期的인 守備態勢를 갖추기로 했다.⁶⁴⁾

이에따라 경기도 지방에서도 서울 수복후 수도방어책으로 승군에 의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축조와 수비문제가 논의되어, 남한산성은 선조 28년 일시적으로 축조되어 다음 해 9月 유정이 승군을 거느리고 들어가 수비하면서 곡성을 쌓기 시작하여 선조 30년에 완성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존한 성축은 광해군 때 시작하여 인조 4년(1626) 사이에 여러차례 중수축된 것이다.⁶⁵⁾

북한산성도 선조 29년에 장차 성을 축조하되 성안에 군영으로서의 사찰을 지어 승려들에게 도첩을 주기로 하면 쉽게 僧軍이 조직되고, 火砲 등 戰術을 익혀 서울을 防備케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築城은 숙종 37년(1711)에야 이루어졌다.⁶⁶⁾

또한 선조 29년에는 용인에 石城山城(寶蓋山城)을 축조하여 승군이 이를 수비하였으며, 그 후 38년에도 竹山에서 山城(竹州古山城)이 修築될 때 승군을 거느리었던 영주의 공이 컸다.

이 밖에도 서울 방어를 위해 선조 28년에는 양평 근처 한강 연안의 용진(지금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진영을 강화하고, 이웃의 월계산성(지금의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도⁶⁷⁾ 수축하여 용진을 보강하는 工事에 총설승 見牛가 이에 임하였으며, 용진군은 앞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었던 황해·평안·강원 3도 출신의 승군이었다.

이어서 29년에는 수도방어를 위해 경기도에 4영을 설치하여, 각영마다 부근의 군현을 부속시켜 훈련 방수를 위한 지휘계통을 세웠을 때, 우영의 수원 독산

64) 李悌宰, 앞의 글 p33

65) 李弘植, 앞의 책 p339

66) 앞의 책 p625

67)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峰邊, 上, 1990, p197

성, 전영의 용인 석성산성, 후영의 파주산성, 그리고 용진에는 좌영을 두는 동시에 그 용진좌영을 4영의 본영으로 하였으며, 용진군은 여전히 승군이었다. 또한 행주로부터 원주에 이르는 한강에 5리 내지 10리마다 군사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병조판서 이덕형의 연강설영안에 의해서 28년 3월 의암을 都摠攝으로 任命하고 우선 여주의 파사성을 修築하고 병기와 식량을 갖추어 守備態勢에 들어갔다.⁶⁸⁾ 그후 선조 38년에도 죽산에서 산성을 修築하는데 功이 컸던 영주가 계속해서 승군을 동원하여 파사성을 수축하여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

한편 서울이 수복은 되었어도 그 防備 狀態는 말이 아니었다. 더욱 앞으로의 외침도 고려할 때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군사를 모집하여 鳥銃과 火砲 등 새로운 戰術을 익히는 機構로서 새로 創設된 것이 訓練都監이었다. 이에 따라 승군의 一部도 여기에 所屬시키게 되어 선조 27년 황해·평안·강원의 3도로부터 각각 수십명씩 僧軍들이 上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僧軍은 서울 收復후에도 계속 戰鬪와 築城을 비롯하여 새로운 戰術을 익히는데 動員되었던 것이다.

嶺南에서도 선조 27년에는 그 전년부터 이곳에 내려와 있었던 유정이 승군을 거느리고 삼가에서 악견산성을⁶⁹⁾ 狹川 冶爐에서 미승산성⁷⁰⁾ 그리고 성주 가야산에 가야산성⁷¹⁾을 각각 쌓아 올렸다.

호남에서는 장성의 笠岩山이 그 전략적 가치가 크므로 法堅을 부총섭으로 삼아 여기에 산성을 축조하고 성내에 둔영으로서의 사찰도 지어 수비토록 했다.⁷²⁾

그리고 서울 수복후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처영도 승군을 거느리고 남원에서 교룡산성 수축에 착수하여 선조 28년 峻工을 보았으며, 동원된 승군에게 각각 도첩을 나누어 주었다.⁷³⁾

68) 安啓賢 앞의 글, 1972, 5, 14

69) 大同地志 卷九, 三嘉, 城池 巍堅山城

70)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앞의 책, 下 p268

71) 앞의 책, p272

72) 李肯翊, 앞의 책, 별집 卷之十七 邊圉典故, 山城

73) 趙慶男, 亂中雜錄三, 癸巳 '令僧義將僉知處英修築南原蛟龍山城'

같은 해 유정은 대구 달성산성을 수축하여 아래와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食糧의 貯蓄이 어렵고 兵器도 허술하니 어찌 山城을 守備하겠습니까. 평시부터 一定한 兵力を 두어 밭을 갈아 食糧을 備蓄하는 한편 訓練을 하여 힘을 기르되, 將帥될 사람을 신중히 뽑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이상으로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백성을 너무 괴롭히면 그들은 도둑으로 변합니다. 바야흐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사온데, 신이 원하옵기는 승려도 百姓이오니 平安하게 자리잡고 山城 守備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에는 動員되지 않도록 하여주시면 有事時에 힘을 쓰게 되어 國家的으로 다행한 일인줄 아뢰옵니다.'

황해도에서도 산성 축조에 승군이 동원되었으나 수령들이 총섭의 이름을 팔아 한정없이 強制動員하였으므로 怨聲이 일었다. 이에 유성룡은 선조 29년에 황해도 순찰사에 글을 보내어 '僧軍들이 怨望하는 소리는 차마 못 듣겠다. 앞으로는 각 寺刹의 僧侶를 각별히 보호할 것이며, 山城 築造도 狀況과 時機를 보아 하되 한번 동원된 자는 1년에 다시 동원치 말라. 만약 이를 어기면 응분의 조치를 하리라'고 警告까지 내렸다.⁷⁴⁾

5) 丁酉再亂과 惟政

선조 29년(1596) 12월과 선조 30년(丁酉) 1월에倭軍은 14만 1천여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침입하자, 사명당 유정은 울산에 있는 왜군의 도산성을 包圍·攻擊하고, 다음 해 我軍의 總反擊戰이 개시되자 유정도 승군을 거느리고 남원 근처 주생에 진을 쳤다. 이어 우리의 청원으로 14만여의 명군이 들어오자 유정 指揮下의 僧軍은 명군과 합동으로 순천으로 내려가倭賊의 본거지인 曙橋를 攻擊하였다. 유정의 이러한 戰功으로 朝廷에서 嘉善同知中樞府事를 내렸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33년 영남으로 옮겨 조정의 남해안 防備強化策에 따라 바다 가까운 곳에 屯營을 設置하고, 승군을 새로 편성하여 훈련에 힘쓰는 한편 부산에서 성을 쌓기도 하였다.

74) 安啓賢, 앞의 글 1972. 5. 7

전후인 선조 37년(1604) 유정은 국서를 받들고 渡日 하여 德川家康을 만나 강화를 맺었으며, 이듬해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갔던 3천여명과 掠奪해 간 부처 님齒牙(신라 慈藏法師가 唐에서 모셔온) 10과도 같이 모셔왔다.

선조는 이 공을 기리어 가의대부(종2품)에 올리고 말과 모시옷을 하사하며, 재차 환속을 권유했다.(첫 권유는 선조 27년 平和會談으로倭軍 진영에 다녀와 상감에 보고하였을 때 있었다.) 그러나 유정은 끝내 지팡이 하나만 끌고 산으로 들어갔다.

6) 丁卯·丙子胡亂과 義僧軍

인조는 向明排金의 政策을 뚜렷이 내세워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의 동향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남한산성이 竣工되던 인조 4년 7월 묘향산 보현사에 있던 허백당 명조를 八道義僧都大將으로任命하여 승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나가서 훈련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는 더 나아가 청천강을 지키기 위하여 명조는 4천명의 승군을 指揮하며 안주에 포진하였다. 이 때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구실로 같은 해 정월 14일 3만의 군사로 鴨綠江을 넘어 侵入하였으니 소위 丁卯胡亂이다.

청천강에서 후금군과 만난 승군은 오랜 훈련으로 土氣가 旺盛하여 결사적으로 안주성을 지켰음에도 衆寡不敵하여 성은 陷落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항전으로 적의 남하가 최대한으로 지연된 공을 높이 치하하여, 명조에게 가선대부를 除授했다. 또한 적의 배후를 위협하기 위하여 信正 등 승군은 鐵山地方에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명조는 亂后에도 전진을 셧을 사이도 없이 계속하여 압록강변의 진장으로서 國境 警備에 임했다.⁷⁵⁾

인조 14년 5월에는 각도에 명하여 산성을 수축하게 하였으니, 본도에서는 금성, 입암, 적상 등 여러 읍에서 승군을 징발해서 기일을 정하여 賦役하게 하고,

75) 安啓賢, 앞의 글 1972. 5. 21

각읍 守 습들이 나누어 맡아 감독하였다.⁷⁶⁾ 같은 해(1636) 국호를 清으로 고친 後金은 조선의 계속된 敵對行爲에 대하여, 청 태종은 12월 2일 10만 대군을 친히 거느리고 심양을 출발하여 침입하니 丙子胡亂이다.

적은 破竹之勢로 남하하여 불과 10여일만인 16일에는 남한산성을 包圍·攻擊하였다. 성내의 군사는 1만 2천여, 食糧은 50여일 간의 補給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러나 승군들은 끝까지 잘 싸웠으며, 두 청같은 의승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방과의 連絡을 취하여 장계를 받아 오기도 하고 王旨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 때에도 四溟堂의 弟子인 虛白堂 明照도 義兵將이 되어 활약하였다. 비록 인조가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산성수비에 승군이 최대 최선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실이다. 또한 국치를 당하여 생사를 超越한 채 明나라와 清나라를 往來하며 국치를 씻으려고 行脚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곧 묘향산 승려 독보대사였다. 그는 육로로 동강을 거쳐 하남까지 가 명의 좌도독 홍승주를 의지하고 심양을 내왕하며 청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오다가 절도사 임경업에게 잡혀어 죄명길에게 보내졌다. 자연히 인조가 알으시고 마침 명에 사신을 보내려던 때라 국서를 독보에게 주어 병자년 국치를 홍승주에게 알리니 明帝가 알고 독보에게 「麗忠」이란 호를 내렸으며, 인조도 厚賞을 주었다. 각지의 원병들은 청군과 싸우면서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

인조 14년 12월 전라병사 김준용이 사영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산에 당도하였으며, 이시방은 우영병과 친병을 거느리고 공주에서 천안으로 전진하고 좌우도의 승군도 계속해 왔다.⁷⁷⁾ 그러나 김준용은 용인 廣敎山(光敎山)에서 비록 戰勝하지는 못하였으나 清軍의 죽은 자가 不知其數이며, 또, 청의 두 명장이 죽었다. 그러므로 공과 죄가 비슷하므로 그 죄를 풀어 주었다.⁷⁸⁾

76) 趙慶男, 續雜錄四, 丙子 '命各道修築山城…發僧軍剋期赴役各官守令分邊監董'

77) 趙慶男, 續雜錄四, 丙子 '金俊龍領四營兵到竹山李時芳率右營兵及親兵自公州進天安左右道僧軍繼至'

78) 앞의 책, 丁丑 三月 '金俊龍廣敎之戰雖未全勝清兵死者不知其數且兩名將死之…功罪相準釋其罪'

全羅監司 이시방은 안성 성남사(현 석남사)에 있다가, 광교에서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친병과 승군을 거느리고 공주로 가서 錦江橋를 끊어 적의 진출을 막는데 그쳤다.⁷⁹⁾ 한편 남한산성 축성후 화엄사로 내려가 있던 각성도 3천여의 승군을 모아 항마군이라 이름하고 복상하였으나 남한산성의 대세가 기우러지자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應俊, 昭彥, 瓊特, 慕雲 등 여러 僧將 가운데 특히 笠岩山城의 守城僧大將 겸 覺性의 참모로서 활약이 커던 응준은 일명 흑의장군으로서 그 이름을 떨쳤다.

난이 끝난 인조 16년 2월에는 3남의 僧軍을 動員하여 首都防衛를 위한 南漢山城의 修築에 助力케 하였으며, 같은 4月에도 僧軍을 徵發하여 茂朱 赤裳山城을 修築케 하고, 영남에서는 문경 새재의 어류산성을 修築케 하였다.⁸⁰⁾ 그리고 전라도총섭으로 임명된 각성이 18년부터 僧軍을 이끌고 적상산성 수비에 들어 갔으며, 25년에는 응준이 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 수비의 責任者가 되었다. 그는 현종1년(1660)에 승대장으로 임명되고, 3년후에는 정2품인 正憲大夫가 되었다.

7) 南·北漢山城 義僧軍

국방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던 인조는 즉위 2년에 황해·충청·강원의 3도에서 승군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수축했다. 그리고 이서의 장계로 화엄사의 각성을 8도총섭으로 삼아 邊境의 築城과 守備를 맡은 평안도와, 채은에 동원된 함경도의 승군을 제외한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임란 아래의 숙명적 大役인 남한산성 수축을 전임시켰다.⁸¹⁾

이것이 丙子胡亂의 피눈물 나는 치욕적인 수모를 씻어보겠다는 執念어린 인조와 승군들의 意志의 표리이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명승 응성도 각성을 도와 축성에臨했다. 인조 4년 7월 성이

79) 앞의 책, 丁丑年正月 '全羅監司留安城城南寺…李時昉聞廣教之敗…自領親兵及僧軍…公州撤錦江橋 以斷賊路'

80) 앞의 책, 戊寅二月 '令三南僧軍助役南漢修築'
戊寅四月 '發僧軍修築茂朱赤裳山城嶺南修築聞慶御留山城'

81) 앞의 책二, 甲子'督修廣州南漢山城發諸道僧軍赴役'

완공됨에 각성에게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의 칭호와 의발을 내리고, 동원된 승군에게는 도첩을 주어 그 신분의 사회적 보장을 꾀하였다. 성 주위는 6,297보이고 여첩이 1,897이다. 壇城이 3이며, 4門과 16暗門이 있으며, 그 안에 우물이 80곳, 못(池)이 45곳 있다. 영조 20년(1744)에 중수하였다.⁸²⁾ 이어서 남한 산성에 정규의 수성승군을 두었으니 이것이 제도화된 정규승군의 시초였다.⁸³⁾

이와 함께 수성승군과 부역승군의 식량, 군기, 화약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성내에 본래부터 있어온 망월사와 옥정사 외에 새로 7개 사찰을 창건하였으니, 동문 안에 개원사, 서문안에 국청사, 개원사 동쪽에 한홍사, 그 밖에 장경사, 천주사, 동림사와 성외에 영원사가 이 때 이룩된 것이다.⁸⁴⁾ 그리고 이곳을 승군의 병영으로 삼아 각도에서 올라온 승군들을 승영인 각 사찰에 배치하여 산성을 수비하였으며 이들을 의승이라고 하였다.

당시 僧軍의 編制를 보면 僧軍摠攝 1인, 승중군 1인, 교련관 1인, 초관 3인, 기폐관 1인, 원거승군(상비승군) 138명, 부상의승군(교대군) 356명으로 정하고, 平安道와 咸鏡道를 除外한 全國에서 윤번으로 每年 6회식 交遞하여 올라와 매인 2개월씩 입번하게 하였다. (의승입번제)⁸⁵⁾ 南漢山城에는 인조 4년에 총융 청을 두었으나 그 후 수어청이라 개칭하고, 수성군과 그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진을 總括 指揮하였으며, 정2품의 수어사는 광주유수가 이를 겸하였다. 승대장인 摠攝은 개원사에 본부를 두고 산성내의 제반 군무와 사무를 통괄하였다. 覺性이 初代 摈攝으로任命된 以來 경특, 응준 등을 거쳐 현종 15년(1674)에는 처능이 임명되었다.

총섭의 임명은 원래 수어사인 광주유수가 승려중에서 택하여 예조에 報告하면 예조에서는 병조를 거쳐 왕의 允許를 얻어任命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어떤 때

82) 增補文獻備考 卷之二十六, 輿地考十四, 關防二, 城郭二 '廣州南漢山城 …英祖二十年重修'

83) 車相贊, 앞의 책 p69

84) 洪敬謨, 南漢志 卷四, 1846

85) 洪敬謨, 앞의 책

는 예조에서 직접 임명한 일도 있었으니 고종 28년(1891)에 임명된 월초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기의 파격적인例이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僧軍은 首都防衛라는 重責으로 自負心과 使命感을 가지는 한 편 그 위세도 당당하였다.

숙종 9년(1683)에는 인원을 350명으로 했었으나, 3년후에도 395명으로 增員하였다가, 숙종 40년에는 다시 350명으로 환원시켰다.

歷代 수어사들은 승군을 위한 軍糧米의 조달과 備蓄에 매우 苦心하였다.

현종 13년(1672) 수어사 이완은 무기명 帖旨(사령장)인 空明帖을 450장이나 下賜받아 이를 부유층에 同知니 爰知니 하는 가관작을 주고, 그 代價로 전곡을 징수하여 약 8백석의 군량미를 조달하였다. 이는 매관의 하나로 世上에서 「보리동지(맥동지)」니 「벼락감투」니, 「주먹堂上」이니 하는 말은 이때문에 생긴 것이다. 숙종때도 수어사 이세백이 권세로 공명첩을 발행하여 軍糧米를 더 저장케 되었다. 그는 승창을 세워 군량미의 管理를 보다 效率的으로 하여 갔다. 그리고 軍糧米를 長利로 貸付하여 그 利息으로 每年 280石 11斗가 僧倉으로 들어 왔으며, 당시 승창의 세입은 쌀이 316석 7斗 4승 2합이오, 팔과 콩이 18석 8斗 3승 8합이며, 토막 쌀이 325석 11斗 6승 1합이었다. 당시 승군의 양식으로는 매년 쌀 309석 9斗 5승 9합 6작, 콩 74석 6斗 6승 1합 1작을 승창에서 支出하였다.

⁸⁶⁾ 숙종 5년 국방상 중요한 강화에 승군을 동원해서 포대를 쌓았으며, 9년에는 개성의 대홍산성을 수비케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이 컼던 것은 선조 아래의 현안으로 효종대에도 修築하려고 計劃하였으나 여의치 못 하였던 북한산성의 築城과 그 수비였다.⁸⁷⁾

마침내 숙종 37년(1711) 2월 축성하기로 결정하고 4월 3일 시작하여 9월에 완공하였다. 성 주위는 7,620보로, 그 중 수문 북쪽으로부터 용암에 이르는 2,292보는 훈련도감 소축이고, 용암 남쪽으로부터 보현봉에 이르는 2,821보는

86) 車相贊, 앞의 책 p74

87) 前述한 「山城의 築造와 僧軍」

금위영, 수문 남쪽으로부터 보현봉에 이르는 2,507보는 어영청의 소축이었다. 성의 높이는 평지가 12-14척, 산상 10척, 반축 6-7척, 여장의 높이 4척, 넓이 4척이니 총축고가 2,746보요. 반축이 2,906보, 반반축이 511보, 시축여장이 1,457보였다. 또한 광대한 행궁이 있는 외에 5대문, 9암문, 1수문이 있으며, 장대 3, 성곽 143, 지 26, 우물 99가 있다.

이상으로 보아 그 建築의 설계나 規模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화엄사의 승려 성능이 각도의 승군을 지휘감독하여 전적으로 그들에 의하여 축성이 이루어졌다.⁸⁸⁾ 또 같은 해 7월에는 공명첩이 하사되어 이를 팔아서 산성내에 새로이 8개 사찰을 짓기로 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공명첩이 하사되어 중홍사, 노적사, 서암사, 경홍사, 국녕사, 원각사, 부왕사, 보광사, 보국사, 용암사, 태고사의 11개 사찰이 세워져, 수성 승군영을 겸하게 되었다.

이들 사찰에는 당주승 외에 따로이 南漢山城의 경우처럼 平安道와 咸鏡道를
除外한 全國에서 割當에 따라 산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의승군들이 그 11개 사찰에 배치되어 2개월씩 근무하였다.

숙종 40년 그 정원을 南漢山城과 같이 350명으로 하였다. 따라서 11개 사찰마다 각 1명씩의 승장과 수승을 두어 所屬 寺刹의 군무와 寺務를 관장하였다. 특히 중홍사에는 수성승영을 두되 장진영이라 하고, 팔도도총섭을 겸하는 승대장이 여기를 본부로 하여 11명의 승장과 수승 그리고 중군, 좌우별장, 천총, 파총, 좌우병방, 교련관, 기폐관, 중군병방, 오기차지, 도훈도, 별고, 감관, 射科軍官, 서기, 통인, 고직, 책장무, 판장무 취수와 의승 350명을 指揮하여 山城內의 군무와 사무를 總括하였다.⁸⁹⁾

숙종 38년 성능이 초대 북한산성 도총섭으로任命된 以來 영원, 약휴, 서윤으로 이어졌다.

참고로 영조원년(1725)에 지은 삼각산태고사중창상량문에 의하여 다른 10個

88) 車相瓚, 앞의 책 p74-75

89) 聖能, 北漢志, 1711

寺刹의 各 僧將과 首僧을 보면

重興寺 :	僧將	自儀	首僧	克休
露積寺 :	"	嘉善懷秀	"	漢旭
西巖寺 :	"	嘉善元湜	"	肯信
慶興寺 :	"	通政泰堅	"	會還
國寧寺 :	"	喜善厚眞	"	青空
圓覺寺 :	"	通政熙淑	"	漢平
扶旺寺 :	"	通政戒淳	"	六宗
普光寺 :	"	通政贊允	"	智還
輔國寺 :	"	就超	"	就察
龍巖寺 :	"	嘉善有空	"	善贊이다. ⁹⁰⁾

이렇게 해서 남·북한산성은 나란히 우리나라 승군의 대본영이 되어 수도방위의 중책을 맡아 왔던 것이다. 경리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북한산성의 승군도 南漢山城의 僧軍과 마찬가지로 制帽를 쓰고 매일 독경수선과 무술연마를 일과로 하면서 산성을 수비하였다. 그 후 조선왕조의 문예부흥을 이루한 정조는 국방에도 유념하여, 3년(1779) 6월에 南漢山城을 크게 補築하고, 4문을 정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자, 그 해 8월에 왕이 直接 行次하여 산성을 둘러 보시며 승군을 사열하며 진법을 알고 있는가 시험도 하여보고, 승장인 홍섭도 병서에 능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승군에 대한 큰 關心을 보였다.

정조 18년 화성성역이 시작되어, 20년 완공되니, 南漢山城과 더불어 華城이 기각지세를 형성하여 수도방위군으로서 유사시에 협공의 태세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화성의 성역이 단순한 효심에서만 築造된 것이 아니라고 生覺되어진다.

여하간 정조 13년 부왕의 능침을 화산으로 옮기고 명복을 비는 원찰로 다음 해에 용주사를 크게 세우고, 사격을 높이기 위해 초대 주지 보경당사일을 북한산

90) 車相瓚, 앞의 책 76

성 도총섭으로 겸임시켰다.

정조 19년 수원에서 용주사 승군의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이회평은 「華城日記」라는 기행문에서 '龍珠寺의 摄攝이 승군을 거느리고 깃발을 날리며 電送하는데 僧侶도 軍服을 입었으며, 아이나 병방 기수들까지도 잘 어울려 영문의 기수와 다름이 없더라'라고 쓔으로서 당시 龍珠寺 승군의 위세도 당당하였던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⁹¹⁾

21년에는 수원유수 조신태의 계청에 의하여 龍珠寺 僧侶로 번갈아서 북한산성 도총섭을任命하였으니⁹²⁾ 순조 때의 등운 등은 다 그 것이다. 그러나 후기로 내려와서는 관권의介入으로 적임자가任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군에 대한 명령계통도 서지 않아 산성내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를 도총섭으로 임명하였으니 지금도 북한산 바위에 남아 있는 「북한산승도절목」은 앞으로도 이 일을 명심하기 위해 그 때 새겨 놓았던 것이다.

북한산성에도 南漢山城처럼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공명첩이 하사되었으나 매관매직의 일종임으로 영조 21년(1745)부터 南漢山과고 아울러 發給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승창이 세워져 군량미를 관리하였을 뿐만아니라, 그一部를 대부하여 이식을 취하기도 하였음은 南漢山城의 경우와 같았다.

그런데 승창미의 대부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도 생기게 되어, 정조 18년에는 승창의 관리를 관계관청에서 대신 관장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나 양주, 포천, 고양, 파주, 통진, 김포, 양천, 인천, 부평, 과천 등 14邑의 승창미 대부에 한하여는 종전대로 계속해서 총섭이 맡도록 왕이 분부하였다. 이것은 북한산성 의승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뜻이 있었으나, 그보다도 당시의 총섭이 용주사의 주지가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조 23년 경리청을 폐지하고, 총융청에 합쳐서 북한산성 의승군도 총융청 소속이 되었다. 의승군제도는 국가에서 佛敎僧團에 부과한 國防의 의무였으며, 임

91) 拙稿, 英正祖時代의 文運과 華城日記, 水原文化 6호 1986. p63.

92) 萬機要覽, 軍政編, 三, 北漢山城

진난 때 보여준 충성심과 용맹은 관군들보다 믿음직스러워 그 존속이 갈망되어 남·북한산성 의승군제도를 보게된 것이다.

한편 영조는 함경도 방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어느 영진은 승군이 전담하여 수비토록 했으며, 두만강지대의 차유령, 무신령, 가파령 등 세 재에 함경도 僧軍을 배치하여 守備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 5년에는 忠淸·全羅·慶尙道에 있는 각 사찰 주지인 승장을 모두 남·북한산성의 두 捜攝 부하인 장교승으로 대치 임명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사대부와 유생들의 노략질을 막는 동시에 두 山城과의 有機的인 체제를 세웠다.

문제는 두 山城을 守備하기 위해 2個月씩 교대로 1년에 여섯 번이나 전국에서 7백명의 의승군이 수백리 또는 천여리 먼 길을 왕래하는 의승입번제가 이를 보내는 사찰의 부담을 크게 하였다. 그 위에 各種 紙類를 赤字運營으로 生產하여 責任量을 上納하여야 하므로, 폐사되어 매기·매전하고 심지어 인징·족징까지 하는 폐단이 생겼다.⁹³⁾

이로 인하여 수도방위의 중책을 떤 두산성 義僧軍의 士氣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컸다. 이에 영조 12년 都搜攝 若休는 두 山城 守備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간곡히 상소한 바 있거니와, 영조 30년에는 호남리정사 이성중이 복명하기를 '번승의 여비와 장비마련에 폐단이 있으니 입번의 제도를 废止하고, 그 대신 병조에서 번전을 수납하여 본청(수어청과 총융청)으로 보내어 성내의 원거승을 삼군으로 대번시킴이 좋은 줄 압니다.'라고 하였다.⁹⁴⁾

이리하여 영조 32년에는 그 시정책으로 「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과 그 「別單磨鍊」이 완성되어 施行을 보게 되었다. 이 의승번전은 승군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명 승번고전 도는 고승전이라고도 하고, 이 돈은 호고전, 보장고전 이므로 흔히 군수삼전이라 하여 병조에서 수납하여 남·북한산성의 각 所管官廳인 수어청과 총융총에 보내지면, 각청에서는 격월로 1개월 1천 43량 4전씩을

93) 車相贊, 앞의 책 p72

94) 萬機要覽, 軍政編三, 捜戎廳, 軍儲, 義僧番錢

각각 捏攝에 支給하였다. 그러나 영조 45년 병조판서 구윤명의 계청에 의하여 본청에서 직접 수납하게 하였다. 그리고 平安道와 咸鏡道를 除外한 全國의 總 義僧番錢 負擔額은 7천 59량 5전 7푼이었다. 그 中 京畿 各邑은 138량 3전 4푼이다.⁹⁵⁾ 이로써 全國에서 입번으로 올라와야 했던 번거로운 制度는 없어지고, 의승번전에 의한 雇傭된 義僧軍이 두 山城의 守備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많아 실제 고용승에 돌아간 액수는 매우 빈약하여 산성밖으로 이탈하는 자가 많아졌다. 한편 할당된 額數를 마련하는 각 사찰도 온갖 苦痛을 當하게 되어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 폐사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조 8년에는 총융청에서 관동의승번전(江原道)을 면제하였으며, 12년에는 왕의 특명으로 번전을 반액으로 줄이고, 상장곡의 가분모곡으로 代充 紿與하게 하였다.⁹⁶⁾ 돌이켜 보면 선조, 광해군, 인조의 3대는 내우외환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僧侶를 국가방위에 이용하느라고 불교에 대한 큰 탄압은 없었으나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승군의 필요성이 줄어 들자 승려의 사회적 地位는 여지없이 떨어지고 억불책이 되살아나 숙종과 영조때에는 승려는 8천의 하나로 천시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고종 31년(1894) 甲午更張으로 남·북한산성의 승군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歷史의 뒤안길에 영영 묻히게 되었다.

V. 대한불교 호국승군단

남·북한산성 義僧軍制度가 廢止된 지 81년 만인 1975년 12월 17일 오후 2시 歷史的인 大韓佛教 護國僧軍團 發團式이 서울 조계사에서 全國에서 모인 간부급 스님 5천과 1만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있었다. 월서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찬불가, 독경의 순으로 진행된 발단식에서 각계·각층의 현화가 있은 뒤 철인스님의 발원문 봉독이 있었으며, 이어 승군단 총재인 서옹대종사는 '國家

95) 車相贊 앞의 책 p73

96) 萬機要覽, 軍政編三, 捏戎廳, 軍儲, 義僧番錢

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1천 2백만여 사부대중이 총화단결하여 호국안보에 선봉이 되어야 함은 선사의 유훈이요 불자 本然의 使命입니다.

본종(조계종)은 호국승국단을 창단하여 이 神聖·嚴肅한 법통을 창조적으로 繼承하고자 이에 歷史的인 발단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자는 본단을 主軸으로 하여 정법의 신행과 祖國 守護에 총화·정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평화통일의 염원을 이루하고 조국번영과 인류평화에 공헌하는 위대한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使命을 다 하시기 간곡히 당부합니다. '라는 법어가 있었습니다.

승군단장 영암 스님은 '오늘 이 발단이 조국통일의 原動力이 될 것이며, 우렁찬 발걸음이 평화와 자유를 영원히 이 땅에 보장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다음에 지단장을 대표하여 성준스님의 선창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 정신무장으로 국토방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으며 김제원 전국 신도회장은 '서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오늘 조국수호의 선봉에 선 快舉야말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는 축사를 남겼다.

호국승군단의 편제는 중앙의 승군단장을 총무원장이 겸임하고, 지방별 조직으로 전국 25개 교구본사에 지단을 설치하되 지단장은 본사 주지가 겸임하였으며, 소속 사암에는 분단을 두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⁹⁷⁾

京畿道에서는 華城의 龍珠寺와 양주의 봉선사에 각각 지단을 두고, 所屬 사암에 분단을 두었으며, 예비군인 스님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수도와 아울러 지역방위훈련에 임하였다. 끝. (제11회 京畿地方傳統文化 세미나(자료), 1988)

97) 大韓佛教 1975. 12. 21

天道教와 水原

1. 天道教의 起源

조선시대 정치·경제·문화·교육을 이끌어 온 유교는 통치계급의 독점물로 화하여 유신들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대국적인 안목에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경향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사화를 일으키고, 중기에는 사색당쟁을 일으켰으며, 향교와 서원은 백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폐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국가의 큰 골치거리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새로운 기풍을 갈망하며 방황하고 있는 허기진 만 백성에게 용기와 신념, 그리고 방향 감각을 제시해 준 것이 신흥종교인 동학의 출현이었다.

그것은 당시 정치와 사상의 부재현상이 엄습해 오는 오랜 과정속에서 해어날 묘한 방도가 없었던 절박감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19세기의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이념에서 영토까지 위협당하는 위기의식에 걸잡을 수 없이 침몰해 가고 있을 때였다.

이와같은 시기에 국내·외적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水雲 崔濟愚 (1824~1864)가 道를 天道라 하고, 學을 東學이라 하여 德을 천하에 퍼고, 著生을 廣濟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을 창도한 것은 1860년 4월 5일 이었다.

이리하여 지상낙원인 복지국가 건설과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나음으로써 민족적인 종교라고 함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敎祖 崔濟愚가 40세 되는 해에 모든 道事を 제2세 교조 海月 崔時亨(1827~1898)에게 맡기고 자신은 일심으로 포덕사업에 힘쓰다가 그 다음해 서학도로 지목되어 左道惑民의 죄명으로 대구감영에서 1864년 3월 10일 41세를 일기로 사형되었다.

그후 동학은 피로써 교단을 씻은 동학란(1894)이 지나간 뒤 최시형은 이미 순교를 결심하고 1897년 12월 24일에 道統을 義庵 孫秉熙(1861~1921)에게 전하였다.

제3세 교조가 된 손병희는 3년간 지하에서 교세확장을 했으며, 1905년 12월 1일 동학창도 46년만에 背教分子 등 混迷派를 과감히 축출·척결한 뒤 교리를 다시 정리하고 天道教라는 이름으로 종단을 새 출발하니, 이것이 동학의 정통으로 발전한 것이다.

손병희는 교세확장운동을 피하는 동시에 同德女學校, 普成專門學校, 普成中學校를 인수하는 한편 출판사 普成社를 부설하고 「천도교월보」 등 잡지, 서적을 발행하여 문화사업에도 팔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으므로 입교하는 자가 날로 달로 늘어 1910년경에는 교도 300만을 헤아렸다.¹⁾

특히 동학은 신분 嫫庶制度에 대하여 비판적이어서 당시 시달리던 민중에게 환영을 받아 삼남지방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4년 동안에 경상, 충청, 전라등 삼남지방에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손병희가 주동이 되어 1919년 3·1운동을 일으켜 민족대표 33인의 제1인자가 되어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병사하였다.

2. 天道教의 教理

동학은 儒·佛·仙의 교리를 토대로 새로 들어온 天主教와 基督教의 平等精神 까지를 섭취하여 '人乃天'·'天心卽人'의 사상을 펼쳐 나갔다.

최제우는 修練悟道의 방법으로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주문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그의 사상전부를 포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21자의 주문중에도 끝의 13자는 그의 사상의 진수를 말한 것이다.

즉 侍天主라는 것은 '天人如一'을 말하는 것으로 종래 우리가 생각하던 하늘 또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새로운 立論을 한 것이니 이말은 사람은 곧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1) 金得槐, 韓國思想史, 1973, 韓國思想研究所, p. 265

또한 天人如一의 사상은 事人如天을 말한다. 事人如天을 인간생활에 있어서 인권의 평등이며, 민생의 균등이며, 생활의 전선미화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제우는 여종 2인을 해방하여 한 사람은 자부를 삼고, 다른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아 당시 봉건제도하에서 事人如天을 실천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²⁾

다음은 地上天國思想이다. 최제우의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사상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여 정신개혁을 하자는 것이며, 객관적으로는 불평등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세계의 신앙을 통일해 지상천국인 세계일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輔國安民을 주장하였으니 모든 사람의 사회적 생활을 평화롭고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주장한 것이며, 布德天下는 인간개성의 완전해방과 향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회의 일체 불평등한 계급제도라든가, 빈부의 차나 약육 강식하는 것은 천리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개개인은 천도·천리에 순응하여 모든 악성·악습을 버림으로써 정신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³⁾

또한 동학에서 자립과 구원을 강조한 부분은 '廣濟蒼生 輔國安民 除暴救民'이었다.

황제창생이라는 안보적 공존 체제적 사상의 맥락이 그대로 민족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조성함으로부터 동학의 민중 구원적 사상은 시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보국안민이라는 국가보위 사상과 민족의 자존이 곧 被奪的 국가상황을 보완적 내지 투사적으로 구원을 표방함으로써 抗日 민족 구국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제폭구민이라는 질곡, 탄압, 위협, 암흑, 전제, 독주로부터의 과감한 해방과 함께 강한 민족의 독립사상을 형성해 왔다고 간주되는 것이다.⁴⁾

2) 金得槐, 前揭書 pp. 270~271

3) 金得槐, 前揭書 p. 275

4) 李炫熙, 東學思想과 民族獨立思想, 韓國思想 第19輯, 1982, p. 33

所依經典으로 「東經大典」과 「龍潭遺詞」등이 있다.

「동경대전」은 교조 최제우의 유문을 제2세 교조 최시형이 고종 17년(1880)에 편찬, 간행한 동학의 경전으로 내용은 布德文, 論學文, 嘆道儒心急, 呪文, 筆法, 詩文 등으로 되어 있다.

지금 남아있는 동경대전은 최시형이 암송한 부분만을 비밀리에 간행한 것이다.

「용담유사」는 악정과 계급차별, 질병 등에 신음하는 현실을 직관하고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로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일내 동학이 그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용담유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사에는 만민평등, 여권신장, 국권수호 등 근대적 성격을 엿볼 수 있어 국문학사상 적어도 가사 문학사상 근대화의 기점을 이 용담가사로 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3. 水原, 華城地方의 天道教 沿革

「天道教會月報」⁵⁾에 의하여 <水原郡宗理院 沿革>을 보면⁶⁾ (옛글이므로 풀이하여 씀)

우리 군이 대도(당시는 동학으로 뒷날 천도교임)의 盛運을 맞든 시기는 布德 25년(고종 21년, 甲申年 AD 1884) 2월경이었다.

호남인 안교선의 선도로 안승관과 김정현이 선도가 되어 근근히 발전하였다.

布德 31년(1890) 경인에 서병학, 장만수, 이규식, 김영근, 라천강, 신규식이 六任이 되고, 안승관은 畿湖大接主로, 김정현은 畿湖大接司가 되어 接主 임병승, 백난수, 나천강, 신용구, 나정완, 이민도 외 제씨의 알선으로 각지에 신도가 수만에 달하였다.

5) 京城天道教會月報社, 「天道教會月報 1927. 2月號」, pp. 29~32

6) 당시의 水原郡은 현재의 水原市와 華城郡임

※ 팔호안은 필자의 附記

동 34년(1893) 계사 2월에 海月神師(제2세 교조 최시형)의 命에 의하여 신용구, 이민도 외 제씨의 주선으로 報恩帳內에 수천인이 往參하였다.

동 35년(1894) 갑오의 동학란으로 안승관, 김정현은 서울에서, 김원팔은 수원성 내에서 정형을 받은 다음, 안성사람 김한식의 적절한 활동으로 오랜 세월동안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인심을 업고 나와 교세가 융성한 곳을 밟았다.

동 42년(1901) 신축에 聖師(제3세 교조 손병희)가 일본과 상해로 망명하실 때 여러차례 지방교인을 타일러 깨우치게 하였다.

동 46년(1905) 을사에 이종석, 임기진이 一進會사무소를 수원성 내에 두고 열열히 활동중 임기진은 전답 100여 마지기에 거액의 재산을 쓴아 수년간 포교 활동으로 쌓인 빚을 갚고 교세 확장에 노력하였다.

동 47년(1906) 병오 1월 3일에 성사가 귀국한 후, 동년 5월에 회교(會敎)분석의 종령으로 이종석이 교구장이 되어 이희신, 이덕유, 고주원, 진종구, 송익현, 유상준, 유도준의 알선으로 교구사무소를 수원성 밖 영화리에 정하였다.

동 48년(1907) 정미에 구락서가 교구장으로 취임하여, 동년 3월에 성사(손병희)가 오시어 연무대에서 교리를 연설하시었다.

동 49년(1908) 무신 12월에 교리 전문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동 50년(1909) 기유 2월에 이봉구, 공병태 양인을 선발하여 중앙총부 사범강습소에 입학시켰다.

동 51년(1910) 경술에 이봉구, 정도영, 고주원, 이희신, 이덕유, 이종철, 진여영, 진종구의 활동과 두목 제위가 특별 찬조금을 내주시어 교구를 장안동 초가수십여칸으로 이전하였다.

동 52년(1911) 신해에 본교구 관내인 성호면에 종학강습소를 설립하고 나천강, 최형선, 김정담이 가장 수고하였다.

동 53년(1912) 임자에 이종석, 정도영, 김정담, 이규식, 이민도가 차례로 성사주의 선발을 입어 봉황각으로 가다.

동 54년(1913) 계축년 봄에 이민도가 교구장으로 취임하여, 이종석, 정도영, 나천강, 김학습, 김정담, 이규식 외 제씨의 주선으로 교구사무소를 성내 북수리

기와집 40여칸으로 이전하니 현 교구이다.

동 55년(1914) 갑인에 대교구 시설에 있어서 대교구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성화실을 확장하여 전부를 일실하게 건축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하였다. 그러나 2개년이 걸리도록 비용이 적지않으므로 전 군내 개개인의 성의를 모으고(그후 건축기사가 월보에 게재되었지만) 용인, 안성, 시흥, 인천, 강화, 부평, 남양, 진위, 가평 각군의 의연금과 나천강, 최형선, 이병현, 최영선, 김인태의 출연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총인원, 의사원은 나천강이 피선되었다.

동 56년(1915) 을묘에 정도영이 의사원으로 마침 금정율에 처함에 이성구가 입원하였다가 동 57년 병진에 다시 정도영으로 교체되었다.

동 60년(1919) 기미에 교구장은 김인태이다. 조선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날이 갈수록 수십처에서 봉기하는 중 우리 교인은 성사주(손병희)의 유시문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왜적의 타격을 개개히 당한 역사를 대략 적으면, 동년 3월 31일에 본교구 사무실에서 일본인 소방대 수십인에게 난타를 당하여 김정담 외 10여인이 사경을 헤메고 있었으며, 교구 물품을 전부 파괴하였으며, 동년 4월 15일에 본교구 관내 향남면 제암리 전교사 안종환 외 김홍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종린, 김기세, 안웅순, 안상용, 안정옥, 안종형, 안종화, 김세렬,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 야소교당에서 무고하게 교의 혐의로 소살을 당하고, 곳곳마다 극심한 고초에 시달렸다.

동 61년(1920) 경신에 이병현, 홍종옥, 이연학, 김유경의 발기로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설립하였다.

동년 11월에 본회의 주선과 강사 유희준의 열성으로 天道教敎理講習會를 개설하였다.

동 62년(1921) 신유 7월에 議正會 規程에 依하여 議正員은 유희준이 피선되었다.

동 63년(1922) 임술 6월에 이성구가 規制變更會議에 참석하였다.

동년 11월에 宗法會規程에 의하여 본 교구가 선거구가 되어 宗法師를 선정함에 한세교가 피선되었으나 사면함으로 유희준이 피선되었다.

동 64년(1923) 계해 5월에 본 교구 명의를 宗理院으로 변경하였다.

동 66(1925) 을축 12월에 教中 분규로 인하여 '본원 종리사 나천강이 지방 대표위원이 되었다.' 하였으며 또한 「삼괴지역의 핏자국」에 의하면 천도교 포덕 60년(1919) 3·1운동 이전에 이미 天道教 南陽敎區가 창설되어 관하에 7개 傳敎室이 있었으니 장안면에 수촌리, 기림골, 장안리, 거목골, 우정면에 사금말, 덕복리, 고은리이다.⁷⁾

교구장은 한세교이고, 수촌리 전교사에 백낙열, 사금말 전교사에 김영보, 고은리 전교사에 백낙은이었으며, 운평리 책임자는 이종우였다. 이상과 같이 수원, 화성지방에 천도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1884년부터 1925년에 이르는 40여 년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다음은 수원교구의 임원과, 面傳敎室의 임원을 연도별을 보면,

1) 수원군 교구 직원

布德年	敎區長	理文員	金融員	典制員	講道員	巡迴教師
47(1906)	이 종석	구 락 서	•	•	•	이 회 신 이 종 철
48(1907)	구 락 서	정 도 영	•	•	•	"
49(1908)	정 도 영	정 기 영	이 회 신	•	•	이 덕 유
50(1909)	"	박 재 순	"	•	•	장 영 만
51(1910)	이 봉 구	공 선 원 공 병 태	고 주 원	이 회 신	•	김 흥 렐
52(1911)	공 병 태	최 혁 래	나 천 강	"	최 혁 래	"
53(1912)	이 민 도	진 시 영	"	"	"	"
54(1913)	나 천 강	"	최 형 선	"	"	윤 태 익
55(1914)	이 종석	"	나 천 강	"	"	"
56(1915)	정 도 영	나 천 강	김 인 태	"	나 천 강	홍 종 각

7) 김선진, 삼괴지역의 핏자국, 新人間誌, 1979, 3, pp.68~71

57(1916)	이 봉 구	이 병 헌	"	최 영 선	"	이 종 환 안 종 린
58(1917)	김 인 태	이 영 서	김 학 습	이 병 헌	최 영 선	박 영 래
59(1918)	"	안 정 옥	이 병 헌	"	이 성 구	"
60(1919)	"	"	"	김 정 담	나 천 강	"
61(1920)	이 성 구	유 회 준	장 기 환	이 종 환	진 종 구	김 유 경 이 연 주
62(1921)	"	이 연 주	김 유 경	"	"	장 김 연 수 현 주
63(1922)	종 리 사 이 성 구	서 무 원 이 연 주	경 리 원 김 상 근	•	•	•
64(1923)	나 천 강	장 연 수	장 기 환	•	•	•
65(1924)	김 유 경	이 연 주	장 연 수	•	•	•
66(1925)	나 천 강	이 종 환	이 정 우	•	•	•

2) 面 傳教室 職員

현재 面 傳教室에 5개년 또는 10개년 準誠者는 90戶이며, 庵號 諸位의 성함은 다음과 같다.

묘암 김정담, 고암 송종수, 좌암 이규식이다.

이상의 자료로 보아 수원·화성지방에 천도교가 전파된 것은 교조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철종 11년(1860) 이후 25년만인 고종 21년(1884)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때였다.

즉 안으로는 개화당이 수구당의 민씨 일파를 살해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甲申政變이 있었고, 밖으로는 4월 韓英修好條規가 비준·교환되고, 5월 韓伊(義)修好條規와 韓露(我)修好條規가 차례로 조인되어 外勢가 물밀듯 들어오더니, 마침내 한발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청국과 일본의 양군이 10월에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우외환은 우리 민족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끼쳐, 차차로 자기반성과 자기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양감면 전교사	성호면 전교사	성호면 오산리 전교사	동탄면 전교사	향남면 전교사	수원면 전교사	매송면 전교사	봉담면 전교사	일왕면 전교사
장명만	홍재범	송종수	장기남	김홍렬	김 훈	이종태	이교식	윤태익
이규상	이병인	엄운보	박두병	안종린	한지화	안재규	이교달	염석만
손준웅	홍종각	차재윤	김재천 임용진	김학교	최재순	•	최광두	•
장기환	최영선	임영식	최경렬 사원홍	홍순진	김학인	•	진덕환	•
서정우	홍종학	이정우	강성희	임영환	김상근	•	•	•
장영관	이연주	송종면	김유경	안종환	이용선	•	•	•
최기연	유진철	이남희	•	조동학	•	•	•	•
종리사 이종환	종리사 홍종각	종리사 이정우	종리사 임승팔	종리사 김기덕	종리사 김상근	종리사 김명운	종리사 이선좌	•

이때에 신흥종교인 천도교가 몰락한 양반과 서민층에 영입되어, 외세를 축출하는 민족자각운동으로 결집되어, 순식간에 삼남 일대에 포더되었음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원·화성지방에도 이미 100여년전에 천도교가 전파되어 민족 구국 운동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후술 : 4. 水原·華城의 天道教와 3·1運動)

한편 기미년 독립만세 사건(3·1운동)을 계기로 당황한 일제 침략자는 더욱 교활하고 위선적인 식민지 종교정책으로 우리의 정신계를 분열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懷柔·彈壓과 鏡劍으로 民族의 抹殺과 變節을 劃策하여 이 땅의 전통적인 종교는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그 위에 1922년 손병희 사망후 천도교는 불파에 이은 새로운 분열로 1940년 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겪는 동안 일본은 민족운동의 온상이 있던 천도교를 탄압하여 중앙대교당은 군복공장으로 징발하고, 지방 교당은 폐쇄시켰다.

1945년 조국 광복후에도 거듭되는 혼란과 민생고,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이 땅은 젓더미가 되었으나, 동란중 남하한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1960년(포더

101년) 다시 水原教區를 재건하였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재편된 역대 교구장은 아래와 같다.

초대 교구장 오룡삼(1960~1965)

2대 교구장 최성린(1966~1972)

3대 교구장 김학순(1973~1977)

4대 교구장 김치근(1978~현재)

그러나 천도교가 최근 날이 갈수록 教人們들이 줄어들고 있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히 수원교구는 뿌리 깊은 토박이 교인보다 월남한 노인층이 주류라는 점이 교세 약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동학꾼을 찾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세확장운동에 나서고 있다.

1860년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운동의 중핵을 이루었고, 1919년 독립만세 시위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중 15명이나 서명하였으며 이 운동을 주도한 이는 천도교인 의암 손병희였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 부르짖었던 동학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정신을 내세우는 천도교가 광복 이후 40여년의 기나긴 침체를 벗고 「현대의 동학꾼」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4. 水原 · 華城의 天道教와 3 · 1운동

3 · 1운동은 우리 민족사나 천도교 교회사에 있어서 천추에 빛나는 거룩한 거사이었다.

당시 손병희의 영도하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사에서 인쇄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측에서 각각 담당 지방에 보냄으로써 3 · 1운동은 전국에 번지게 되었다.⁸⁾

이 가운데 수원 · 화성지방 교인들의 활동을 여러 문헌을 자료로 살펴보기

8) 朴昌建, 3 · 1운동과 천도교지방교구의 활동, 新人間, 1988. 3. p.4

로 한다.

1)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 대교당 건축비를 빙자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때에 삼괴지역 전교사이며 수촌리사는 백낙렬은 논 3,000평, 밭 2,000평, 그의 동생 백낙소는 논 1,500평, 밭 1,000평, 사금말 사는 기봉규는 논 3,000평, 밭 7,000평과 가옥, 고주리의 김홍렬 논 3,000평, 밭 3,000평, 한각리의 최진협은 논 1,500평, 밭 1,000평, 역시 한각리의 최진승은 논 1,000평, 밭 6,500평, 이화리의 박시정은 산 3,000평, 소 1두를, 노진리의 박용석은 논 1,000평, 밭 2,000평 역시 노진리의 박운선은 논 1,000평, 밭 2,000평, 거목골 우준팔은 논 450평, 밭 1,000평, 역시 거목골 사는 우의현이 논 1,500평, 문경화가 논 2,000평, 우경팔이 논 1,500평을 회사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천도교인들이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산을 팔아 독립기금을 중앙총부로 옮겨보냈다.⁹⁾

2) 백낙열(수촌리), 김성렬(고주리), 안종후(제암리) 등은 서울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고향에 돌아온 후 천도교 남양교구 관하 7개 전교실 교역자들과 만나 거사를 의논하고, 한편 차회식(석포리), 김홍렬(고주리)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추진하였으며, 4월 1일 밤 7시 수촌리 개죽산 봉화를 신호로 일제히 만세시위를 전개키로 하여 산봉우리마다 횃불이 옮겨지면서 계획대로 실시하였다.

4월 2일 이봉구, 홍수강, 차인범 등이 전교실에서 며칠 밤을 묵어가며 만든 태극기를 시위 군중에 나누어 주었다.

차회식이 석포리쪽에서 인솔한 군중이 장안면 수촌리로, 다시 꽃밭에 마을을 거쳐 거목골로 행진하니 이곳 전교실 교역자 이종근, 우종렬, 우영규 등이 주민을 동원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다시 독정리로 향하니 이곳에는 장안리 전교실 교역자 조교순, 양순필이 주민을 동원하여 모여 있었으며, 기림골

9) 김선진의 前揭論文, pp. 68~69

로 향하니 여기에서도 전교실 교역자 김현조, 김익배의 책임하에 군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동을 같이 하였으니 그 수는 400여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백낙열이 주동이 되어 어은리에 있는 장안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살르고 그 여세를 몰아 우정면사무소를 습격하기 위하여 사금말로 가니 이곳에는 고은리 전교사 백낙은이 고은리, 매향리, 석천리 등지의 군중과 대기하고 있었으며, 덕목리의 한세교는 노진리의 박용석, 박운석과 같이 이화리, 덕목리, 석천리의 군중을 모아 집결하였고, 사금말 전교사 김명보는 화산리 주민을 동원 전교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성난 800여의 군중은 우정면사무소를 습격하는 한편 백낙열의 지시에 따라 화수리주재소(경찰지서)를 습격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한각리의 최진규, 최진성, 최진승 등이 주민을 동원 합세하였고, 운평리에서는 이종우가 주민과 함께 합세하였으며, 이에 원안리 주민까지 합쳐 화수리로 향하였다.

또 호곡리와 주곡리 주민들은 주재소 뒤로 포위하고 압축하여 주재소 순사부장 가와 바다(川端豊太郎)을 타살하고 주재소에 불을 질렀다.

여기에 참가한 우정면과 장안면민은 실로 2,000여명이었다.

그러나 왜경의 총탄에 김현모, 김정식, 이경박이 죽고, 이봉구, 송성호는 중상을 입었다.¹⁰⁾

3) 4월 3일 향남면 발안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 1개소대는 아리다(有田)중위의 지휘로 화수리로 들이닥쳤으며, 발안주재소 순사부장 사이다(佐板)도 이에 합세하여 닥치는 대로 주민에게 총을 쏘고, 마을에 불을 질려 27채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봉래사에도 불을 지르고 주지스님의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지내게 하였다.

이어서 천도교인이 많이 살고 있는 한각리로 직행하여 살인, 방화한 후 조암리

10) 김선진의 前揭論文, pp. 68~71

로 갔으나 주민들이 피신하고 없자 9채의 집에 방화, 마을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

4월 4일 사이다의 지휘로 수비대가 석포리에 들이닥쳐 많은 주민이 잡혔다. 그러나 차회식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로 “가와바다는 내가 죽였소”하는 바람에 15명을 발안주재소로 끌고 가 가혹한 고문을 하였다.

이 가운데 차회식, 차병환, 이영쇠, 장소진 등 5명은 수원으로 끌려가 오랜 공판 끝에 3년에서 15년까지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수촌리에 대한 보복은 4월 5일부터 11일에 이르는 동안 4차에 걸쳐 자행되었으니, 전날 발안 만세사건의 주동이 수촌리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왜병은 닥치는 대로 총을 쏴 부상자가 부지기 수였으며, 수촌리 42호중 38호가 불에 타 없어졌다. 이때 천도교의 전교실이며 거사의 계획을 짜던 백낙열의 집과 야소 교회도 불에 탔다.

그뿐 아니라 수촌리를 비롯한 가장말, 꽃밭에, 용담굴의 주민들을 속여 강제로 가구당 1인씩 모이게 한 후 뱃줄로 묶어 발안으로 끌고 갔으니 12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가진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수원, 대구, 함흥 등 감옥으로 끌려다니며 옥고를 치렀다.

계속하여 장안리로 들어가 양민을 살상하고, 기림골에 도착한 수비대는 천도교 전교실에 방화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러 부락 13채중 12채를 전소시키고, 일하는 농민까지 무조건 살상하였다.

다음에 어온리와 거목골에서도 같은 수법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리하여 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발안주재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람은 약 270명, 그들의 총칼에 죽은 사람이 23명, 중상자 14명, 그리고 옥고를 치른 사람이 2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4) 3월 21일부터 동탄면 오산리에서 천도교인 박두병, 김재천은 김진성과 합의한 후 인근 부락과 연락하여 만세를 부르고, 야소교인과 연락하면서 이곳

11) 김선진의 前揭論文, pp. 71~77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만세를 불렀으나 극히 평온하게 하여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¹²⁾

그러나 이로 인하여 천도교인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어 마침내 방교리에 있던 천도교회당도 얼마 안가서 폐쇄되었다고 한다.

5. 天道教의 現況

민족자각운동으로 민족주체사상을 고취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기미년에는 민족대표로 독립선언까지 하였던 민족적 종교였던 天道教.

그러나,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에 이어 광복 후에는 또다시 조국분단으로 인한 동란과 외래종교의 눈부신 활동 그 위에 안으로 교단내의 분규와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에 대한 포교의 불충분으로 학문의 대상이 될뿐, 종교로서는 침체 일로에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 다행이 최근 중앙총부에서 「동학꾼 찾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옛모습을 찾게 될지 뜻있는 사람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앙기관인 中央總部는 집행기관인 教領司와 의결기관으로 宗議院이 있으며, 그밖에 자문기관인 玄機室과 징계기관인 監司院을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각시군에 教區, 면에 傳教室을 두고, 그 밑에 세포조직이 있으며, 매년 중앙에서는 全國年次大會, 지방에서는 年次教區大會를 열고 있다.

1979년 10월말 현재의 문공부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23개의 교당에 신도수가 8만 2,748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후 1983년 12월말 발표한 통계에는 전국의 교당수는 272개소이며 교직자는 4,421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87년 12월말 기준 文公部가 조사·발표한 天道教의 교세는 신도수 26,818명으로 집계되어,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³⁾

수원, 화성지방에서는 수원시 매향동에 수원교구 사무소가 있을뿐, 화성군에

12)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1959, 時事時報社, p.872

13) 서울신문, 1988. 6. 26, 文公部 宗教別教勢現況 발표

는 독립된 교구 사무소도 없이 수원교구에 속해 있으며, 필자의 조사로는 장안면 사랑리에 전교실이 있으며 교직자(여) 1명에 신도는 남 6, 여 14, 계 20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아래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水原의 天道教가 아니었던가? 세삼 諸行이 無常함을 아니 느낄 수 없다 끝. (水原文化 10호, 1988)